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연구

책임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De-Ping Lu(중국청소년정책연구소 · 부소장)

Kazuhiko Fuwa(일본쇼케이학원대학 · 교수)

연구보조원 : 우영주(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결과 요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국가의 중요성 및 자긍심,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정부 정책 및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등에 대한 한중일 청소년의 국가관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과 국가관 비교에 관한 연구가 최근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관계 형성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여겨짐.
- 연구 결과에 근거 동북아 국가간 청소년 문화공동체 형성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이 연구의 표집은 한, 중, 일, 각 국의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남·여 각 150명씩을 기준으로, 한국(서울), 중국(북경), 일본(동경)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이 번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중일 세 나라 청소년들 간에 공통점으로 부각된 항목 >

-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세 나라 청소년 모두 ‘문화·예술’ 및 ‘정치·사회’ 분야를 꼽고 있음. 이는 앞으로 동북아 국가간 청소년문화 공동체 구축에 밝은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역사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3국 청소년의 50% 이상이 ‘민중의 힘’을 들고 있는 반면, 정치지도자 혹은 지식인의 영향력은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에 의해 각각 10~20% 정도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음.
- 자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세 나라 청소년 모두가 긍정적 인식(한중일 각각 76%, 81%, 52%)을 보이고 있음. 이는 각 국의 문화적 특성을 최대

한 반영한 상태에서 청소년문화교류를 추진해야하는 당위성을 제시해 주고 있음.

- 유럽연합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아시아연합(Asia Union) 결성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각각 63%, 53%), 일본 청소년들 역시 44%가 찬성을 보이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한중일 청소년 모두 자신이 속한 나라이며,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나라로는 미국을 선택하였음. 이는 한중일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국가관과 민족의식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세 나라 청소년들 간에 차이점으로 나타난 항목 >

- 역사 공부의 목적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과거 통한 현재의 이해’를 위해 역사를 공부하는 한편, 중국 청소년들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고취가 주목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 30% 이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중국 청소년들은 18% 이하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는 개인을 우선 하는 민주주의 국가체제와 집단을 우선하는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됨.
-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동의하고 있는 반면, 일본 청소년들은 36%로 나타났음. 특히 ‘지나간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다’라는 일본 청소년의 응답이 10%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각각 4%, 2%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높음. 이는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차이와 함께 역사 문제 해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한국 청소년의 경우는 40%,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22%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국민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한국인은 단결심(36%), 중국인은 근면성(21%), 일본인은 예의바름(25%)을 들고 있으며, 가장 큰 단점으로 한국

인은 성급함(46%), 중국인은 이기심(28%), 일본인은 사치스러움(40%)이라고 응답하였음.

3. 정책제언

- 각국의 역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제고와 역사공부의 동기부여를 위한 정부, 학교, 그리고 지도층의 역할제고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청소년들의 역사교육 목적의 재정립과 함께 역사적 이슈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중심의 역사교육방식을 점차 확대시켜야함
-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 정립을 위해 각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합의도출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함.
- 동북아 국가간 청소년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법제도 정비, 재정적 지원방안, 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확립해야함.
- 교환 학생, 직업체험, 수학여행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부합된 상호교류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역사의식에 대한 차이 해소, 국가관 형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할 지도자 워크숍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동북아 국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청소년국제교류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동북아 국가간 청소년 분야 장차관급 회의를 정례화로 ①청소년 교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현안 및 해결방안, ②외국청소년 전용숙소 설치, ③청소년 NGO의 네트워크, 교류 및 연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④동북아 대학생간 학점교환, 교환학생제, 동북아교류협력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목 차

I.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특징 분석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3. 용어의 정의	10
4. 선행연구 고찰	11
1) 한중일 청소년의 가치의식 및 국가관 비교	11
2) 역사인식 관련변인 및 연구결과 요약	15
II. 이론적 배경	
1. 동북아 3국의 역사인식에 관한 논의	23
1) 역사인식의 개념 및 발달단계	23
2) 동북아 3국의 전통적 역사관 비교	26
3) 2차 대전 이후 동북아 각국의 역사인식	26
2. 국가의식의 개념 및 형성배경	34
3. 동북아 3국 청소년의 국가의식 강화정책	36
1) 중국의 애국주위와 역사교육	37
2)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정책	40
3) 일본의 대인관계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	42
4) 맺음말	44
III.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징	49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49
2) 국가별 조사대상자의 특징 비교	50
2. 한국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51
1) 역사에 대한 관심도	51

2) 역사교육의 목적 및 교육 방법	54
3) 역사의식의 함양 요인 및 발전의식	57
4) 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시각	59
5)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시각	61
6) 국민의식	64
7) 국가의식	66
8)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72
9) 정부에 대한 신뢰	74
3. 중국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76
1) 역사에 대한 관심도	76
2) 역사교육의 목적 및 교육방법	80
3) 역사의식의 함양 요인 및 발전의식	83
4) 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시각	86
5)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시각	88
6) 국민의식	91
7) 국가의식	94
8)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100
9) 정부에 대한 신뢰	102
4. 일본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104
1) 역사에 대한 관심도	104
2) 역사교육의 목적 및 교육방법	108
3) 역사의식의 함양 요인 및 발전의식	111
4) 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시각	114
5)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시각	115
6) 국민의식	118
7) 국가의식	120
8)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125
9) 정부에 대한 신뢰	126
10) 요약 및 제언	127
5.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비교	133
1) 역사에 대한 관심도	133
2) 역사교육의 목적 및 교육방법	136

3) 역사의식의 함양 요인 및 발전의식	139
4) 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시각	141
5)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시각	142
6) 국민의식	144
7) 국가의식	146
8)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151
9) 정부에 대한 신뢰	153
 IV. 한국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의 특징	157
 V.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특징 분석	169
 VI. 요약 및 결론	187
 VII. 정책제언	193
 참고문헌	201
 부 록	
1. 설문조사지(한국)	207
2. 설문조사지(중국)	212
3. 설문조사지(일본)	219

표 목차

<표 I-1> 설문영역 및 문항구성	8
<표 I-2> 국가별 표집인원수	10
<표 II-1> 중·고등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그 특징	25
<표 II-2> 역사적 사건 쟁점별 한·일 입장 비교	33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49
<표 III-2> 국가별 조사대상자의 특징 비교	50
<표 III-3>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51
<표 III-4>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52
<표 III-5>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53
<표 III-6> 한국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54
<표 III-7>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 필요성	55
<표 III-8>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공부 목적	55
<표 III-9> 한국 청소년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56
<표 III-10> 한국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57
<표 III-11> 한국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58
<표 III-12>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58
<표 III-13>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59
<표 III-14> 한국 청소년의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60
<표 III-15>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61
<표 III-16> 한국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62

<표 III-17> 한국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62
<표 III-18> 한국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의견	63
<표 III-19> 한국 청소년의 자국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64
<표 III-20>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65
<표 III-21>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단점	66
<표 III-22>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 ..	67
<표 III-23> 한국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68
<표 III-24> 한국 청소년의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69
<표 III-25> 한국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	70
<표 III-26>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71
<표 III-27>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에서의 능력 발휘 가능성	71
<표 III-28> 한국 청소년의 전쟁 시 행동	73
<표 III-29> 한국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	74
<표 III-30> 한국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74
<표 III-31> 한국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75
<표 III-32> 중국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77
<표 III-33> 중국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78
<표 III-34> 중국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	79
<표 III-35> 중국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	80
<표 III-36>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 필요성	80
<표 III-37>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공부 목적	81
<표 III-38> 중국 청소년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82
<표 III-39> 중국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83
<표 III-40> 중국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84

<표 III-41>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85
<표 III-42>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86
<표 III-43> 중국 청소년의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87
<표 III-44>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88
<표 III-45> 중국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89
<표 III-46> 중국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90
<표 III-47> 중국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의견	91
<표 III-48> 중국 청소년의 자국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92
<표 III-49>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93
<표 III-50>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단점	94
<표 III-51>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 ..	95
<표 III-52> 중국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96
<표 III-53> 중국 청소년의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97
<표 III-54> 중국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	98
<표 III-55>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99
<표 III-56>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에서의 능력 발휘 가능성	100
<표 III-57> 중국 청소년의 전쟁 시 행동	101
<표 III-58> 중국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102
<표 III-59> 중국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103
<표 III-60> 중국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104
<표 III-61> 일본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105

<표 III-62> 일본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106
<표 III-63> 일본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107
<표 III-64> 일본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	107
<표 III-65>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 필요성	108
<표 III-66>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공부 목적	109
<표 III-67> 일본 청소년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	110
<표 III-68> 일본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111
<표 III-69> 일본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112
<표 III-70>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112
<표 III-71>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113
<표 III-72> 일본 청소년의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	114
<표 III-73>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115
<표 III-74> 일본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116
<표 III-75> 일본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117
<표 III-76> 일본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의견	117
<표 III-77> 일본 청소년이 자국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118
<표 III-78>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119
<표 III-79>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단점	120
<표 III-80>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 ·	121
<표 III-81> 일본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121
<표 III-82> 일본 청소년의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122

<표 III-83> 일본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	123
<표 III-84>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123
<표 III-85>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에서의 능력 발휘 가능성	124
<표 III-86> 일본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125
<표 III-87> 일본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126
<표 III-88> 일본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127
<표 III-89>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134
<표 III-90>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134
<표 III-91>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135
<표 III-92> 한중일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136
<표 III-93>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 필요성 ..	136
<표 III-94>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공부 목적	137
<표 III-95>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138
<표 III-96>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138
<표 III-97>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139
<표 III-98>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140
<표 III-99>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140
<표 III-100>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141

<표 III-101>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142
<표 III-102> 한중일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143
<표 III-103> 한중일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143
<표 III-104> 한중일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의견	144
<표 III-105> 한중일 청소년의 자국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145
<표 III-106>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145
<표 III-107>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단점	146
<표 III-108>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	147
<표 III-109> 한중일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148
<표 III-110> 한중일 청소년의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	148
<표 III-111> 한중일 청소년의 자국의 미래전망	149
<표 III-112>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150
<표 III-113>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에서의 능력 발휘 가능성	151
<표 III-114> 한중일 청소년의 전쟁 시 행동	152
<표 III-115> 한중일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153
<표 III-116> 한중일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153
<표 III-117> 한중일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	154

그림 목차

[그림 I-1] 동북아 3국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조사 질문지 개발 절차	7
[그림 IV-1]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157
[그림 IV-2]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	158
[그림 IV-3]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158
[그림 IV-4] 한국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159
[그림 IV-5]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의 필요성 ..	159
[그림 IV-6] 한국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160
[그림 IV-7] 한국 청소년의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	161
[그림 IV-8] 한국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161
[그림 IV-9] 한국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162
[그림 IV-10] 한국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163
[그림 IV-11]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 국가의 조건	163
[그림 IV-12] 한국 청소년의 전쟁 시 행동	164
[그림 IV-13] 한국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165
[그림 V-1]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169
[그림 V-2]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170
[그림 V-3]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공부 목적	171

[그림 V-4]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171
[그림 V-5]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172
[그림 V-6]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173
[그림 V-7]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174
[그림 V-8]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175
[그림 V-9] 한중일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176
[그림 V-10] 한중일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177
[그림 V-11] 한중일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의견	177
[그림 V-12] 한중일 청소년의 자국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178
[그림 V-13]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	179
[그림 V-14] 한중일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180
[그림 V-15] 한중일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	181
[그림 V-16] 한중일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182
[그림 V-17] 한중일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183
[그림 V-18] 한중일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	184
[그림 VII-1] 청소년 글로벌리더 육성의 지원체계	19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용어의 정의
4. 선행연구 고찰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상호교류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교류 확대는 독일의 통일과 함께 유럽공동체(EU)의 탄생, 북미연합(NAFTA), 아세안(ASEAN) 등과 같은 지역별 블록화 형성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국가간의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상호공존과 번영으로 이끄는 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의 이면에는 다른 시각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지면서 그 영향력이 노동시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전 세계 시민들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형태의 지구촌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공동체와 같은 초국가적 연합체도 기존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국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비 EU국가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Motyle(1992)은 “근대화가 여전히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면, 민족국가를 중시하는 경향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과 국제무역의 발달로 국가를 초월한 세계화된 시장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활동의 단위가 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정의와 분배의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안보요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근대적 민족국가의 형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정광훈(2005)은 결국 한 민족이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통해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

신감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만 무엇이 자신들의 문제인지를 또렷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전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동북아 지역은 최근 한반도의 남북관계의 진전, 중국의 성장,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국가간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차원의 공동체형성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매년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오랜 역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공동체 형성과정의 한계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근대 이후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서구 국가들과 동북아 지역 내의 국가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영향은 현재까지 여러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만길 외, 200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과거를 청산하고 철저히 반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독일은 이를 수용하여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독일과 폴란드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역사 인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역사와 지리 교과서의 내용을 함께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자민족 중심주의에 입각한 역사관을 지나치게 고수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나 자라나는 세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근대사를 단순히 각국의 특수성에 기초한 개별적 관점이 아니라 동북아 전반의 입장과 하나의 지역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현재 국가간 교류확대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들 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성된 공동체적 분위기 속에서 동북아 발전의 핵심세력인 청소년들 간의 교류

협력관계를 지원해야 한다.

오늘날 각국의 청소년들은 상대방의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교류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청소년들 간에 바람직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야말로 전쟁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형성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달하는 단초로 볼 수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한층 활발해진 다문화, 다민족 간 교류 경험의 오랜 동안 자민족중심의 공동체에 익숙해있던 동북아 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한·중·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역사의식 및 역사인식, 국가관을 비교·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사회의 중추세력인 청소년들이 열린 사고와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연구내용은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중·일 청소년들의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현재적인 관점에서 일생생활과 대중문화에 대한 가치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동북아시아 국가 청소년의 역사인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측면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역사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역사의식 함양요인 및 관심분야 등의 변인을 조사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이 지향하는 국가의 중요성 및 자긍심, 국가 위기 시 대처행동, 국가의 미래전망,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견해, 국가에 대한 헌신

의지,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및 그 이유, 각 국민의 장단점, 정부 정책 및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비교조사 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국가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능력발휘 기회 여부, 국제교류의 필요성, 국제평화에 대한 인식과 실현방안, 그리고 현재 사회구조에 대한 만족수준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 및 공동체 형성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 간의 교류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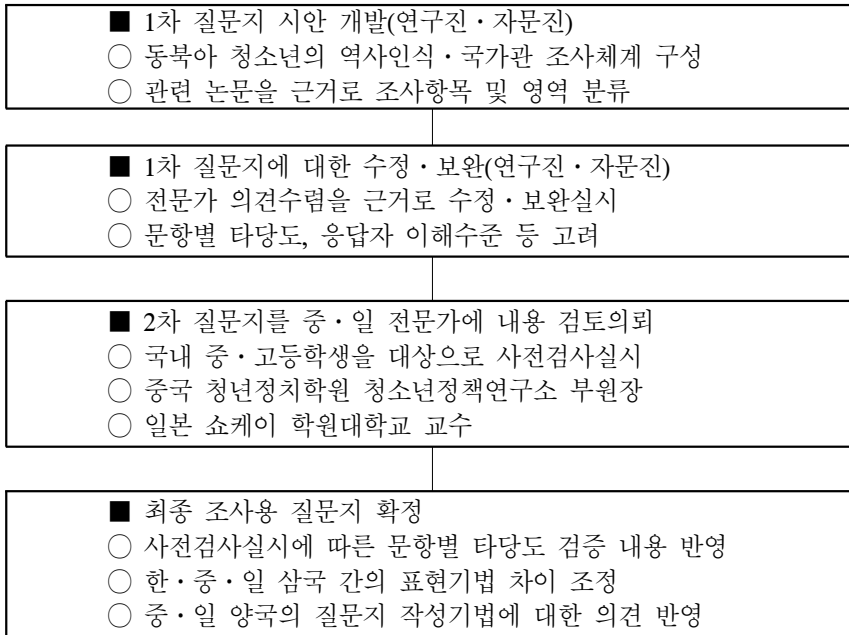
(1) 문헌연구

청소년 역사인식, 국가관, 문화인식 비교조사를 주제로 한 석·박사 학위논문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조사문항 작성을 위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서적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고찰하였다.

(2) 설문지 개발 및 조사방법

한·중·일 각 국의 중학교 2학년(남·여 각 150명씩), 고등학교 2학년(남·여 각 150명씩), 대학생(남·여 각 150명씩)을 대상으로, 한국(서울), 중국(북경), 일본(동경) 지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 집단을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데이터를 공유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1차 개발한 조사표에 기초하여 3국이 공동의 조사표를 확정된 후 각국의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2006년 3월초부터 5월말에 걸쳐 실시하였다.

① 질문지 개발



[그림 I -1] 동북아 3국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조사 질문지 개발 절차

② 조사문항 구성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기존의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연구’와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에 관련된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영역별 구성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역사인식과 국가관 비교조사에 초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오늘날 청소년들의 특성을 비교하려는 의도에서 생활문화와 가치관에 관련된 영역을 일부 추가하였다. 조사 항목은 최초 독립변인(4 문항), 종속변인(51 문항)을 합하여 55개로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3국 연구진 간의 협의과정과 자문진 회의를 거쳐 최종 45개 문항을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 -1> 설문영역 및 문항구성

영역	세부영역	문항내용	문항
사회·인구 학적 변인		성, 신분, 역사지식수준, 국제교류 경험	1-4
역사인식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역사에 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가장 관심 있는 분야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5 6 7 16
	역사 교육의 목적, 방식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역사 공부의 주된 목적 -역사 교육의 대한 만족도 -토론식 혹은 발표식 수업 정도	8 9 11 10
	역사의식 함양 요인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12
	발전의식	-자신의 행동과 역사발전의 관계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요원동력	13 14
	역사에 대한 시각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자기 민족문화의 독창성 존재	15 17
	한중일 3국의 역사에 대한 시각	-다른 나라 역사에 관한 논의 -한중일 3국의 역사문제 해결전망 -아시아 국가연합(AU)결성	18 19 28
국가관	국민의식	-한국(일본, 중국)인의 자부심 -각 국민의 장·단점	20 21-1 21-2
	국가의식	-각 국의 국제적 지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자국에 대한 미래 전망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자국에 대한 느낌	22 23 24 26 27 43
	국가에 헌신의지	-국가 위기 시 대처행동 -국가를 위한 헌신 자세	25 31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 -공직자 등에 대한 신뢰	29 30

첫째, 독립변인의 구성은 성, 신분, 역사에 대한 지식수준, 국제활동 경험 이 포함된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에 관한 영역은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봉대근, 2000)’와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에 관한 조사연구(김철은, 1998)’등에서 사용된 조사문항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역사교육의 목적 등을 포함한 20개의 항목이 1차 시안에서 선정되었으나, 내용타당도와 3국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문항이 확정되었다.

셋째, 국가관 조사 영역은 ‘국민의식에 관한 연구문헌 조사분석(고영복 외, 1983)’과 ‘청소년 의식구조 형성배경(이재창 외, 1983)’에서 사용된 내용 중 국가적 자긍심, 국가위기 시 행동,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등을 포함한 11개 문항을 발췌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및 국가의식에 대한 조사문항은 ‘한·중·일 청소년의식 비교 연구(정희옥 외, 1997)’와 ‘한·중·일·미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 조사(이종원, 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 중 20개 문항이 1차 선정되었으나, 연구자문 과정을 거쳐 최종 14개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③ 표집 및 조사 방식

한·중·일 각 국의 중학교 2학년(남·여 각 150명씩), 고등학교 2학년(남·여 각 150명씩), 대학생(남·여 각 150명씩) 총 2,900명을 조사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몇몇 사례의 가감으로 최종 2,937명이 분석되었다. 한국(서울), 중국(북경), 일본(동경) 지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 집단을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데이터를 공유하였다. 조사협력기관은 한국(한국청소년개발원), 중국(청년정치학원 청소년정책연구소), 일본(쇼케이학원대학)이 선정되었다. 실제 조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1차 개발한 조사표에 기초하여 3국이 공동의 조사표를 확정된 후 각국의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2006년 3월초부터 5월말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한중일 각 국가의 주요배경변인(독립변인)별 응답

결과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표에서 유의도 수준은 $P<0.05=*$, $P,0.01=**$, $P<0.001=***$ 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표 I -2> 국가별 표집인원수

국가 발달단계	한국		중국		일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중학생	147	153	175	176	169	162	1,009
고등학생	152	149	154	159	140	143	947
대학생	150	151	157	160	146	217	981
계	449	453	486	495	482	572	2,937

(3) 전문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각 국가별로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청소년 역사인식·국가관·문화인식 비교조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3국 청소년들 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적 지원방안, 그리고 청소년문화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역사인식

역사인식이란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시간의식, 변천의식, 인과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등의 심리적 측면의 역사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역사적 행위와 연관된 실천적 측면인 역사적 사고력, 역사적 문제의식 등이 통합되어진 개념이다.

(2) 국가관

국가관이란 애국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찾는 일체감의 정도 그리고 국가를 통해 자아실현과 복리추구가 가능하다고 믿는 정도를 가정하여, 국민 전체가 한 국가 단위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존적 혹은 공격적으로 반응하려는 국민의식의 구조양태로 본다.

4. 선행연구 고찰

1) 한·중·일 청소년의 가치의식 및 국가관 비교

1999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한겨레신문이 한국·중국·일본 대학생 등 18~25세 젊은이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에서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나라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남성 권위적 가정보다 평등한 가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은 ‘화목한 가정’을 가장 원하는 반면, 일본은 한국·중국보다 ‘부부 자립’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부부의 자립 정도가 한국·중국보다 낮은 등 부부 자립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사회현실 탓’이라고 분석했다.

유교문화의 영향은 세 나라에 모두 강했으나, 중국은 1% 이하만이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밝혀 ‘효심’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혈연관계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은 모두 80% 이상이 ‘형제자매를 돕겠다’고 밝힌 데 반해 일본은 40%에 그쳤다.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의식 중시’에 가치를 두는 데는 한국 젊은이들이 92~98%의 비율로 단연 최고를 기록했다. ‘서구문화 수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한국 79%, 일본 64%, 중국 54~79%로 집계됐다(2000. 6. 12. ; 한겨레신문).

문부과학성 산하인 일본 청소년연구소는 2005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한·미·일·중 4개국 고교생 7천3백 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의 고등학생이 한·미·일·중 4개국 학생 가운데 가장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는 설문에 대해 ‘성적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중국 75.8%, 미국 74.3%, 한국 73.8%인데 대해 일본 고교생은 33.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과 중국 고교생의 40% 이상이 일본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을 여행한 경험이 없는 한중 고교생의 20% 정도만이 '일본을 좋아한다'고 답한 데 비해 두 배가 넘는 비율이다.

일본 내각부는 2004년 한미일과 독일, 스웨덴 등 5개국 청년을 상대로 실시한 '세계 청년 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03년 2~6월 각국별로 18~24세 남녀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자국의 문제점으로 한국 청년은 '학력 차이에 따른 수입과 일에 격차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반면 미국은 '인종에 따른 차별', 일본은 '취직하기 힘들고 실업도 많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학력만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병폐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취업난을 자국 최대 과제로 든 비율은 독일(71%)이 일본(65%)보다 높아 5개국 중 최고였다. 한국의 경우 55%였으며 미국과 스웨덴은 30%대였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기 전인 93년 조사 때 취업난을 최대과제로 꼽은 일본 청년은 12%로 5개국 중 최저였다. 그러나 98년 40%, 이번에는 65%로 늘어나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 탓인지 '일본 이미지'를 꼽게 했을 때 일본 청년들이 '경제대국'을 든 비율은 지난 조사에서는 1위였으나 이번 조사에는 27.4%로 '뛰어난 문화 예술'(41.5%)에 이어 2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 번 87.6%에서 55.1%로, 미국도 62.3%에서 36.5%로 각각 크게 떨어졌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답한 비율은 미국(69.2%)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이 53.3%로 2위, 일본은 46.7%로 3위를 차지했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는 비율은 한국과 일본이 3% 수준으로 가장 낮았고 미국의 28%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일본 청년들은 휴대전화로 메일을 사용하는 비율이 58%로 5개국 중 가장 높아 일본의 전자메일 기본수단이 인터넷이 아닌 휴대전화임을 입증해주었다.

한편 '일본이 발전도상국 원조에 적극적'이라고 답한 일본 청년은 23.8%

였지만 다른 4개국에서는 모두 한자리 수에 머물러 내외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2002년도 일본은 미국(129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92억 달러)의 정부개발원조(ODA) 대국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등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대외적으로 ‘주고도 생색 내지 못하는’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04. 1. 12. ; 동아일보).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청소년연구소와 히도쓰바시 문예교육진흥회가 네 나라 고교생 1천 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가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자가 여자다워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일본 고교생의 28%만이 공감했다. 같은 물음에 한국 고교생은 47%, 미국 58%, 중국 71.6%가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본 청소년들의 공감은 43.1%로 가장 낮았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느냐는 물음에, 일본에선 그렇다는 대답이 33.3%로 미국(52%)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은 73.8%가 그렇다고 대답해 가장 높았다.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 대해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85~90%가 나쁘다고 대답했지만, 일본 청소년은 27.4%만이 같은 대답을 했다. 부모와 교사에게 반항하는 게 나쁘다는 대답도 20%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전철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나쁘다는 대답은 50%를 넘어, 30%에 이하인 다른 세 나라 청소년들과 대조를 보였다.

한·미·일·중 네 나라 청소년 가운데 일본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남녀상이나 부모·학교의 권위에 대한 관념이 가장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혼전 순결 의식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04. 2. 17.; 한겨레신문).

반부패국민연대가 2001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내 10개 중·고등학교 학생 1천5명(남학생 626명, 여학생 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부패, 반부패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1.3%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고교생들의 90% 이상이 한국사회는 부패사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청소년들의 ‘부패’에 대한 윤리의식도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쓸 것(28.4%)’, ‘부정

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른척할 것(33%)’, ‘친인척 부패에 묵인할 것(22.7%)’,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16%)’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64%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밖에 안받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9.9%가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자신만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의 33%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을 꼽았으며, 기업(12%), 공무원(11%), 법조계(9%), 언론계(9%), 교육계(8%), 경찰(7%), 금융계(6%), 종교계(2%), 일반인(1%), 시민단체(1%), 군대(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91%의 중·고교생이 한국사회가 부패해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세계 100개 국가 중 부패순위에서 72.5%의 학생이 한국을 부패순위 1~20위 군에 속하는 ‘부패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2. 1. 2. ; 연합뉴스).

이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윤리의식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반부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실시한 ‘한·미·일·프랑스 4개국 청소년 의식의 국제비교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인간보다는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공동체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생의 목표에서도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인생을 즐겁게 산다’ 혹은 ‘공부하여 이름을 날린다’는 식으로 조사되었다(윤철경 외, 2000).

또한 일본 청소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국가를 위해 자기희생을 원치 않고 직장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업을 구하려는 욕구가 낮은 반면, 서로를 차별화 시키는 욕구와 현실의 만족 혹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 양국 모두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우선주의와 상업적 영리주의, 부모들의 과잉보호, 과열된 입시 등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치 않다. 하지만 이들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현실 만족주의가 심화될 경우, 대내적으로 사회적 균형감 상실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 역사인식 관련변인 및 연구결과 요약

연구자	관련변인	연구결과 요약
김유혜(1977)	관심시기, 흥미영역, 역사의 목적, 자료인사, 자료, 역사의식의 단계적 구조, 역사주체관, 문화의 독창성과 자율성, 발전사관, 명분과 실리, 민족적 긍지	① 50%정도의 학생들이 중학교 2, 3학년 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흥미영역은 고학년일수록 정치문제에서 사상문제로 집중. ② 역사 지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제1요인이 교사와 교과서였고, 제2요인이 역사소설 또는 TV로 나타나 교사의 전문성, 교과서의 충실한 편찬, Mass-Communication의 시대고증 요망. ③ 역사의식 발달에서 고학년일수록 주체의식이 낮고, 시대구조의식은 높음. ④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분석연구를 위해 학생들의 역사의식 구조의 과학적인 척도개발이 요구됨.
김정희(1990)	역사지식, 향토사지식, 수업형태, 수업자료, 역사교육 장애요인, 교사의 자질(전문성)에 대한 해결방안, 역사교과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소재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그리고 경력별 역사교육 현황을 파악한 결과, 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역사지식이 부족하다고 전공 교사들은 71%가, 비전공 교사들은 80%이상이 인지. 교사 교육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청. ② 교사의 수업내용과다와 교사업무과다의 이유로 88%의 교사가 탐구수업 대신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을 진행. ③ 교사의 자질(전문성)은 33%의 응답자가 '교사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달렸다고 지적하여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

연구자	관련변인	연구결과 요약
김호년(1992)	역사의식(관심도, 관심분야, 관심시기 등)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 발달에 관한 조사연구를 살펴보면, ① 80년대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지적, ② 역사의 관심분야는 문화사나 사회사 등으로 바뀌었음을 주목.
정희욱외(1997)	의식과 생활에 관한 9개 영역(가정관, 학교관, 사회관, 청소년 비행경험, 청소년폭력 경험, 친구관계, 자아관, 직업관, 가치관)	한중일 3개국 청소년들의 인식, 가치, 행동의 반응을 통해 상이한 사회구조 및 문화적 배경과 청소년의 가치의식 관계를 살펴, 각국 청소년들 의식구조 유형을 규명. ① 가정관: 가정생활에 한국은 77.7%, 중국은 91.5%, 일본은 8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음. ② 학교관: 학교생활에 한국은 64.7%, 중국은 77.1%, 일본은 78.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한국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음. ③ 사회관: 각국의 사회전반 상황에 한국은 90.1%, 중국은 56.8%, 일본은 74.1%가 불만족. 역시 한국 51.5%의 청소년이(중국 39.7%, 일본 33.7%) 한국사회는 권력이나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입장을 취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 인식정도가 가장 높음. ④ 가치관: 중국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삼국 중 장래에 대한 준비를 가장 확고히 하는 미래지향적인 성향. 일본청소년은 가장 현재 지향적이고,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 낙천적 성향이 강함. 한국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66.7%가 공부, 성적 및 진학을 꼽아 공부와 입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장 높음.

연구자	관련변인	연구결과 요약
김철은(1998); 조경자(2000); 봉대근(2000); 강덕희(2003)	역사에 대한 관심도, 관심시기, 관심계기,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교육과 실생활과의 관계, 역사의식 함양의 인적, 물적 요인, 문화유적지 견학빈도, 역사의식발달(시간의식, 변천의식, 인과의식, 시대의식, 발전의식), 역사수업에 대한 만족도, 향토사에 관한 관심도	고등학생의 평균적인 역사의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인 지식주입위주 수업방식으로 인해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낮고, 역사교과서 내용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고등학생의 효율적인 역사교육방안을 위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것을 제안. ① 학생들은 역사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기는 학교수업, TV 시청 순. 역사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역사드라마나 역사다큐멘터리. 역사에 관심 없는 학생들은 지식위주의 교과서가 어렵고 분량도 많아 흥미를 잃음. ②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역사교육이 실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문화유적지 견학은 년 10회 이하로 빈도가 낮음. 또한 향토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학생들은 교사 역시 향토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응답. ③ 역사수업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시청각수업·토론·주제발표식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함. ④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의식을 소유하고 지적성숙 발달과 관련.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천의식이 높아지며 인지적 발달과 관련. ⑤ 역사의 발전을 시대별로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시대의식은 다른 역사의식보다 떨어짐. 발전의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발달.

연구자	관련변인	연구결과 요약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2004)	한중일역사인식과일본교과서(일본역사왜곡에 관한 사관문제, 한국정부대응, 동아시아 상황, 교과서운동 등)	일본이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국기 국가제정, 유사법제 3법안(무력공격사태법안, 안전보장회의설치법, 자위대법개정)을 제정. 중학교 역사교과서‘새로운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최신일본사’모두 일제의 식민 전쟁을 미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는 역사왜곡에 관련한‘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난징대회에서 발표된 한국, 중국, 일본의 발표문. ①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의 역사 ② 일본 우익교과서 역사왜곡의 실태 ③ 일본 우익교과서 사관 ④ 일본사회의 정치흐름과 동아시아 평화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2002)	각국 역사교과서(현대사 서술, 동아시아 근현대사, 역사교육, 역사왜곡 등)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국가, 민족 간에 상호이해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교과서들을 분석·비교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탐색. ① 냉전체제 인식과 내셔널리즘을 중심으로 한 한·일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비교 ② 동아시아 5개국의 중고교용 자국사 및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억의 차이, 그리고 역사교육 ③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교육 ④ 교과서문제와 천황·천황제 ⑤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21세기 아시아 평화 ⑥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연구자	관련변인	연구결과 요약
박윤숙(2003); 곽향련(2003); 윤재선(2004)	역사의식(관심, 흥미, 서적 다독 여부, 필요성 등), 역사신문제작학습 흥미도, 효과(역사이해, 사고력향상), 호응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신문 제작학습을 통한 효과성 검증 결과, ① 기사 작성을 위해 자료를 준비, 비판, 분석, 해석 및 종합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을 추체험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포함한 정보처리기능과 창의성,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 배양이 가능. ② 사설, 인터뷰, 만평 등의 기사 작성을 통한 역사를 보는 안목이 신장.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사 작성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 엿보임. ③ 역사신문 기사를 편집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시민의식의 함양과 협동심을 높일 수 있음. ④ 역사신문 제작학습은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참여가 가능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임. ⑤ 역사의식의 함양과 역사적 사고력 향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청됨.
강만길(2004)	문화개방, 청일전쟁, 러일전쟁 및 한일병합에 대한 역사인식	다음의 역사인식 점검을 통해 이 시대적 과제인 '동아시아에서 지역공동체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① 19세기 후반기의 문화개방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점검. ② 또한 한반도의 남북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어떤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점검. ③ 나아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동아시아사가 어떻게 가르쳐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

II. 이론적 배경

1. 동북아 3국의 역사인식에 관한 논의
2. 국가의식 개념 및 형성배경
3. 동북아 3국 청소년의 국가의식 강화정책

II. 이론적 배경

1. 동북아 3국의 역사인식에 관한 논의

1) 역사인식의 개념 및 발달단계

역사인식(歷史認識)이라는 용어는 ‘역사’라고 하는 내용적 측면과 ‘인식’이라고 하는 심리적 측면이 결부되어 형성된 개념이다. 그리고 역사인식 혹은 역사의식은 좁게는 역사적 감각(Historical sense)의 의미로, 넓게는 시대의식, 연대의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김철은, 1998).

역사인식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철학적 차원에서의 역사인식은 실존적인 ‘나’로 하여금 자기의 역사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의식적 노력이며, 인간 본연의 존재 근거에 도달하는 존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최재희, 1971).

실천적 의미로서의 역사인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이며, 국가나 개인의 역사적 위치와 방향성을 고려하는 의미이다.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자각적 사회의식이므로 이 의식은 가변적이고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김성식, 1981).

인지적 측면에서의 역사인식은 그 바탕에 과거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식으로 지적 혹은 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라 점차 내면화되어가며 역사교육을 통하여 점차 고도의 의식으로 성장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식의 역사교육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의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과정을 반복하면서 역사적 안목과 역사적 판단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를 현실에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의 발전을 추구하는 발판으로 이용하게 된다(김정, 1977).

결론적으로 역사인식은 개인의 발달단계와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형성되

어가는 것으로 역사의식의 심리적 측면에는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시간·거리감을 주된 요소로 하는 시간의식, 변천의식,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등과 실천적 측면에 속하는 역사적 사고력, 역사적 문제의식 등의 요소를 가진다(이찬희, 1989).

다른 한편으로, 역사인식의 발달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점차 성숙되어 간다. 초등학교 시기의 역사인식은 하위의식(감고의식, 고금의식, 변천의식)과 상위의식인 시대의식까지 전반적으로 발달하지만 높은 차원의 시대구조의식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중학교 후반기부터는 시대구조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편년체의 통사중심 역사교육이 가능하고, 학문적인 방법론을 도입해가면서 학습활동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인과의식과 시대의식이 더욱 심화되고 역사를 발전적으로 고찰하고 비판하는 안목까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탁창식, 1990).

중·고등학생들의 지적 발달 단계와 역사의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이 시기 역사의식 발달 정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의식이 심화된다 : 역사사상들이 서로 관련하여 인과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져서 역사가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시대구조의 추상화가 가능하다 : 많은 역사사상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대의 흐름을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시대개념을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시기이다.

셋째, 역사발전의식이 형성된다 : 시대의 특징을 발전사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근본적인 시대 해석을 둘러싸고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시기이다.

넷째, 주체의식이 형성된다 : 고등학생은 심리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도덕규칙에 비판적인 경향이 있으며 외부세계에 대하여 뚜렷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가치관 사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역사인식 수준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송춘영, 1977).

<표 II-1> 중·고등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그 특징

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역사 의식 단계	이야기 인물사 영웅전 도덕적 개인	사회인식 도덕론 인정론 도덕적 사회	인간성 고찰 사회의식 확대 세계의식 증대 인간성찰적 사회	인간이해 심화 사회의식 심화 근대적 관심 사회비판적 사회
특징	역사적 지식욕	인간관계추구 사회기반관련	발전적 고찰 역사적 비판력 역사적 사고력	역사적 통찰력 역사발전 파악

청소년의 역사인식을 강화시키는 역사적 사고력이란 역사적 감각을 가지고 사건의 형상을 떠올려 역사적 이해에 도달하는 정신과정을 말한다. 이는 생활현장에서 직면하는 제 문제들을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추론하고 비판, 종합, 판단하여 개념화하고 가치화하는 일련의 탐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역사적 사고력이란 앞서 제시한 고급상위-변천발달-인과관계-시대구조 및 시대관련의 단계를 의식하는 모든 능력과 역사를 발전적으로 파악하려는 능력이다. 특히 비교 분석력과 인과관계 추론 능력을 비롯하여 실증적·비판적·종합적·해석적 사고력은 역사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길러져야 할 요소들이다.

결국 역사 교육의 출발점이자 도달 목표와 상관성을 가진 역사 인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점진적으로 함양되어야 한다. 특히 중학교 2~3학년 단계에서는 역사 그 자체를 의식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때이므로 역사적 사실의 탐구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역사인식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역사를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역사성, 민족과 국가의 역사적 역할, 그리고 역사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향성과 같은 역사 발전 의식을 내면화시켜야 한다.

한편, 역사적 사실 각각에 대한 특성 파악과 역사적 의미의 통찰력, 그리고 현대적 사상에 대한 관심 증대는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대학교육을 거치면서 그 이해가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송춘영, 1999).

2) 동북아 3국의 전통적 역사관 비교

중국은 이민족에 의한 정복왕조의 역사도 대부분 정사(正史)로 기록한다. 이는 있었던 사건 그대로를 정당하게 비판하고 역사에 남긴다는 역사관에 의한 것으로 사실을 감추거나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인의 역사관 혹은 역사의식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정통성에 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인은 주어진 상황 혹은 행동에 앞서 그에 합당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중시하며, 어느 정도의 명분만 있다면 불합리한 처사도 있는 그대로 밀고 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주어진 형편에 따라 수습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 속담 중에 ‘구린 것은 덮어 둔다’라는 정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쇼토쿠 태자가 반포한 일본의 가장 오래된 헌법인 십칠조 헌법의 첫머리에는 ‘화(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라고 적혀있다. 이 내용은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기 보다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썽이 나는 말은 하지 말자는 의미이다. 즉 굳이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말자는 뜻이다. 이 정신은 고대 이후 일본 역사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점차 잊혀져가는 과거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용운·진순신, 2000).

또한 일본인은 사소한 일까지도 자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지만 반드시 정사(正史)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역사에 나타난 선과 악의 기준은 그 당시의 힘이나 대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3) 2차 대전 이후 동북아 각국의 역사인식

서구세력이 동북아시아에 밀려오기 이전까지는 한·중·일 삼국의 문화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의 경우 14세기까지는 불교문화가 지배적이었으나, 15세기부터 성리학 중심의 유교체제로 개편되었다. 중국은 대체로

유교와 불교가 공존한 문화체제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은 불교 중심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밀려오면서부터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에서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일본은 군국주의 지배아래서 제국주의 침략이 후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반도는 완전한 식민지 상태에서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로 양분되는 등 각기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이제 고난의 20세기를 넘어 세계가 지역협력주의를 표방하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호공존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일수 밖에 없다. 이러한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 동아시아 역사인식 비교(강만길 외, 2004)”의 내용에 기초하여 ‘2차 대전 이후 동북아 각 국의 역사인식’을 요약 정리하였다.

(1) 한국

한반도 지역은 조선 말기 새로운 국내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 계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의 동력이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일본에 의한 강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1945년 해방 후에는 세계적인 냉전질서 속에서 민족분단을 강요당하였으며, 결국 6.25 전쟁을 계기로 남북의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었다.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은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체제유지를 위하여 첨예한 이념논쟁과 무력충돌을 계속하였다. 한국의 사회발전 양상은 심각한 계층적 혹은 정치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근현대사의 인식은 이러한 민족사적 조건에 제약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갔다.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4·19혁명’이후 본격화되어 1960~70년대 민족·민주운동계열의 역사인식으로 발전되었다. 이 시기는 주로 민족주의적 관점 하에 자주적 근대 이행을 추구하는 ‘내재적 발전론’과 일찍이 일제의 침략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규명, 그리고 독립운동의 실상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시기 군사정권은 냉전질서에 편승하여 반공과 경제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국가지배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

1960~70년대 개항기에 대한 연구는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서 주로 개항의 주도세력으로서 개화파의 형성배경과 역사적 성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개항이후 일제의 침탈로 인해 붕괴·왜곡되는 모습을 주로 부각시켰다.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에 대한 연구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일제침략의 수탈적·억압적 측면을 부가시키고 민족운동의 정당성 및 체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에는 주로 원론적 입장에서 항일운동을 강조하는 연구와 함께 6.25전쟁과 관련하여 북한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침략성을 강조하는 반면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측면에서 남한의 정통성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일제세력과 타협·비타협적인 시각에서 민족운동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남한의 근대주의는 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제3세계의 종속이론 등의 영향을 받아 민중적 역사인식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적 역사인식의 영향으로 민중적·계급적 시각에 기초한 역사인식도 등장하였다. 또한 이 시기 개항기에 대한 연구는 민중적 시각의 도입과 함께 근대 이행의 성격을 지주와 자본가 중심세력과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로 구분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동학농민전쟁의 계급적·민중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된 이래 20세기 동아시아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전후 냉전질서로 인한 분단,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전쟁, 중국·북한·소련 등의 사회주의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질서는 분단체제의 존속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 및 남북한의 사회적 발전을 위한 전제로서 동아시아 지역평화의 정착은 해결되어야 할 시대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었던 근현대사를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만이 아

나라 동아시아 각국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인식으로 재창출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의 역사인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탄생부터 1965년 문화대혁명 발생 이전까지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건국기(1949~1953)와 사회주의 과도기 총노선(1953~1956)을 거치면서 초보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건립하게 되었다. 공업은 과거 소련의 경험을 모델로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자본은 농업부문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농업을 관리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대부분 중국 농민들은 1956년까지 합작사에 등록되었다.

1956년을 전후하여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진기, 곧 대약진 시기에 돌입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기본 노선이 채택되어, 농촌에서 새로운 합작사는 거대한 인민공사로 통합되고, 공업에서는 중앙의 공업과 지방의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방향에서 철강생산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면서 야심찬 대약진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1960년대 전반기에 조정기를 거치게 된다. 이 시기에 중국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거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중국 근현대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은 마르크스주의 사관과 모택동주의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요한 과제는 중국사 전개의 필연적 결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탄생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 침략사와 인민해방투쟁사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계급투쟁론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이론화되면서 교조주의와 단순화의 경향이 발생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 기간이다. 문화대혁명(1966~1976)의 전조는 이미 1957년 이후 주로 지식인들을 겨냥한 반우파 투쟁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혁명을 위한 역사 연구가 제창되고,

역사학이 정치적 수요에 따라 봉사해야함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 진정한 의미의 역사연구는 중단되었고, 역사 인물 평가를 통해 현실정치의 실제 인물에 대한 평가를 교묘히 투영시키는 영사사학(影射史學)만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성행하였다. 즉 교조주의와 단순화의 경향이 극단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문화대혁명 종결 이후 개혁 개발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다. 10년의 문화대혁명 기간을 거쳐 극좌의 정치 족쇄와 마르크스주의 해석 중심의 교조주의를 포기하고, 역사연구에서 보여준 단순화·단편화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는 반성론이 제기되었다.

개혁 개방 시기 ‘역사학의 위기’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제기된 위기 인식은 전통적인 사학의 방법과 수단이 현재의 연구 수요에 부적합하고, 전통사학의 연구과제가 현실과 유리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역사학계는 마르크스주의 해석이 더 이상 역사인식의 교본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되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두 번째 위기는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 상품경제에 대한 적응을 둘러싼 경제적 원인에 의한 위기이다. 이는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문화계의 자유화 역기가 식어지면서 1992년 제14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역사적 조건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로써 사회 각 부문에서 ‘효능’이 강조되었는데, 역사학 역시 시장경제를 위해 기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중국당국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사회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하고, 현 사회의 주요모순을 날로 증가하는 물질문명과 낙후한 사회생산 구조사이의 격차라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좌표로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가 당면과제가 되었고,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 세부적인 실천과제가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역사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최근 중국의 애국주의는 바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 중요한 사상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중국 인민들 사이에 애국 열기를 불러 일으켜 개혁 개발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과업을 추진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단순한 민족적 정서를 뛰어넘어 전통적 중화사상에서 비롯된 ‘신중화주의’적 색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역사인식은 안보투쟁의 1960년을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하여 고도의 경제성장과 연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아메리카니즘과 더불어 근대화론이 등장하고 그와 연동하는 현대의 황국사관과 대동아전쟁 긍정론이 재등장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근대화론이란 동양적 전제국가로서 일본이 아시아 인접 여러 나라를 제국주의적으로 침략하고, 일본 국내민중을 억압한 측면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론과 인민투쟁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인식을 형성하려 하였다.

1980년대 들어 일본사회는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 기치 하에 보수화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는 일본의 경제대국화에 따라 국내적으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하고 대외적으로 정치군사적 대국주의를 지향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혁과 과학을 표방하는 역사학은 점차 그 입지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표출되는 동시에 경제대국화와 군사대국화가 표면화되고, 한국과 대만 등의 신흥공업국의 등장, 그리고 냉전질서의 붕괴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인해 진보학계의 역사인식은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전제책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같은 보수진영은 역사란 민족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진보사관은 자학사관으로서 민족의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냉전체제의 붕

괴이후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일본의 대국주의화라는 명목적인 조건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 침략전쟁의 부정, 가해자 인식의 결여 등은 객관적인 역사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후일본의 진보적 역사상을 구축하려 했던 진보학계의 역사인식 또한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1960대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인식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범주에 기초하고 경제적 교역권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와 상호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동아시아가 서양으로부터의 충격과 대응, 동아시아 전통과의 단절과 서구 근대성의 추구라는 각도에서 역사를 연구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의 선택은 변혁보다는 지속, 단절보다는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전근대와 근대와의 관계를 파악하려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역사적 쟁점에 대한 논의들은 근본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자국의 유리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다음의 <표 II-2>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7개 영역의 사안들에 대하여 한국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2005년도 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한 내용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상호 합의를 도출하고 한·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5종의 일본 역사교과서는 민족주의 문제를 ‘내셔널리즘’ 대신 다른 보편적인 가치들을 부각시키거나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한 예로 교이쿠 출판의 경우에는 책의 말미에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수자의 권리와 문화를 보호하고 인권과 평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에 대해 우익세력들은 일본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극우내셔널리즘을 교과서에 반영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2> 역사적 사건 쟁점별 한·일 입장 비교

한 국	쟁 점	일 본
임나일본부설 성립불가	임나일본부설	왜군, 한반도 남부에서 군사 활동의 증거
선린우호적 성격과 문화교류의 상징성 강조	통신사	무로마치막부, 조선의 사절을 ‘가상의 조공사절’로 간주
전쟁미화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연구할 것	임진왜란	개전부터 3개월간 군량문제 등 전쟁수행문제의 실태를 해명하고 있음
을사, 병합조약 등 절차상 불법이므로 무효	한·일간의 재조약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유효, 열강들도 승인
유례없는 폭압정치로 조직적 저항의 어려움 역사·문화 말살정책	식민지배의 근대성 문제	한국인의 저항 미흡했음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
일본,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등 강제동원 제외, 여전히 보상·배상의무	한·일협정	협정으로 배상·보상의무 소멸
일본 우경화, 군대대국화, 과거사 반성 혹은 배상 없이 수교하려는 저의	해방 후 북·일관계	북한, 일본인 납치, 핵문제 등으로 북·일 수교 어려움

자료: 한국역사 공동연구위원회 보고서(2005)

일본의 교과서는 인권과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역사 서술에서 중요한 교육 대상으로 배열하고 있다. ‘평화’의 중요성은 종전 이전 일본의 대륙침략, 태평양전쟁, 패전과 원폭 등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원폭의 파괴성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은 오키나와 문제, 국내 소수미니족인 아이누족, 재일조선·한국인 문제와 부락해방운동 등에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2004).

2. 국가의식의 개념 및 형성배경

국가의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국가와 의식, 두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국가에 대한 학설은 플라톤(Platon), 칸트(Kant)를 거쳐 브래들리(F. H. Bradley)에 의해 대표되는 형이상학설(形而上學說)과 헤겔(Hegel), 피히테(Fichte)에 의해 대표되는 유기체설(有機體說), 알브레히트(G. Albrecht)에서 시작하여 엘리네크(Jellink)에 이르는 급진전을 본 법인설(法人說) 그리고 스피노자(Spinoza), 할러(Heller), 생시몬(C. H. Saint-Simon)에 의하여 대표되는 실력설(實力說) 등이 있다(Luwie, 1964).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국가의식은 현 우리나라의 정치의식이나 교육의식이 민족주의적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견해아래 위의 여러 가지 국가개념에 대한 학설 중 국가유기체에 그 개념을 포착하려고 한다.

국가유기체설은“국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각 기관 하나하나가 사람의 팔·다리 등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부분과 전체의 관계도 사람이나 국가가 비슷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국가는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나 국민을 초월하는 유기적 생명체이며 국민은 여기서 분리·독립하여 살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유기체 중의 각 부분은 전체의 생명을 유지하며, 전체의 생명이 유지될 때만 부분적 생명도 유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피히테의 말과“국민은 국가 유기체의 한 분자로서 존재할 때만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주장한 헤겔의 말은 국가유기체설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준다.

다음으로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의식의 개념규정을 살펴보면, 의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표상으로 관념형성의 기초가 되는 심리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식이란 국가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의식으로서 사회의식의 성격을 띤다. 여기서 사회의식이 사회집단의 존재와 같이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분자인 각 개인의 심의 중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 정리한바와 같이 국가유기체설의 입장과 개인의 사회의식적인 지향성의 통합개념으로 국가의식을 규정한 것은 그 밑바탕에 우리가 민족주

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로 국가의식이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성원의 애착과 국가의 흥망을 동일시하는 의식, 즉 나와 국가가 하나라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시란 정신분석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용어로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연결 짓고 정서적으로 결부시키는 작용을 말하며 그로 인하여 그 개인은 대상의 목적과 가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식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국가라는 집합체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는 심리적 역동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한 개인과 국가와의 동일체 의식작용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국가의 목적과 가치관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의식은 외부로부터 강요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체제상 이용되는 국가의식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의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의식은 자기라는 의식 밑에서 생명이 다하도록 자신을 직시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기에 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자기를 초월하고 우주와 합치된 진실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의식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차기태, 1981).

한나라의 국가의식 형성은 정치사회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화란 사회의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하여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개연성 있는 태도 성향과 행동 조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런 매개체 가운데는 가족, 또래집단, 학교, 성인매체, 통신매개체 등이 포함된다.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생활환경이 달라지고 전쟁이나 공황을 통해 공격을 받고 책이나 통신매개체를 통하여 자기와 다른 새로운 문화적 영향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어릴 때 배우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어릴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 한다고 보아야 한다.

프로이트(Freud) 학파의 심리분과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성욕은 주로 유아기에 결정되어 어릴 때 인간의 배우는 경험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화 분체라는 설명을 결론내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과 또래집단과 학교가 정치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꼽힌다. 한편 전자통신의 매체가 발달함으로써 요즘 어린이들 가운데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텔레비전과 함께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신매체의 역할은 중요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분위기 또한 국가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동북아 3국의 청소년 국가의식 강화정책

국가관 혹은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란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의 한 형태로서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느끼는 신념(beliefs)과 감정(feelings)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와 연관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national pride), 애착(attachment), 소속감과 충성심(loyalty), 그리고 우월감 정도라고 할 수 있다(정기선, 2005).

우리가 어떤 나라의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 혹은 기준으로써 특징적인 몇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간 편견과 갈등을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국가관(국가정체성) 연구의 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국가관의 감정차원 분석은 특정 국가(국민) 또는 자신이 속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선호도, 거리감, 자긍심, 애착, 우월감 또는 열등감, 국가정체성의 현저성, 포용성 혹은 배타성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아(Social Self)를 규정하는 여러 사회적 범주들 가운데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핵심개념으로 여타의 사회정체성들에 비해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한편, 정치사회학자들은 국가정체성 개념을 근대국민국가(nation-state), 민족주의(nationalism)와 같은 정치체계와 정치이념, 시민권(citizenship), 소수집단(minority groups)에 대한 정책, 이민관련 국가정책 및 외교정책 등과 관련지어 연구해왔다(Choe, 2003). 이 연구를 통하여 근대적 의미의 국가 개념이

생겨나기 전에 국가는 민족공동체(ethnic communities)와 동일시되었으나, 근대국가체제가 출현하면서 민족적 요인들(ethnic factors)뿐 아니라 시민적 요인들(civic factors)도 국가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점을 강조하였다. 이때 민족적 요인들로는 민족공동체 혹은 문화공동체에 기반이 되는 동일 조상의 후손, 전통과 문화적 유산의 공유, 공동의 정치운명에 대한 집단 기억 공유 등을 포함하는 반면, 시민적 요인들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 및 의무행사와 같은 정치적 의지와 자본주의적 이해를 포함한다. 즉 국가정체성의 민족적 요인은 민족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혈통과 같이 귀속적 속성이 강한데 비해, 시민적 요인은 서구적 국가모델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근대적 법-정치 공동체에서의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같이 자발적 속성이 강하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인의 국가관 혹은 국가정체성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민족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조현(2003)은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제, 일제식민통치시대, 냉전체제하의 분단국가와 같은 역사적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한국인은 민족적이며 배타적인 국가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일제하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이 단군의 자손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민족적 동질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분단체제하에 군사정권은 민족적 국가주의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 결과 한국적 국가정체성은 어느 정도 민족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교육

1999년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은 중국은 애국주의를 고양시키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였다. 이는 같은 해 6월부터 중국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프로젝트이다. 중국의 고위 간부는 이를 소개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선언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당이 이념보다 애국주의, 즉 민족주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언급하였다(이종환, 1999). 여기서 언급된 민족주

의의 의미는 특정 민족의 정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적인 의식을 지칭하기보다는 중화문명을 형성하고 공유해온 중화민족 전체(소수민족 포함)의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는 근대 이후 뿌리 깊은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이에 맞선 소수 민족의 지방 민족주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대두는 자칫 중국 내 각 민족 간의 분열을 야기할 여지가 높았다. 그 동안 민족주의를 『자산 계급 및 모든 착취 계급의 사상이 민족 관계에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중국공산당으로서도 당연히 민족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에서는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는 개개 민족의 민족주의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결집시키기 위한 중화민족 중심의 애국심을 함양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애국주의와 함께 최근 중국의 애국주의가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중국 자체 내의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애국주의는 중국 청소년의 민족의식이나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교과서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애국주의는 오늘날 정부의 당면 목표인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현대화’ 과업의 하나인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사상적 요소이기도 하다(윤휘탁, 2004).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 우경화의 산물인 교과서 왜곡 파동에 대해서는 중국과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그에 대한 부당성과 외교관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 못지않게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이 지닌 우려할 만한 요소에 관하여는 제대로 주목하고 있는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중국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시도된 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중화사상의 상당부분을 기저로 하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단순한 민족정서를 뛰어넘어 민족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신중화주의’의 색채마저 강하게 드리우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한 예로 고대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작업은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할 문제이다.

중국에서 애국주의 교육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는 1990년 5월 ‘首都青年紀念五四報告會’에서 장쩌민이 청년들에게 애국주의 전통의 계승과 발양을 호소하면서 부터이다. 그가 주장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국주의는 국가의 독립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 연계시켜야 한다. 둘째,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와 본질상 통일적이다. 셋째,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 전국의 인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역사를 학습하고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애국주의는 협소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중국의 실제에 입각하여 중화민족의 자력갱생을 증강시키고 세계 인민의 우수한 문명을 배우고 흡수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점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를 공포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사회 건설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에 관한 이론, 교재, 조직, 기지 선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단행하였다.

1996년 10월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공산당 결의문에서는 애국주의 혹은 애국심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과정에서 전인민이 습득해야 할 덕목인 사회주의 신념, 이상, 애국심, 도덕, 기율 및 현대 과학 문화 지식 중 하나임을 명시 했다. 또한 동 문건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심도 있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가 있어야 중국을 구할 수 있으며, 민족의 자존, 자신, 자강의 민족정신을 드높일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애국주의 교육이 사회주의 체제유지 및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임을 분명히 했다(윤휘탁, 2004).

한편 중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애국주의 교육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국주의 교육이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간부, 직공, 농민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중시하고 문명단위 및 문

명촌진(文明村鎮)의 건설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회지의 가도거민위원회(街道居民委員會), 농촌의 촌민위원회, 각급 공회(工會), 공청단(共靑團), 부녀연합회 등에서는 청소년 교육에서 차지하는 가정의 영향을 중시하여 애국을 좋은 가정과 문명적인 시민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도록 요구받고 있다.

애국주의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점은 교육의 중점이 대학교·중고등학교·소학교 및 공산주의청년단·소년대 등의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학교이다. 이것은 청소년이 장차 중국을 이끌어 나갈 핵심계층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각 종 강요(綱要)를 반포하여 모든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애국주의 교육의 분과 계획을 작성·분류하여, 이것을 수업과정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더 나아가 학교 교육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기반조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정신의 배양은 학교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윤휘탁, 2004).

2)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정책

민족주의는 한국의 발전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종사하는 직업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민족의 이익을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나라를 자신의 집처럼 여기는 전통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활발히 추진된 경제개발정책의 이면에도 부강한 국가와 민족을 만들기 위한 경제 애국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당시 최고 통치자는 “민족의 공동 운명에 대한 개인의 의식과 경제 애국주의는 정부의 경제발전 계획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민족의 공동체 운명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민족주의는 가장 강렬하면서 호소력 있는 의식형태로서 국민들의 자발적

인 표현을 통해 애국주의로 발현된다. 한국인의 민족주의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의 역사와 관련된 망언이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나친 행동에 매우 민감하고 강렬하게 대응한다.

한국의 민족주의의 발전 과정은 맹목에서 이성으로, 추상적 이론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독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서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독립 후 자유당 정권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 측면에서보다는 정권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 정서에 의존하려 했다. 이를 위해 과거 독립투사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인정되는 수준 이상의 높은 요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호감을 사려고 했다. 그러나 현실성이 결여된 민족주의는 오히려 195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대학생이나 언론계, 사회 대중들은 한국 경제의 낙후성을 일본의 식민통치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현행 체제의 병폐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1960년 초 군사정부는 오랜 봉건사회의 산물인 한국인의 결점을 오랜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하면서 새로운 한국인의 정신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한국인의 강렬한 민족주의 정서는 경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 건설에 매진하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한국은 청소년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은연중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폐에 인쇄된 민족대표, TV 드라마와 영화를 통한 민족영웅들의 업적소개 등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형 체육관, 국회, 박물관, 명승고적지 등은 청소년에게 기본적으로 무료 개방을 실시하여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 민족의 문화적 전통은 서로 다른 성원들 간의 공통된 문화 인식의 기초이자 그 민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한 집단적 문화 경험이다. 따라서 문화적 전통은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과 마찬가지로 한 민족의 응집력이나 공통된 인식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은 민족주의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문화적 전통을 충분히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스스로 단결심이 강한 민족임을 자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는 인류 역사에 흔치 않는 업적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민족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정광훈, 2005).

3) 일본의 대외관계 중심 민족주의 정책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미군정의 지배 하에서 전후개혁을 강요받았다. 미군정은 전전 일본의 천황제와 황국사관 및 군국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지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시도는 동서 냉전구도가 형성되면서 다소 시들해졌지만 전후 일본의 근대화와 민주주의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역사학계에서 이러한 전후의 흐름을 주도했던 세력이 극좌파 마르크스주의적 계열과 진보적 자유주의 계열이었다. 이들은 보편적 계몽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봉건적이고 전근대적 요소에 대한 비판과 근대사회의 수립 및 그와 관련한 역사의 발전법칙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보수주의 인사들은 여전히 민족문제를 전전과의 연속선상에서 논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사학이 황국사관의 핵심적 요소인 민족관념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상징천황제의 존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문부성은 역사교육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황국사관에 대한 전면적 개혁보다는 부분적인 개혁을 꾀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전후로 일본 사회는 오히려 보수적 흐름이 강화되었다. 일본정부는 「학습지도요령」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안정된 보수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징천황제를 국민통합의 정신적 지주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도 이전의 세계사의 흐름을 중시하면서 대미 독립

을 우선적 과제로 하는 민족문제에도 관심을 고조시켰다. 마르크스 진영은 민족해방과 민주혁명을 기치로 황국사관에 의거한 민족관념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결합한 국민적 역사학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미국의 신 지배층과의 결탁을 통한 자본주의적 부활을 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유진영의 전략기지로 전화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동아시아 지역의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2년 한국·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정부의 검토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변국의 비판에 대해 일본은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같은 해 8월 12일 일본 외상은 한국에 대해 한일공동성명에 제시되어 있듯이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신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1965년 한일조약 당시 한일공동성명에는 ‘유감’이나 ‘반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으며, 실상은 한일조약의 가조인 한일 외상의 공동성명에 언급된 내용에 불과하였다.

이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 측은 과거에 일본이 전쟁으로 인해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명시한 것과 매우 비교 되는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을 자유의사에 의한 평등한 입장에서 추진된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합방’은 양국의 합의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한국 식민지화에 관한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것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혹은 역사적 사건을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왜곡하는 방향으로 일관해 왔다.

1980년대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은 일본이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재일외국인의 지문날인을 의무화하는 조치이다. 이는 일본인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은 조치로써,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재일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배경이 무시된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일본의 배외주의적 의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새삼 확인되었다. 이 같은 민족차별적인 결정에 대해 재일외국인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전국적인 차별철폐 운동에 가세하였다. 재일한국인 차별철폐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에 공유되어 매우 한정적이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1990년대 정주 외국인의 지문날인 의무가 폐지되는 등의 일부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이 전쟁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인식이 교육현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일본인들에게 확산되는 계기도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공동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일본인들은 한국을 좀 더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대중문화와 한류 스타들로 인하여 일본 대중과 한국인들은 빈번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점차 이웃으로서 직접 느끼고 있다. 국가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어를 비롯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려는 일본인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4) 맺음말

한 민족이 발전하려면 긴 안목을 통해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발전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또렷하게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혼돈상태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압박을 받으면 품은 뜻도 초라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힘든 과정에 있는 민족은 스스로를 비하하기 쉽다. 일본에 패망한 후 민족의 낙후성을 절박하게 느낀 한국은 『민족개조론』이라는 책을 통해 국민성 개조의 당위성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스스로를 바꾸어 갈 수 있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희망이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1970년대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부터 한국인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자신들만의 특성을 발견하기 시작하여 결국 한국인의 국민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일본 역시 1950년대까지 자국의 문화에 대해 그다지 자부심을 갖지 못했다. 1960년대 말 일본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일부 일본 학자들이 민족문화를 치켜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일본이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유교문화가 중국의 유교문화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것을 민족성이라는 족쇄에 묶어두는 심리를 벗어나야만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판단하여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듯이 민족도 저마다의 독특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족성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봉건시대 한국 사람들은 보수적이며 완고한 성격으로 대표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식민통치시대의 독립운동과 지난 현대사에서 민주와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그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투쟁정신은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모습이다.

Ⅲ.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징
2. 한국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3. 중국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4. 일본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5.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Ⅲ.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징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를 위한 독립변인으로 국가, 성, 신분, 역사지식수준, 국제교류 경험 등이 설정되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인	응답범주	빈도(N)	단위 : %
			퍼센트(%)
국가 (N=2939)	한국	902	30.7
	중국	983	33.4
	일본	1,054	35.9
성 (N=2939)	남	1,419	48.2
	여	1,520	51.8
신분 (N=2939)	중학생	1,010	34.4
	고등학생	948	32.3
	대학생	981	33.4
역사지식수준 (N=2936)	상	346	11.8
	중	1,800	61.3
	하	790	26.9
국제교류 경험 (N=2934)	전혀 없음	1,748	59.6
	1번~2번	848	28.9
	3번 이상	338	11.5

응답자의 국가별 분포는 본래 900명씩 총 2,700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사례별 가감으로 인해 총 2,939부 중 변인별 결측치를 반영하

여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48.2%, 여자 51.8% 이며, 신분은 중·고·대학
생 모두가 30%대에서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역사지식수준은
상(11.8%), 중(61.3%), 하(26.9%)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경험은
전혀 없다(59.6%), 1~2번(28.9%), 그리고 3번 이상(11.5%)으로 응답하였다.

2) 국가별 조사대상자의 특징 비교

국가별 조사대상자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I-2>와 같
다. 한중일 응답자의 성과 신분의 분포는 3국이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
나, 역사지식수준과 국제교류경험 변인은 3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지식수준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상위그룹이 15%정도
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이상이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데 비해, 일본은 상위
6.2%, 하위 42.6%라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 참가경
험은 한국의 경우 3번 이상이 21.8%인 반면, 중국은 7.2%, 일본은 6.7%로 나
타났다.

<표 III-2> 국가별 조사대상자의 특징 비교

		단위 :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χ^2
성	남	49.8	49.5	45.7	4.178
	여	50.2	50.5	54.3	
신분	중학생	33.3	33.4	33.4	2.218
	고등학생	35.8	31.9	32.2	
	대학생	34.0	31.6	34.4	
역사지식수준	상	14.3	15.5	6.2	246.313***
	중	62.3	71.2	51.2	
	하	23.4	13.3	42.6	
국제교류 경험	전혀 없음	47.0	67.8	62.7	165.380***
	1번~2번	31.2	24.9	30.7	
	3번 이상	21.8	7.2	6.7	

* $p < 0.05$ ** $p < 0.01$ *** $p < 0.001$

2. 한국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1) 역사에 대한 관심도

(1)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3>과 같다.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흥미나 관심 정도는 ‘보통이다’(38.4%), ‘약간 많다’(26.3%), ‘별로 없다’(21.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역사에 흥미나 관심 정도가 ‘매우 많다’라고 응답한 남성(13.8%)이 여성(5.5%)보다 많았고, 역시 ‘약간 많다’라고 응답한 남성(27.2%)이 여성(25.4%)보다 많아 남성이 여성보다 역사에 흥미나 관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역사에 흥미나 관심 정도가 ‘매우 많다’고 응답한 고등학생(8.0%)이 중학생(10.7%)과 대학생(10.3%)보다 적었고, ‘약간 많다’라고 응답한 고등학생(23.6%) 역시 중학생(26.0%)과 대학생(29.2%)보다 적어 고등학생의 역사에 관한 흥미나 관심 정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많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13.8	27.2	37.0	17.1	4.9	*** 26.436
여	5.5	25.4	39.7	26.0	3.3	
중학생	10.7	26.0	34.3	24.3	4.7	** 22.099
고등학생	8.0	23.6	36.9	26.2	5.3	
대학생	10.3	29.2	43.9	14.3	2.3	
전체	9.6	26.3	38.4	21.6	4.1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전체적으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는 ‘TV 등 영상매체’(31.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학교수업’(28.9%),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사건’(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학교수업’이라고 응답한 여성(31.6%)이 남성(26.3%)보다 많았고, ‘TV 등 영상매체’라고 대답한 남성(31.2%)이 여성(30.9%)보다 많았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33.1%), 고등학생(32.1%), 대학생(27.9%) 모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TV 등 영상매체’에 의해서라고 답하였으며, ‘학교수업’을 통해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은 대학생(24.9%)에 비해 중학생(30.1%)과 고등학생(31.8%)이 높았다.

<표 III-4>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단위 : %

	학교수업	가족	TV 등 영상매체	관련서적	박물관 유적지견학	사회적 사건	기타	x ²
남	26.3	2.2	31.2	13.4	4.7	14.7	7.6	10.717
여	31.6	2.4	30.9	8.4	4.9	16.9	5.3	
중학생	30.1	3.7	33.1	12.7	4.3	10.4	5.7	** 27.006
고등학생	31.8	1.7	32.1	7.4	3.7	15.7	7.7	
대학생	24.9	1.7	27.9	12.0	6.3	21.3	6.0	
전체	28.9	2.3	31.0	10.7	4.8	15.8	6.5	

* p<0.05 ** p<0.01 *** p<0.001

(3)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5>와 같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43.1%) 분야가 ‘정치·사회’(21.7%), ‘경제’(11.3%), ‘외교’(11.2%) 분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51.9%)이 남성(34.3%)보다 ‘문화·예술’분야에 역사적 관심이 높게 나타났던 반면, ‘정치·사회’분야에서는 남성(26.9%)이 여성(16.6%)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도 남성(13.8%)이 여성(8.8%)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중학생(49.0%)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 고등학생(42.9%)이 대학생(37.5%)보다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사회’분야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중학생(각각 17.7%, 6.3%)보다 고등학생(각각 19.9%, 13.3%)이, 고등학생보다 대학생(각각 27.6%, 14.3%)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단위 : %
	정치사회	경제	문화예술	외교	사상	법제도	기타	χ^2
남	26.9	13.8	34.3	9.6	2.9	6.7	5.8	*** 43.497
여	16.6	8.8	51.9	12.8	2.4	5.5	2.0	
중학생	17.7	6.3	49.0	11.0	2.7	8.0	5.3	*** 42.279
고등학생	19.9	13.3	42.9	8.6	2.7	8.0	4.7	
대학생	27.6	14.3	37.5	14.0	2.7	2.3	1.7	
전체	21.7	11.3	43.1	11.2	2.7	6.1	3.9	

* $p < 0.05$ ** $p < 0.01$ *** $p < 0.001$

(4)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역사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지역 향토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생(20.3%)보다 중학생(21.4%)이 지역 향토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학생보다 대학생(31.9%)이 더 많은 관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학생(2.3%)과 중학생(9.0%)에 비해 다소 많은 고등학생(14.0%)이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6> 한국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많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3.6	20.3	33.4	34.1	8.7	26.436
여	4.0	21.2	28.5	38.2	8.2	
중학생	1.7	19.7	31.0	38.7	9.0	*** 42.497
고등학생	4.7	15.6	28.2	37.5	14.0	
대학생	5.0	26.9	33.6	32.2	2.3	
전체	3.8	20.7	30.9	36.1	8.4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교육의 목적 및 교육 방법

(1) 역사교육의 필요성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성별 간의 큰 분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청소년의 82.2%가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4.5%의 청소년이 역사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35.7%)보다 고등학생(38.9%)이, 고등학생보다 대학생(58.8%)이 더 역사교육의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 필요성

단위 : %

	매우필요	약간필요	보통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χ^2
남	44.3	39.2	13.1	2.4	0.9	1.862
여	44.6	36.2	14.8	3.5	0.9	
중학생	35.7	40.7	16.7	5.0	2.0	** 48.173
고등학생	38.9	42.5	15.6	2.3	0.7	
대학생	58.8	29.9	9.6	1.7	0.0	
전체	44.5	37.7	14.0	3.0	0.9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공부 목적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8>과 같다.

<표 III-8>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공부의 목적

단위 : %

	지식교양	전통문화 계승	과거통한 현재이해	역사의식 민족정신	국제관계 이해	기타	χ^2
남	14.0	19.6	34.7	20.7	8.9	2.0	9.656
여	16.1	13.9	37.7	20.5	11.0	0.7	
중학생	15.0	24.3	31.0	18.7	9.0	2.0	*** 39.500
고등학생	15.9	18.3	32.9	22.3	9.3	1.3	
대학생	14.3	7.6	44.9	20.9	11.6	0.7	
전체	15.1	16.7	36.3	20.6	10.0	2.0	

* $p < 0.05$ ** $p < 0.01$ *** $p < 0.001$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응답한 역사공부의 주된 목적은 ‘과거를 통해 현재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31.0%)보다 고등학생(32.9%)에게서, 고등학생보다 대학생(44.9%)에게서 역

사공부의 주된 목적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더 많이 조사되었다. 한편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가 주된 공부의 목적이라고 응답한 중학생(24.3%)에 비해 대학생(7.6%)의 응답은 현저한 분포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정도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9>와 같다. 역사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정도는 ‘보통이다’(45.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24.9%), ‘약간 만족한다’(19.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17.7%)보다 고등학생(25.9%)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27.0%)이 역사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한국 청소년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정도

단위 :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x ²
남	4.0	18.9	47.7	21.6	7.8	9.440
여	3.8	20.3	43.3	28.3	4.4	
중학생	3.3	23.7	50.7	18.3	4.0	*** 35.679
고등학생	5.6	20.3	45.5	21.6	7.0	
대학생	2.7	15.0	40.2	34.9	7.3	
전체	3.9	19.6	45.5	24.9	6.1	

* p<0.05 ** p<0.01 *** p<0.001

(4) 역사수업의 형태

『역사시간에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이 이루어진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10>과 같다. 역사수업에서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이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4.6%, ‘전

혀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4.8%, '가끔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12.3%)보다 고등학생(26.6%)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35.5%)이 더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역사수업 기회를 '전혀 가져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학생(14.0%)보다 고등학생(16.6%)이, 고등학생보다 대학생(29.2%)이 더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역사수업 기회를 '가끔 가져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0> 한국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단위 : %

	자주있다	가끔있다	모르겠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1.8	19.6	17.8	33.9	26.9	3.637
여	3.1	20.4	18.6	35.4	22.6	
중학생	1.3	14.0	21.4	27.8	35.5	*** 77.436
고등학생	4.0	16.6	20.6	32.2	26.6	
대학생	2.0	29.2	12.6	43.9	12.3	
전체	2.4	20.0	18.2	34.6	24.8	

* $p < 0.05$ ** $p < 0.01$ *** $p < 0.001$

3) 역사의식의 함양 요인 및 발전의식

(1) 역사의식 함양 요인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11>과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은 '학교교사'(39.6%), '역사서적 등장인물'(26.5%), '사극주인공'(13.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학교교사'(45.0%), '사극주인공'(18.3%), '역사서적 등장인물'(17.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극의 주인공’에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는 고등학생(20.6)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16.0%), 대학생(1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한국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단위 : %

	학교교사	가족·친척	친구	사극주인공	역사서적 등장인물	기타	x ²
남	39.6	9.6	2.4	13.1	26.5	8.7	** 17.052
여	45.0	10.4	3.1	18.3	17.7	5.5	
중학생	39.3	16.0	2.0	16.0	22.0	4.7	*** 42.162
고등학생	43.9	7.3	1.3	20.6	18.6	8.3	
대학생	43.9	6.6	5.0	10.6	25.6	8.3	
전체	42.4	10.0	2.8	15.7	22.1	7.1	

* p<0.05 ** p<0.01 *** p<0.001

(2) 자신의 행동과 역사발전의 관계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12>에서와 같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역사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체의 41.3%가 응답하였다.

<표 III-12>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x ²
남	12.5	29.2	30.1	23.4	4.7	2.226
여	10.8	30.0	31.8	21.2	6.2	
중학생	13.0	28.3	32.7	20.3	5.7	* 17.832
고등학생	10.3	27.6	28.2	25.2	8.6	
대학생	11.7	11.0	32.0	21.3	2.0	
전체	11.7	29.6	31.0	22.3	5.4	

* p<0.05 ** p<0.01 *** p<0.001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22.7%)보다 고등학생(37.9%)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41.3%)이 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역사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

『역사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을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단위 : %

	정치지도자	민중	주변국가	지식인 및 개혁세력	종교	기타	x ²
남	18.0	59.5	4.0	14.0	2.0	2.4	10.002
여	13.0	64.7	3.3	16.8	1.3	0.9	
중학생	14.0	65.3	2.7	15.0	2.0	1.0	16.538
고등학생	15.9	65.1	4.7	10.6	1.7	2.0	
대학생	16.6	55.8	3.7	20.6	1.3	2.0	
전체	15.5	62.1	3.7	15.4	1.7	1.7	

* p<0.05 ** p<0.01 *** p<0.001

<표 III-13>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역사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으로 ‘민중’(62.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뒤로는 ‘정치지도자’(15.5%), ‘지식인 및 개혁세력’(15.4%), ‘주변국가’(3.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시각

(1)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

는 다음의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55.7%,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20.8%, ‘모든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19.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등학생(64.1%)과 중학생(59.0%)의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 가지 의견에 압도적인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대학생의 경우,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43.9%)과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의견(42.2%)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표 III-14> 한국 청소년의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단위 : %

	모든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어야함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 되어야 함	지나간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 없음	기타	χ^2
남	21.2	54.6	19.8	3.8	0.7	3.272
여	17.4	56.7	21.9	3.8	0.2	
중학생	27.7	59.0	9.0	3.7	0.7	*** 144.777
고등학생	17.9	64.1	11.3	6.6	0.0	
대학생	12.3	43.9	42.2	1.0	0.7	
전체	19.3	55.7	20.8	3.8	0.4	

* $p < 0.05$ ** $p < 0.01$ *** $p < 0.001$

(2) 자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독창성 여부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38.5%가 ‘매우 많다’고, 37.7%가 ‘약간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76.2%가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42.0%)이 대학생(38.2%)보다, 대학생이 고등학생(35.2%)보다 더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전혀 없다’는 의견 역시 대학생(0.3%)과 중학생(0.0%)에 비해 고등학생(3.0%)에게서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표Ⅲ-15>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x ²
남	37.6	39.0	14.7	7.3	1.3	1.782
여	39.3	36.4	14.3	9.1	0.9	
중학생	42.0	34.0	16.0	8.0	0.0	** 26.090
고등학생	35.2	35.5	15.9	10.3	3.0	
대학생	38.2	43.5	11.6	6.3	0.3	
전체	38.5	37.7	14.5	8.2	1.1	

* p<0.05 ** p<0.01 *** p<0.001

5)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시각

(1) 타국의 역사에 대한 시각

『다른 나라의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을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표 Ⅲ-16>에서와 같다. <표 Ⅲ-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르겠다’는 의견이 34.3%로 가장 많았다. ‘정말 내정간섭이다’라는 의견이 5.9%, ‘약간 내정간섭이다’라는 의견은 23.4%, ‘별로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25.3%, ‘전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11.2%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39.7%)과 고등학생(40.5%)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반면 대학생(37.9%)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표 III-16> 한국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단위 : %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모르겠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χ^2
남	5.3	24.9	33.2	24.1	12.5	3.476
여	6.4	21.9	35.3	26.5	9.9	
중학생	6.3	19.3	39.7	20.3	14.3	*** 55.103
고등학생	6.3	24.9	40.5	17.6	10.6	
대학생	5.0	25.9	22.6	37.9	8.6	
전체	5.9	23.4	34.3	25.3	11.2	

* $p < 0.05$ ** $p < 0.01$ *** $p < 0.001$

(2) 한중일 간 역사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한중일 3국의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에 관한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 청소년의 26.3%가 ‘매우 혹은 약간 낙관적’이라고 답하였고, 51.0%가 ‘다소 혹은 전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의 역사문제 해결을 여성(27.6%)이 남성(25.0%)보다 ‘매우 혹은 약간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남성(55.0%)이 여성(47.0%)보다 ‘다소 혹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22.6%)보다 고등학생(27.2%)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29.0%)이 한중일 역사문제의 해결을 낙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III-17> 한국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단위 : %

	매우낙관적	다소낙관적	보통이다	다소부정적	매우부정적	χ^2
남	4.7	20.3	20.0	39.0	16.0	*** 24.944
여	3.1	24.5	25.4	40.6	6.4	
중학생	7.0	22.0	27.7	31.7	11.7	*** 39.646
고등학생	2.3	24.9	22.9	36.2	13.6	
대학생	2.3	20.3	17.6	51.5	8.3	
전체	3.9	22.4	22.7	39.8	11.2	

* $p < 0.05$ ** $p < 0.01$ *** $p < 0.001$

(3)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결성의 가능성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sia Union)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한국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적극찬성	약간찬성	그저그렇다	약간반대	적극반대	χ^2
남	23.6	38.1	27.4	5.3	5.6	** 15.474
여	22.1	43.3	28.7	4.9	1.1	
중학생	24.3	32.7	30.7	7.3	5.0	*** 56.560
고등학생	16.6	37.9	36.2	5.6	3.7	
대학생	27.6	51.5	17.3	2.3	1.3	
전체	22.8	40.7	28.0	5.1	3.3	

* $p < 0.05$ ** $p < 0.01$ *** $p < 0.001$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23.6%로 여성의 22.1%보다 높았고, ‘약간 찬성’한다는 의견은 여성이 43.3%로 남성의 3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에서 남성이 5.6%로 여성의 1.1%보다 높게 나타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견해는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은 대학생이 27.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이 24.3%, 고등학생이 16.6%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찬성’한다는 51.5%의 높은 의견 역시 대학생에게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37.9%, 중학생은 32.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0.7%가 ‘약간 찬성’하며, 22.8%가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청소년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한편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은 대학생(1.3%)보다 고등학생(3.7%)이 높았고, 중학생(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간 반대’한다는 의견 역시 대학생(2.3%)보다 고등학생(5.6%)이 높았고, 중학생(7.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국민의식

(1) 국가적 자긍심

『자국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19>와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41.2%로 여성의 34.2%보다 높았고, ‘다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45.9%로 남성의 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중학생이 42.3%로 고등학생의 39.5%보다 높았고, 대학생의 3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4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학생이 37.0%, 고등학생이 32.9%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39.7%의 청소년들이 한국인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다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7%의 청소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8.4%의 청소년들이 한국인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9> 한국 청소년의 자국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단위 : %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잘모르겠다	별로 그렇지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x ²
남	41.2	33.4	15.6	6.9	2.9	** 19.656
여	34.2	45.9	10.4	8.2	1.3	
중학생	42.3	37.0	10.7	8.3	1.7	** 26.852
고등학생	39.5	32.9	15.0	9.0	3.7	
대학생	31.2	49.2	13.3	5.3	1.0	
전체	37.7	39.7	13.0	7.5	2.1	

* p<0.05 ** p<0.01 *** p<0.001

(2) 자국민의 장점

『자국민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20>과 같다.

<표 III-20>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단위 : %

	질서의식	단결심	이해심	예의바름	친절	근면성	끈기	기타
남	2.8	31.8	3.8	13.6	8.1	16.9	20.0	3.0
여	3.2	39.9	4.0	13.6	7.3	15.4	15.0	1.8
중학생	3.9	29.8	5.3	15.9	9.6	14.4	19.1	1.9
고등학생	3.0	38.8	4.6	13.5	9.1	11.4	17.5	2.1
대학생	1.9	39.6	1.5	11.0	4.1	22.9	15.6	3.2
전체	3.0	35.8	3.9	13.6	7.7	16.1	17.5	2.4

* 위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단결심’이 남녀 모두에게서 각각 31.8%, 39.9%의 높은 지지를 받아 한국인의 제 1순위 장점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남성은 ‘끈기’(20.2%)라고 답하였으며, ‘근면성’(16.9%), ‘예의바름’(13.6%), ‘친절’(8.1%) 순의 의견을 보였다. 여성은 그 다음으로 ‘근면성’(15.4%)이라고 답하였고, ‘끈기’(15.0%), ‘예의바름’(13.6%), ‘친절’(7.3%) 순으로 답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의 39.6%와 고등학생의 38.8%, 중학생의 29.8%가 ‘단결심’을 한국인의 장점이라고 응답하였다.

(3) 자국민의 단점

『자국민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단점

단위 : %

	성급함	사치스러움	이기심	폭력적	기타
남	41.1	14.9	30.0	9.6	4.4
여	50.5	11.1	25.6	8.4	4.4
중학생	38.3	12.3	32.4	13.2	3.7
고등학생	42.5	13.6	13.2	8.7	4.0
대학생	58.0	13.2	18.7	4.4	5.7
전체	45.7	13.0	27.0	9.0	4.4

* 위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단점은 ‘성급함’(45.7%)과 ‘이기심’(2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게서 ‘성급함’이 각각 41.1%, 50.5%의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성은 ‘이기심’(30.0%), ‘사치스러움’(14.9%), ‘폭력적’(9.6%)이라고 답하였다. 여성 역시 ‘이기심’(25.6%), ‘사치스러움’(11.1%), ‘폭력적’(8.4%)이라고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의 58.0%와 고등학생의 42.5%, 중학생의 38.3%가 한국인의 단점으로 ‘성급함’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대학생의 18.7%가 ‘이기심’, 13.2%가 ‘사치스러움’, 4.4%가 ‘폭력적’이라고 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의 13.6%가 ‘사치스러움’, 13.2%가 ‘이기심’, 8.7%가 ‘폭력적’이라고 답하였다. 중학생의 32.4%가 ‘이기심’, 13.2%가 ‘폭력적’, 12.3%가 ‘사치스러움’으로 답하였다.

7) 국가의식

(1) 자국의 국제적 지위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22>와 같다.

<표 III-22>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

단위 : %

	선진국	선진국과 중진국사이	중진국	중진국과 후진국사이	후진국	잘모름	χ^2
남	5.8	57.2	20.9	6.7	6.5	2.9	** 20.829
여	5.8	51.7	29.5	9.1	2.0	2.0	
중학생	7.7	49.5	23.1	8.4	6.4	5.0	*** 34.669
고등학생	6.6	52.8	25.6	8.0	5.0	2.0	
대학생	3.0	61.0	27.0	7.3	1.3	0.3	
전체	5.8	54.4	25.2	7.9	4.2	2.4	

* $p < 0.05$ ** $p < 0.01$ *** $p < 0.001$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라는 의견이 남녀 모두 각각 57.2%,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진국’이라는 의견이 남녀 모두 각각 20.9%, 29.5%로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의 61.0%와 고등학생의 52.8%, 중학생의 49.5%가 한국의 국제적 위치는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의 27.0%가 고등학생의 25.6%가 중학생의 23.1%가 ‘중진국’이라고 답하였다. ‘선진국’이라는 응답은 대학생의 3.0%, 고등학생의 6.6%가 답하였고, 중학생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가 5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진국’ 25.2%, ‘중진국과 후진국 사이’ 7.9%, ‘선진국’ 5.8%, ‘후진국’ 4.2%로 조사되었다.

(2)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서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2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미국’(16.0%), ‘스위스’(13.9%), ‘영국’(9.0%), ‘호주’(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6.5%, ‘중국’은 2.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나라의 분포는 남녀 모두 각각 ‘한국’이 30.8%, 23.9%. ‘미국’이 16.5%, 15.6%, ‘스위스’가 14.5%, 13.3%로 나타났다.

<표 Ⅲ-23> 한국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단위 : %

	미국	한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중국	일본	호주	독일	캐나다	χ^2
남	16.5	30.8	10.5	14.5	6.0	1.7	5.1	5.7	4.0	5.1	15.154
여	15.6	23.9	7.5	13.3	7.5	2.5	7.8	11.1	4.2	6.7	
중학생	16.5	27.1	8.5	13.6	6.4	0.8	5.1	8.9	3.8	9.3	*** 47.649
고등학생	16.2	34.4	8.9	11.7	6.5	0.8	10.1	5.7	2.4	3.2	
대학생	15.4	19.7	9.6	16.7	7.5	4.8	3.9	11.0	6.1	5.3	
전체	16.0	27.3	9.0	13.9	6.8	2.1	6.5	8.4	4.1	5.9	

* p<0.05 ** p<0.01 *** p<0.001

* 빈도가 높은 10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34.4%가, 중학생의 27.1%가, 대학생의 19.7%가 ‘한국’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16.2%, 중학생의 16.5%, 대학생의 15.4%가 ‘미국’을 좋아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3.9%와 고등학생의 10.1%, 그리고 중학생의 5.1%가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답하여 중·고등·대학생 중 고등학생이 일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4.8%, 고등학생의 0.8%, 중학생의 0.8%가 ‘중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답하여 중·고등·대학생 중 대학생이 중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좋아하는 이유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2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아한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26.3%)의견, ‘우수한 국민성’(22.4%), ‘복지국가’(13.0%), ‘부유함’(8.2%), ‘전쟁원조’(1.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조국이므로,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혹은 현재 강대국이어서, 우수한 문화유산 관리국, 개인취향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III-24> 한국 청소년의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단위 : %

	부자유서	전쟁 때 도와줘서	복지국가 이므로	자연이 아름다워서	국민성이 우수하여	기타	x ²
남	10.2	1.8	12.7	22.7	25.6	27.0	** 18.523
여	6.3	1.6	13.3	34.0	19.1	25.7	
중학생	6.1	1.7	8.4	35.0	23.2	25.6	*** 36.280
고등학생	9.5	1.4	9.5	26.4	24.0	29.4	
대학생	9.2	2.1	21.2	23.6	19.9	24.0	
전체	8.2	1.7	13.0	28.4	22.4	26.3	

* p<0.05 ** p<0.01 *** p<0.001

성별에 따라 좋아하는 이유는 여성의 34.0%가 ‘자연이 아름답음’ 25.7%는 ‘기타’의견을, 19.1%가 ‘국민성의 우수함’을 응답하였으나 남성의 27.0%가 ‘기타’의견을, 25.6%가 ‘국민성의 우수함’을, 22.7%가 ‘자연이 아름답음’을 이유로 응답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35.0%가 ‘자연이 아름다워서’라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29.4%와 대학생의 24.0%는 ‘기타’의견을 이유로 답하였다.

(4) 자국의 미래 전망

『자국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25>와 같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2.2%,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32.5%로 전체 청소년의 74.7%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 14.2%, ‘조금 못할 것’이라는 의견 6.9%, ‘훨씬 못할 것’이라는 의견 3.0%, ‘기타’의견 1.2%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39.3%)이 고등학생(30.2%)보다, 고등학생이 대학생(27.9%)보다 한국의 미래를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학생이(50.8%) 고등학생(40.2%)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35.7%)보다 한국의 미래를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표 III-25> 한국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

단위 : %

	크게 나아질 것	조금 나아질 것	지금과 비슷할 것	조금 못할 것	훨씬 못할 것	기타	x2
남	31.2	39.9	16.0	7.3	4.2	1.3	8.778
여	33.8	44.6	12.4	6.4	1.8	1.1	
중학생	39.3	35.7	10.3	9.3	3.7	1.7	*** 35.750
고등학생	30.2	40.2	15.9	8.3	4.0	1.3	
대학생	27.9	50.8	16.3	3.0	1.3	0.7	
전체	32.5	42.2	14.2	6.9	3.0	1.2	

* p<0.05 ** p<0.01 *** p<0.001

(5)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26>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은 ‘사회복지국가’(23.2%), ‘정치적 안정 국가’(21.9%), ‘경제적 부유국가’(20.4%), ‘범죄·부패 없는 국가’(20.2%), ‘예술·문화 성숙국가’(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사회복지국가’(22.1%), ‘정치적 안정 국가’(22.0%), ‘범죄·부패 없는 국가’(21.2%)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성은 ‘사회복지국가’(24.1%), ‘정치적 안정 국가’(21.8%), ‘경제적 부유국가’(20.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은 ‘사회복지국가’(30.5%)를, 고등학생은 ‘범죄·부패 없는 국가’(22.6%)를, 중학생은 ‘정치적 안정 국가’(24.9%)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으로 답하였다.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으로 대학생은 ‘사회복지국가’(30.5%), ‘경제적 부유국가’(23.1%), ‘정치적 안정 국가’(17.5%)의 순으로 답하였고, 고등학생은 ‘범죄·부패 없는 국가’(22.6%), ‘정치적 안정 국가’(22.3%), ‘사회복지국가’(2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정치적 안정 국가’(24.9%), ‘범죄·부패 없는 국가’(23.2%), ‘사회복지국가’(18.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6>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단위 : %

	정치적 안정국가	경제적 부유국가	예술·문화 성숙국가	사회복지 국가	범죄·부패 없는국가	기타
남	22.0	20.8	12.6	22.1	21.2	1.2
여	21.8	20.0	13.2	24.1	19.2	1.5
중학생	24.9	17.9	13.3	18.7	23.2	1.9
고등학생	22.3	21.0	10.6	22.3	22.6	1.3
대학생	17.5	23.1	15.0	30.5	13.2	0.8
전체	21.9	20.4	12.9	23.2	20.2	1.4

* 위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6) 자국에서 본인의 능력 발휘 가능성

『자국에서의 능력 발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27>과 같다.

<표 III-27>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에서의 능력 발휘 가능성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다소적다	매우적다	χ^2
남	12.3	26.8	30.1	21.9	8.9	12.521
여	7.3	24.8	32.6	28.8	6.4	
중학생	10.0	22.3	33.7	24.7	9.3	39.434
고등학생	9.1	20.5	28.2	30.9	11.4	
대학생	10.3	34.6	32.2	20.6	2.3	
전체	9.8	25.8	31.4	25.4	7.7	

* $p < 0.05$ ** $p < 0.01$ *** $p < 0.001$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1.4%가 우리나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고, 25.8%가 ‘약간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25.4%가 ‘다소 적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능력발휘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의

견은 12.3%로 여성의 7.3%보다 높았고, ‘약간 있다’는 의견도 26.3%로 여성의 24.8%보다 높았으며, ‘매우 적다’는 의견 역시 8.9%로 여성의 6.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 10.3%가 능력발휘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중학생(10.0%)과 고등학생(9.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약간 있다’는 응답에서도 중학생(22.3%)과 고등학생(20.5%)보다 대학생(32.2%)이 능력발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1) 국가 위기 시 행동의지

『전쟁 시 행동』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28>과 같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34.4%)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30.8%)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일단 몸을 피하겠다’는 의견이 13.2%,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견도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35.2%),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29.4%), ‘앞장서서 싸우겠다’(15.8%), ‘일단 몸을 피하겠다’(10.0%)는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33.6%),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32.2%), ‘일단 몸을 피하겠다’(16.3%), ‘외국으로 출국하겠다’(12.4%)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대학생에 비해 ‘일단 몸을 피한다’(15.3%)는 응답과 ‘외국으로 출국하겠다’(13.3%)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한국 청소년의 전쟁 시 행동

단위 : %

	앞장서서 싸움	상황보며 결정	일단 몸을 피함	외국으로 출국	할수있는 역할수행	기타	x2
남	15.8	35.2	10.0	8.5	29.4	1.1	*** 38.603
여	4.6	33.6	16.3	12.4	32.2	0.9	
중학생	10.7	31.0	12.3	12.3	32.0	2.0	* 20.835
고등학생	9.3	33.6	15.3	13.3	27.6	1.0	
대학생	10.6	38.5	12.0	6.0	32.9	0.0	
전체	10.2	34.4	13.2	10.4	30.8	1.0	

* p<0.05 ** p<0.01 *** p<0.001

(2)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III-29>와 같다. 전체의 8.5%, 35.9%가 각각 ‘항상 헌신할 자세가 되어있다’라고, ‘대체로 헌신할 자세가 되어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1.7%로 높았으며, ‘대체로 아니다’라는 의견이 9.1%,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도 4.8%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항상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는 남성이 10.2%, 여성이 6.8%, ‘대체로 헌신할 자세’가 되어있는 남성은 37.0%, 여성은 34.9%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가 다소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10.3%가 ‘항상 헌신할 자세’를 나타냈으며, 고등학생은 9.0%, 대학생은 6.3%로 나타났다.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은 대학생이 43.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중학생이 35.7%, 고등학생은 28.9%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 국가의 헌신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잘 모르겠다’(44.2%), ‘대체로 아니다’(10.0%), ‘절대 아니다’(8.0%)에서 신분별 가장 높은 답변 점유율을 보여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한국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단위 : %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남	10.2	37.0	36.3	9.1	7.3	*** 22.054
여	6.8	34.9	47.0	9.1	2.2	
중학생	10.3	35.7	42.0	7.7	4.3	** 25.023
고등학생	9.0	28.9	44.2	10.0	8.0	
대학생	6.3	43.2	38.9	9.6	2.0	
전체	8.5	35.9	41.7	9.1	4.8	

* $p < 0.05$ ** $p < 0.01$ *** $p < 0.001$

9) 정부에 대한 신뢰

(1)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30>과 같다.

<표 Ⅲ-30> 한국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단위 :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남	0.7	9.8	28.3	37.0	24.3	2.839
여	1.1	8.2	25.6	41.3	23.8	
중학생	0.7	8.3	24.3	41.3	25.3	*** 74.547
고등학생	0.0	2.7	22.6	40.9	33.9	
대학생	2.0	15.9	33.9	35.2	13.0	
전체	0.9	9.0	26.9	39.1	24.1	

* $p < 0.05$ ** $p < 0.01$ *** $p < 0.001$

전체의 39.1%가 정부정책을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절

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1%나 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6.9%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74.8%가, 중학생의 66.6%가, 대학생의 48.2%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시각이 매우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정부정책을 신뢰한다’는 의견 역시 대학생이 15.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은 8.3%로 조사되었다.

(2)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31>과 같다. 전체의 45.0%가 정부 공직자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37.1%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강한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87.8%가, 대학생의 82.4%가, 중학생의 76.3%가 정부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시각이 가장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II-31> 한국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단위 :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남	0.2	6.0	16.0	34.5	43.2	** 19.300
여	1.3	2.6	9.5	39.7	46.8	
중학생	0.7	5.3	17.7	36.3	40.0	** 27.348
고등학생	0.3	2.0	10.0	33.6	54.2	
대학생	1.3	5.6	10.6	41.5	40.9	
전체	0.8	4.3	12.7	37.1	45.0	

* $p < 0.05$ ** $p < 0.01$ *** $p < 0.001$

3. 중국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¹⁾

청소년의 역사인식 형성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전통에 대한 존중과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련한 실제 상황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의미한다. 국가의 영광스런 과거에 대한 지식은 청소년의 자부심을 키워주며, 국가의 과거 실패 또는 결점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과거의 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한 과거에 대한 충분하고 올바르게 명확한 인식은 청소년이 국가간 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발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긍정적 비전을 심어준다.

이번 한중일 간 실행된 합동조사는 동북아시아 국가간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간 건전하고 적극적인 관계 구축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역사 인식에 대한 조사는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관촌(Zhongguancun) 학교와 중국청년정치학원 상급 학생 981명을 대상으로 2006년 3월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의 보완으로 베이징 조사팀은 올해 7월 중국청년학원, 중국인민대학, 중앙민족대학, China University of Geology 학생을 대상으로 20건의 대면 반구조적(semi-structured)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설문조사표와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졌지만,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역사 교육 시스템의 평가’,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 ‘동북아시아 공동체 인식과 평가’, ‘한국, 중국 및 일본 삼국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전’ 등의 테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었다. 인터뷰 조사는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가능하게 했다.

1) 역사에 대한 관심도

(1)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

1) 이 부분은 중국측 조사연구를 담당했던 De-ping Lu(중국청소년정책연구소 부소장) 교수가 집필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과는 다음의 <표 III-32>와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48.9%)보다 남학생(63.8%)이 역사에 대해 훨씬 높은 흥미나 관심 정도를 나타내었다. 조사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등학교(44.2%)에 와서는 중학교(58.0%) 때보다 줄어들고, 다시 대학교(66.1%)에 들어가서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III-32> 중국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많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24.7	39.1	37.0	17.1	4.9	*** 39.027
여	12.3	36.6	46.8	3.6	0.6	
중학생	18.2	39.8	38.6	2.3	1.1	*** 46.790
고등학생	12.5	31.7	46.5	8.0	1.3	
대학생	24.6	41.5	31.6	1.6	0.6	
전체	18.4	37.8	38.9	3.9	1.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33>과 같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혹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업’(30.4%)과 ‘TV 등 영상매체의 역사 드라마나 특별 프로그램’(25.5%)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TV 등 영상매체’가 청소년의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주된 채널 중 하나이며, 청소년의 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주된 촉매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TV 등 영상매체’의 기능이 중학교(30.5%)와 고등학교(29.2%) 청소년에게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대학교(16.8%)에 와서는 대폭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생들(50.2%)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강의를 압도적으로 꼽은 것은 중학교(19.1%), 고등학교(21.7%) 상

황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입시 위주의 역사 교육체계와 다른, 대학교에서의 역사 강좌는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데 주된 역할을 발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왜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역사 수업’ 응답률이 ‘TV 등 영상 매체의 역사 드라마나 특별 프로그램’을 즐기는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

<표 Ⅲ-33> 중국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단위 : %

	학교수업	가족	TV 등 영상매체	관련서적	박물관 유적지견학	사회적 사건	기타	x ²
남	27.7	8.2	22.5	19.5	4.1	12.5	5.5	*** 27.651
여	32.9	10.3	28.0	11.2	6.7	7.7	3.2	
중학생	19.1	13.8	30.5	17.5	8.9	6.8	3.4	*** 119.565
고등학생	21.7	6.4	29.2	16.9	5.4	13.9	6.4	
대학생	50.2	7.3	16.8	10.8	1.9	9.8	3.2	
전체	30.4	9.3	25.5	15.1	5.5	10.1	4.3	

* p<0.05 ** p<0.01 *** p<0.001

(3)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34>와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정치·사회’(46.2%), ‘문화·예술’(21.7%), ‘기타’(8.6%) 분야 순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문화·예술’(47.5%), ‘정치·사회’(33.3%), ‘경제’(5.3%) 분야 순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정치·사회’ 분야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신분은 대학생(58.9%)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등학생(38.2%)과 중학생(41.6%)은 ‘문화·예술’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이징 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건의 인터뷰에서 역사 학습의 혜택 관련 관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수 있다. ‘정치와 사회’분

야 관련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는 중국 역사의 전성기인 당 왕조나 중국 역사상 가장 취약했던 시기인 전근대의 중국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였다. 청소년들은 중국 역사에 있어 이 두 가지 시대를 중국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한 근본법칙을 찾는 핵심 소스로 보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또한 역사 속 정치적 인물들을 인생의 모델로 삼기 위해 연구한다고 밝혔고, 이들 역사 속 위인들이 실제로도 유익한 행동 규범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현재 정치 시스템과 복잡한 중국의 사회 및 정치 이슈에 비견할 수 있는 몇몇 역사적 사건을 심도 깊게 분석한 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표 III-34> 중국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단위 : %

	정치사회	경제	문화예술	외교	사상	법제도	기타	χ^2
남	46.2	6.4	21.7	6.0	6.9	4.2	8.6	*** 86.013
여	33.3	5.3	47.5	4.9	4.3	3.7	1.2	
중학생	29.2	4.6	41.6	7.0	6.7	3.3	7.6	*** 100.633
고등학생	30.6	5.6	38.2	6.9	8.9	4.9	4.9	
대학생	58.9	7.3	25.2	2.5	1.0	3.5	1.6	
전체	39.5	5.8	35.1	5.5	5.5	3.9	4.8	

* $p < 0.05$ ** $p < 0.01$ *** $p < 0.001$

(4)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35>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이다’(40.1%), ‘약간 많다’(34.9%), ‘매우 많다’(16.4%)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53.7%)의 경우 여학생(49.%)보다 많은 관심을 다소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향토사에 대한 관심은 대학생(57.7%)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54.0%)이 고등학생(41.8%)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표 III-35> 중국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많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19.1	34.6	37.7	6.8	1.9	9.298
여	13.7	35.4	42.4	7.9	0.6	
중학생	18.5	35.5	39.5	5.7	0.9	** 27.018
고등학생	11.5	30.3	44.6	11.5	2.2	
대학생	18.9	38.8	36.3	5.4	0.6	
전체	16.4	34.9	40.1	7.4	1.2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교육의 목적 및 교육 방법

(1) 역사교육 필요성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36>과 같다. 역사교육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응답한 학생이 62.6%, ‘약간 필요’한 것으로 응답한 학생이 26.7%로 나타나, 조사된 중국 청소년의 89.3%가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들(92.0%)이 남학생들(86.5%)보다 역사교육에 대한 필요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 필요성

단위 : %

	매우필요	약간필요	보통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χ^2
남	62.5	24.0	9.7	1.2	2.5	* 12.745
여	62.6	29.4	5.9	1.4	0.6	
중학생	58.9	32.0	8.0	0.6	0.6	*** 59.014
고등학생	51.8	32.2	11.6	1.9	2.6	
대학생	77.6	15.3	3.8	1.6	1.6	
전체	62.6	26.7	7.8	1.3	1.5	

* $p < 0.05$ ** $p < 0.01$ *** $p < 0.001$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교(90.9%)에서 생각했던 역사교육의 필요성은 고등학교(84.0%)에 와서는 줄어들고,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서 다소 늘어나는 (92.9%)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역사공부의 목적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37>과 같다. 조사된 청소년의 역사공부 목적의 핵심차원은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31.9%), ‘지식습득과 교양을 쌓기 위해’(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봤을 때 특이한 점은, 중학생(34.0%)과 고등학생(35.2%)이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31.9%)은 ‘지식습득과 교양을 쌓기 위해’ 역사를 공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표 III-37>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공부 목적

단위 : %

	지식교양	전통문화 계승	과거통한 현재이해	역사의식 민족의식	국제관계 이해	기타	χ^2
남	29.6	13.5	15.3	31.2	6.9	3.5	5.603
여	24.4	13.6	16.7	32.7	9.8	2.8	
중학생	23.7	16.1	14.9	34.0	9.1	2.1	*** 32.080
고등학생	25.0	9.2	14.1	35.2	10.9	5.6	
대학생	31.9	15.0	19.2	26.5	5.4	1.9	
전체	26.8	13.5	16.1	31.9	8.5	3.2	

* $p < 0.05$ ** $p < 0.01$ *** $p < 0.001$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20건의 인터뷰에서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세 개 측면을 주된 역사공부 목적으로 꼽았는데, ‘개인의 발전 촉진’, ‘역사진보의 법칙 탐색’, ‘현실의 문제와 사건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그것이다. 대조적으로 역사 공부의 목적에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국제 관계 이해

및 문화 또는 경제 공동체 형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떨어졌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청소년의 개인적 혜택과 관련된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지금까지 받은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38>과 같다.

<표 III-38> 중국 청소년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χ^2
남	8.5	23.7	41.0	19.8	7.0	9.541
여	8.9	21.7	49.4	15.6	4.5	
중학생	12.0	33.9	39.9	10.8	3.4	94.620
고등학생	8.3	18.8	54.5	13.7	4.8	
대학생	5.4	14.2	42.1	29.1	9.2	
전체	8.7	22.7	45.3	17.6	5.7	

* $p < 0.05$ ** $p < 0.01$ *** $p < 0.001$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에 있어서 조사된 청소년의 45.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약간 만족’에 22.7%, ‘별로 만족하지 않음’에 17.6%의 응답을 보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매우 혹은 약간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에 중·고·대학생 중 중학생(45.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별로 혹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학생(38.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4) 역사수업의 형태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에 대한 중국 청소년

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39>와 같다.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48.7%가 역사과목 수업에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이 ‘가끔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29.0%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자주 혹은 가끔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51.7%, 고등학생이 47.5%, 대학생이 64.8%로 조사되어 고등학생의 경우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중국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단위 : %

	자주있다	가끔있다	모르겠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8.1	48.9	24.6	11.0	7.4	** 16.809
여	3.7	48.5	33.2	9.8	4.8	
중학생	4.9	46.8	30.5	11.6	6.1	** 23.716
고등학생	5.2	42.3	31.5	12.8	8.2	
대학생	7.5	57.3	24.8	6.5	3.9	
전체	5.9	48.7	29.0	10.4	6.1	

* $p < 0.05$ ** $p < 0.01$ *** $p < 0.001$

3) 역사의식의 함양 요인 및 발전의식

(1) 역사의식 함양 요인

『역사의식 함양 요인』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0>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 요인은 ‘역사서적의 등장인물’(31.4%), ‘학교교사’(27.9%), ‘가족·친척’(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역사서적의 등장인물’(37.4%)이 역사의식 함양에 제1요인인 반면, 여학생은 ‘학교교사’(32.5%)로부터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27.2%)과 대학생(35.0%)은 ‘학교교사’가 역

사의식 함양에 제1요인이었다. 하지만 고등학생(34.6%)의 경우 역사의식 함양의 제1요인은 ‘역사서적의 등장인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요인은 각각 21.4%로 ‘학교교사’와 ‘가족·친척’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교사’의 영향력이 고등학생의 시기엔 다소 줄어들다가 대학생의 시기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II-40> 중국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단위 : %

	학교교사	가족·친척	친구	사극주인공	역사서적 등장인물	기타	x ²
남	23.1	18.6	7.6	9.5	37.4	3.9	*** 42.973
여	32.5	22.0	3.4	15.4	25.9	0.8	
중학생	27.2	28.4	6.0	11.7	25.7	0.9	*** 47.107
고등학생	21.4	21.4	5.5	13.3	34.6	3.9	
대학생	35.0	11.0	4.7	12.9	34.1	2.2	
전체	27.9	20.4	5.4	12.6	31.4	2.3	

* p<0.05 ** p<0.01 *** p<0.001

(2) 자신의 행동과 역사발전의 관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1>과 같다. 중국 청소년의 38.6%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은 역사발전과 관계가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고, 37.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관계가 ‘매우 많거나 약간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22.3%)이 여학생(13.0%)보다 많았고,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19.5%)이 고등학생(17.2%)보다 자신의 행동과 역사발전의 관계가 ‘매우 많거나 약간 있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았으며, 대학생(16.0%)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1>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9.8	12.5	37.2	34.5	6.0	*
여	3.7	9.3	37.8	42.5	6.7	
중학생	4.9	14.6	46.0	29.1	5.4	***
고등학생	8.9	8.3	37.4	38.3	7.0	
대학생	6.7	9.3	27.9	49.4	6.7	
전체	6.8	10.9	37.4	38.6	6.4	43.809

* $p < 0.05$ ** $p < 0.01$ *** $p < 0.001$

(3)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2>와 같다.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서 ‘민중의 힘’(57.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하지만 몇몇 역사 속 인물들인 ‘정치지도자나 지식인 및 개혁세력’(34.4%)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인정하는 학생들의 수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민중’이 역사발전에 영향을 주는 제1원동력이라는 응답에 중학생(59.1%)의 지지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54.7%)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지도자나 지식인 및 개혁세력’이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제1원동력이라는 응답에 고등학생(34.8%)의 지지가 가장 높았고, 중학생(34.3%)과 대학생(34.1%)도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최종 촉매 이해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사 교육에 있어 역사적 발전의 주요 원동력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이 역사를 만들고 바꾸는 유일한 원동력은 민중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생각해볼 때, 역사 속 인물들의 역할에 대한 일부 청소년의 높은 관심은 역사시간에 배운 바와는 다른 독자적 판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42>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단위 : %

	정치지도자	민중	주변국가	지식인 및 개혁세력	종교	기타	χ^2
남	18.0	56.1	2.1	15.8	2.6	5.4	8.540
여	20.2	58.5	2.8	14.6	2.0	2.4	
중학생	21.8	59.1	3.3	12.5	2.1	1.2	* 22.243
고등학생	20.3	54.7	2.3	14.5	2.9	5.5	
대학생	15.5	58.0	1.9	18.6	0.9	5.0	
전체	19.2	57.3	2.5	15.2	2.0	3.8	

* $p < 0.05$ ** $p < 0.01$ *** $p < 0.001$

4) 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시각

역사인식은 또한 한 국가가 지난 과거동안 경험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역사를 어떻게 다룰지는 과거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한 합리적 고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된다. 이러한 태도는 자국 국민들이 적절하다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결국 다른 국가의 이해와 건설적 반응을 얻는데 실패하게 된다. 이 점은 특히 삼국이 매우 긴밀히 연관된 동시에 매우 복잡한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1)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Ⅲ-43>과 같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58.2%)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모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25.6%),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한다’(12.9%)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된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역사 관련 진실을 찾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볼 때 대학생의 경우, 특이한 점은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에 응답한 중학생(65.0%)과 고등학생(5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49.4%)을 보이며, 역사왜곡 바로잡기와는 다소 모순되는 ‘모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29.4%)에 다소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역사가 새롭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표 III-43> 중국 청소년의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단위 : %

	모든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어야함	잘못된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사태상황에 따라 재조명 되어야 함	자녀간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 없음	기타	χ^2
남	26.4	56.4	13.6	2.1	1.5	1.538
여	24.7	59.9	12.3	2.0	1.0	
중학생	24.4	65.0	8.8	1.2	0.6	*** 30.927
고등학생	22.9	59.7	12.6	3.9	1.0	
대학생	29.4	49.4	17.7	1.3	2.2	
전체	25.6	58.2	12.9	2.1	1.2	

* $p < 0.05$ ** $p < 0.01$ *** $p < 0.001$

(2) 자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독창성 여부

『자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독창성 여부』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4>와 같다.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은 ‘매우 많거나’(46.5%) ‘약간 있는’(34.6%)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된 학생들의 81.1%가 자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생(78.1%)보다 중학생(81.8%)이, 중학생보다 대학생(83.2%)이 ‘민족문화의 독창성이 많거나 약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4>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48.3	32.2	14.5	3.9	1.0	7.312
여	44.6	36.8	14.7	3.8	0.0	
중학생	46.3	35.5	15.9	2.0	0.3	* 16.643
고등학생	42.7	35.4	16.2	4.5	1.3	
대학생	50.5	32.7	11.4	5.4	0.0	
전체	46.5	34.6	14.6	3.9	0.5	

* $p < 0.05$ ** $p < 0.01$ *** $p < 0.001$

5)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시각

전통적으로 유교문화를 공유했던 삼국의 공통된 전통문화의 요소는 동북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있어 항상 강조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공통된 전통문화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현대화 경로와 이데올로기 시스템, 서로 다른 역사적 관점, 서로를 경쟁자 또는 적대국으로 분류하는 낮은 정치적 상호신뢰 속에서 한중일 간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난 수년 동안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문화가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와 교역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삼국의 관계는 경제 및 기술의 상호 보완적 구조를 통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듯 보이나 정치적 대결구조로 인해 중국과 일본 간의 교역 성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삼국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측면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의 잦은 전쟁에 얽힌 역사 인식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경제·문화적 상호관계는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발현을 위해 통일된 법률 체제를 구성하는데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1) 타국의 역사에 대한 시각

『다른 나라의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5>와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의 45.5%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3.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49.2%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모르겠다’는 의견으로 판단을 보류한 청소년도 3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중국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단위 : %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모르겠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χ^2
남	5.0	15.8	27.3	48.3	3.5	*** 21.968
여	2.2	11.4	39.9	42.6	3.9	
중학생	3.1	17.9	31.3	41.9	5.7	** 22.189
고등학생	4.2	12.2	33.7	45.8	4.2	
대학생	3.5	10.0	36.1	49.4	1.0	
전체	3.6	13.6	33.6	45.5	3.7	

* $p < 0.05$ ** $p < 0.01$ *** $p < 0.001$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남학생(48.3%)이 여학생(42.6%)보다 다소 높았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에 여학생(39.9%)이 남학생(27.3%)보다 응답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중학생이 41.9%, 고등학생이 45.8%, 대학생이 49.4%인 것으로, ‘모르겠다’는 의견은 중학생이 31.3%, 고등학생이 33.7%, 대학생이 3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간 그렇다’는 의견은 중학생이 17.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고등학생이 12.2%, 대학생이 10.0%의 응답률을 보였다.

(2) 한중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한중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6>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우 혹은 약간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49.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1.1%로 한중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학생(41.6%)보다 여학생(58.1%)이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58.3%와 고등학생의 42.5%, 그리고 대학생의 45.9%가 한중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중국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단위 : %

	매우낙관적	다소낙관적	보통이다	다소부정적	매우부정적	x ²
남	12.7	28.9	33.1	13.1	12.3	*** 47.005
여	14.3	43.8	29.1	3.3	9.6	
중학생	18.3	40.0	24.6	7.7	9.4	** 25.381
고등학생	12.8	31.7	35.3	9.6	10.6	
대학생	8.7	37.2	34.3	7.1	12.8	
전체	13.4	36.4	31.1	8.1	10.9	

* p<0.05 ** p<0.01 *** p<0.001

(3)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결성의 가능성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 구성』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7>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 결성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의견은 ‘그저 그렇다’(34.4%), ‘약간 찬성한다’(30.9%), ‘적극 찬성한다’(22.2%), ‘약간 반대한다’(8.0%), ‘적극 반대한다’(4.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 혹은 약간 찬성한다’는 의견이 53.1%로 나타나 상당수의 중국 청소년들이 아시아 국가연합 결성에 대해 긍

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적극 혹은 약간 찬성한다’는 의견에 여학생(54.8%)이 남학생(51.7%)보다 높은 지지를 보였으나,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학생(22.9%)이 여학생(21.7%)보다 다소 높았고, ‘그저 그렇다’는 의견에서는 여학생(38.2%)이 남학생(30.4%)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47> 중국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적극찬성	약간찬성	그저그렇다	약간반대	적극반대	χ^2
남	22.9	28.8	30.4	9.8	8.1	*** 39.204
여	21.7	33.1	38.2	6.1	0.8	
중학생	23.1	31.7	35.2	5.8	4.3	10.790
고등학생	17.9	31.1	37.5	8.7	4.8	
대학생	25.6	29.8	30.4	9.9	4.2	
전체	22.2	30.9	34.4	8.0	4.4	

* $p < 0.05$ ** $p < 0.01$ *** $p < 0.001$

6) 국민의식

(1) 국가적 자긍심

『국가적 자긍심』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8>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 청소년들(84.7%)은 국가적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과반수(60.0%)가 매우 높은 국가적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60.0%), ‘다소 그렇다’(24.7%), ‘잘 모르겠다’(10.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중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장이 학생들의 중국 국민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매우’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남학생(61.3%)이 여학생(58.9%)보다 많았지만 ‘매우 혹은 다소’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남학생(83.1%)은 여학생(86.6%)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매우’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분은 중학생(71.9%), 대학생(53.8%), 고등학생(52.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혹은 다소’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분은 중학생(91.4%), 고등학생(82.4%), 대학생(79.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중국 청소년의 자국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단위 : %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잘모르겠다	별로 그렇지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χ^2
남	61.3	21.8	12.6	2.3	1.9	* 13.026
여	58.9	27.7	7.6	1.9	3.9	
중학생	71.9	19.5	5.2	1.1	2.3	*** 38.889
고등학생	52.6	29.8	12.8	2.2	2.6	
대학생	53.8	25.6	13.6	3.0	4.0	
전체	60.0	24.7	10.3	2.1	2.9	

* $p < 0.05$ ** $p < 0.01$ *** $p < 0.001$

(2) 자국민의 장점

『자국민의 장점』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49>와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국민의 장점에 대해 중국 청소년들은 ‘근면성’(20.9%), ‘예의바름’(20.5%), ‘단결심’(19.6%), ‘끈기’(17.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질서외식’(3.9%), ‘이해심’(6.3%), ‘친절’(6.9%)은 자국민의 장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49>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단위 : %

	질서의식	단결심	이해심	예의바름	친절	근면성	끈기	기타
남	5.2	16.2	5.8	22.9	6.3	20.2	18.2	5.2
여	2.7	22.8	6.8	18.1	7.4	21.6	16.5	4.1
중학생	2.8	32.5	3.7	22.1	7.7	7.4	21.2	2.8
고등학생	5.1	21.2	5.7	20.2	9.1	14.1	17.5	7.1
대학생	3.9	4.5	9.7	19.0	3.9	41.6	13.2	4.2
전체	3.9	19.6	6.3	20.5	6.9	20.9	17.4	4.6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예의바름’(22.9%), ‘근면성’(20.2%), ‘끈기’(18.2%), ‘단결심’(16.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단결심’(22.8%), ‘근면성’(21.6%), ‘예의바름’(18.1%), ‘끈기’(16.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32.5%)과 고등학생(21.2%)의 경우 ‘단결심’이 자국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경우 ‘근면성’(41.6%)을 자국민의 장점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에 다니는 보다 연령이 높은 중국 청소년들은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중국 국가의 ‘단결심’에 대해 다수가 응답한 반면 대학생들의 응답률은 훨씬 낮았다(4.5%). ‘근면성’에 대한 응답률은 이와 상반되게,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보다 연령층이 높은 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3) 자국민의 단점

『자국민의 단점』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50>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국민성과 관련한 몇몇 전형적인 결점으로 응답 청소년의 대부분이 ‘이기심’(57.4%)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15.6%), ‘성급함’(12.5%), ‘사치스러움’(11.6%), ‘폭력적’(2.8%)의 순으로 응

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이기심’(55.9%), ‘기타’(16.1%), ‘성급함’(13.9%), ‘사치스러움’(10.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이기심’(58.7%), ‘기타’(15.3%), ‘사치스러움’(12.4%), ‘성급함’(11.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이기심’(47.0%), ‘성급함’(21.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이기심’(64.2%), ‘기타’(16.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이기심’(62.2%), ‘사치스러움’(17.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0>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단점

단위 : %

	성급함	사치스러움	이기심	폭력적	기타
남	13.9	10.7	55.9	3.4	16.1
여	11.4	12.4	58.7	2.3	15.3
중학생	21.2	9.4	47.0	5.2	17.3
고등학생	8.7	8.4	64.2	2.0	16.7
대학생	6.9	17.1	62.2	1.0	12.8
전체	12.5	11.6	57.4	2.8	15.6

7) 국가의식

(1) 자국의 국제적 지위

『자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51>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중국 청소년들은 ‘중진국’(47.8%),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41.0%), ‘중진국과 후진국 사이’(5.6%), ‘선진국’(2.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1>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

단위 : %

	선진국	선진국과 중진국사이	중진국	중진국과 후진국사이	후진국	잘모름	χ^2
남	4.2	40.0	44.4	7.7	2.9	0.8	** 20.406
여	1.2	42.0	51.1	3.5	1.6	0.6	
중학생	2.9	42.1	51.0	2.3	1.1	0.6	** 24.465
고등학생	3.2	42.3	45.8	6.4	2.2	0.0	
대학생	1.9	38.4	46.1	8.4	3.5	1.6	
전체	2.7	41.0	47.8	5.6	2.3	0.7	

* $p < 0.05$ ** $p < 0.01$ *** $p < 0.001$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자국의 국제적 지위가 ‘중진국’이라는 의견엔 여학생(51.1%)이 남학생(44.4%)보다 많았으나, ‘선진국 혹은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이라는 의견엔 남학생(44.2%)이 여학생(43.2%)보다 많았고, ‘중진국과 후진국 사이 혹은 후진국’이라는 의견 역시 남학생(10.6%)이 여학생(5.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자국의 국제적 지위가 ‘선진국 혹은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이라는 의견엔 고등학생(45.5%), 중학생(45.0%), 대학생(40.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중진국과 후진국 사이 혹은 후진국’이라는 의견에는 대학생(11.9%), 고등학생(8.6%), 중학생(3.4%)의 순으로 나타나 신분별 인식차이를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 대해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 비율이 고등학교 신분부터 늘어나면서 대학교까지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방법으로 여러 나라들을 평가 또는 비교하는 역량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애국주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제도교육의 압도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Ⅲ-52>와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중국’(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15.9%), ‘프랑스’(10.7%), ‘스위스’(10.2%), ‘독일’(8.9%), ‘캐나다’(7.0%), ‘한국’(6.0%), ‘영국’(5.8%), ‘일본’(4.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 중국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단위 : %

	미국	한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x ²
남	21.5	3.3	4.5	9.1	9.1	34.4	3.9	10.6	3.6	*** 39.308
여	10.8	8.4	7.0	11.3	12.1	27.5	5.7	7.5	9.7	
중학생	16.1	7.1	5.5	3.9	10.2	36.6	8.3	5.5	6.7	*** 75.348
고등학생	17.5	3.6	7.6	6.7	11.7	33.2	2.2	8.1	9.4	
대학생	14.1	7.0	4.4	20.7	10.1	21.6	3.5	13.7	4.8	
합계	15.9	6.0	5.8	10.2	10.7	30.7	4.8	8.9	7.0	

* p<0.05 ** p<0.01 *** p<0.001

* 전체 빈도가 높은 10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중국’(34.4%), ‘미국’(21.5%), ‘독일’(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그 중 가장 낮은 3.3%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중국’(27.5%), ‘프랑스’(12.1%), ‘스위스’(11.3%), ‘미국’(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중국’(36.6%), ‘미국’(16.1%), ‘프랑스’(10.2%), ‘일본’(8.3%), ‘한국’(7.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중국’(33.2%), ‘미국’(17.5%), ‘프랑스’(11.7%), ‘캐나다’(9.4%), ‘독일’(8.1%), ‘영국’(7.6%), ‘스위스’(6.7%), ‘한국’(3.6%), ‘일본’(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중국’(21.6%), ‘스위스’(20.7%), ‘미국’(14.1%), ‘독일’(13.7%), ‘프랑스’(10.1%), ‘한국’(7.0%), ‘캐나다’(4.8%), ‘영국’(4.4%), ‘일본’(3.5%)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좋아하는 이유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53>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이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수한 국민성’(34.9%)과 ‘아름다운 자연’(3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중국 청소년의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단위 : %

	부자유서	전쟁 때 도와줘서	복지국가 이므로	자연이 아름다워서	국민성이 우수하여	기타	χ^2
남	8.3	4.7	7.0	27.3	36.7	16.0	** 22.062
여	6.6	1.0	5.0	37.6	33.2	16.6	
중학생	4.8	4.8	3.9	41.4	32.3	12.7	*** 43.029
고등학생	8.1	1.4	6.1	30.5	32.2	21.7	
대학생	9.6	2.0	7.9	24.8	40.4	15.2	
전체	7.4	2.8	5.9	32.5	34.9	16.4	

* $p < 0.05$ ** $p < 0.01$ *** $p < 0.001$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우수한 국민성’(36.7%), ‘아름다운 자연’(27.3%), ‘기타’(16.0%), ‘부유한 국가’(8.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아름다운 자연’(37.6%), ‘우수한 국민성’(33.2%), ‘기타’(16.6%), ‘부유한 국가’(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아름다운 자연’(41.4%)을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로 응답하였으나, 대학생(40.4%)과 고등학생(32.2%)의 경우 ‘우수한 국민성’을 이유로 꼽았다.

(4) 자국의 미래 전망

『자국의 미래 전망』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54>와 같다.

<표 III-54> 중국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

단위 : %

	크게 나아질 것	조금 나아질 것	지금과 비슷할 것	조금 못할 것	훨씬 못할 것	기타	x2
남	62.7	24.3	8.5	1.4	1.2	1.9	5.509
여	62.6	27.3	5.1	2.0	1.2	1.8	
중학생	71.0	20.5	5.1	1.1	0.6	1.7	** 28.269
고등학생	55.9	28.4	9.3	3.5	1.0	1.9	
대학생	59.5	29.1	6.3	0.9	2.2	1.9	
전체	62.5	25.8	6.8	1.8	1.2	1.8	

* p<0.05 ** p<0.01 *** p<0.001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반수(62.5%)의 청소년들은 자국의 미래가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조금 나아질 것’(25.8%), ‘지금과 비슷할 것’(6.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국 청소년의 대다수가 중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시각을 취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학생들과의 20건 인터뷰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중국 경제의 눈부신 약진이 중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과 둘째, 현재 중국이 국제 정치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가 또 다른 주요 요인이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자국을 지금보다 앞으로 ‘크게 나아질 것’에 대한 전망은 중학생(71.0%), 대학생(59.5%), 고등학생(55.9%)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55>와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안정 국가’(23.1%)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리고 ‘경제적 부유국가’(21.0%), ‘예술문화 성숙국가’(18.3%), ‘사회복지국가’(18.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상적 국가 또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이 정치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찾을 수 있는 현상과는 다른, 중국의 역사가 정치위주 라는 것과 관련지어 이러한 청소년들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55>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단위 : %

	정치적 안정국가	경제적 부유국가	예술·문화 성숙국가	사회복지 국가	범죄·부패 없는국가	기타
남	23.2	21.8	17.0	18.0	16.6	3.4
여	23.1	20.4	19.5	18.3	16.2	2.6
중학생	24.1	20.6	16.6	16.3	20.6	1.9
고등학생	23.4	20.7	17.8	19.6	16.1	2.5
대학생	22.0	21.8	20.5	18.7	12.5	4.5
전체	23.1	21.0	18.3	18.2	16.4	3.0

* 위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정치적 안정 국가’(23.2%), ‘경제적 부유국가’(21.8%), ‘사회복지국가’(18.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정치적 안정 국가’(23.1%), ‘경제적 부유국가’(20.4%), ‘예술문화 성숙 국가’(19.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분에 따라서는 중학생은 ‘정치적 안정 국가’(24.1%), ‘경제적 부유국가’(20.6%)와 ‘범죄·부패 없는 국가’(20.6%) 등의 순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정치적 안정 국가’(23.4%), ‘경제적 부유국가’(20.7%)와 ‘사회복지국가’(19.6%) 등의 순으로, 대학생의 경우 ‘정치적 안정 국가’(22.0%), ‘경제적 부유국가’(21.0%)와 ‘예술문화 성숙국가’(2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 자국에서 본인의 능력발휘 가능성

『자국에서 본인의 능력발휘 가능성』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56>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통이다’(43.7%), ‘약간 있다’(29.0%), ‘매우 많다’(12.1%), ‘다소 적다’(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중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에서의 능력 발휘 가능성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다소적다	매우적다	χ^2
남	16.3	28.0	39.7	10.9	5.0	*** 20.688
여	8.0	30.0	47.6	11.6	2.9	
중학생	14.9	23.9	46.1	12.2	2.9	** 22.781
고등학생	14.5	29.3	43.1	10.0	1.0	
대학생	6.6	34.2	41.8	11.7	5.7	
전체	12.1	29.0	43.7	11.3	3.9	

* $p < 0.05$ ** $p < 0.01$ *** $p < 0.001$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39.7%), ‘약간 있다’(28.0%), ‘매우 많다’(16.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보통이다’(47.6%), ‘약간 있다’(30.0%), ‘다소 적다’(11.6%)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성별 능력발휘에 대한 인식차이를 나타내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보통이다’(46.1%), ‘약간 있다’(23.9%), ‘매우 많다’(14.9%) 등의 순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이다’(43.1%), ‘약간 있다’(29.3%), ‘매우 많다’(14.5%) 등의 순으로, 대학생의 경우 ‘보통이다’(41.8%), ‘약간 있다’(34.2%), ‘다소 적다’(1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8)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1) 국가 위기 시 행동의지

『국가 위기 시 행동의지』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57>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반수가 ‘할 수 있는 역할 수행’(55.7%)에 응답하고, ‘상황을 보며 결정’(24.6%), ‘앞장서서 싸움’(14.4%), ‘외국으로 출국’(2.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할 수 있는 역할수행’(52.2%), ‘상황을 보며 결정’(22.4%), ‘앞장서서 싸움’(19.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할 수 있는 역할수행’(58.9%), ‘상황을 보며 결정’(26.8%), ‘앞장서서 싸움’(10.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7> 중국 청소년의 전쟁 시 행동

단위 : %

	앞장서서 싸움	상황보며 결정	일단몸을 피함	외국으로 출국	할수있는 역할수행	기타	x2
남	19.2	22.4	1.9	2.4	52.2	1.9	** 20.730
여	10.0	26.8	1.0	2.2	58.9	1.0	
중학생	11.5	25.9	1.5	2.4	57.9	0.9	17.360
고등학생	15.0	26.4	2.3	3.6	50.5	2.3	
대학생	17.0	21.5	0.6	1.0	58.5	1.3	
전체	14.4	24.6	1.5	2.3	55.7	1.5	

* p<0.05 ** p<0.01 *** p<0.001

(2)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58>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반수(53.2%)의 청소년들은 ‘항상 혹은 대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뜻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35.9%), ‘잘 모르겠다’(20.6%), ‘절대 아니다’(22.0%), ‘잘 모르겠다’(20.9%)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성별 국가관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43.0%), ‘절대 아니다’(22.8%), ‘잘 모르겠다’(16.5%) 등의 순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

다’(39.0%), ‘잘 모르겠다’(20.4%), ‘절대 아니다’(17.3%) 등의 순으로, 대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38.1%), ‘잘 모르겠다’(26.0%), ‘항상 그렇다’(15.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8> 중국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단위 : %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남	18.1	35.9	20.6	10.9	14.4	*** 44.075
여	8.1	44.5	20.9	4.5	22.0	
중학생	12.0	43.0	16.5	5.7	22.8	** 24.437
고등학생	12.1	39.0	20.4	11.2	17.3	
대학생	15.2	38.1	26.0	6.3	14.3	
전체	13.1	40.1	20.8	7.7	18.3	

* $p < 0.05$ ** $p < 0.01$ *** $p < 0.001$

9) 정부에 대한 신뢰

(1)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59>와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76.8%)은 ‘매우 혹은 대체로’정부 정책에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현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을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63.8%), ‘잘 모르겠다’(15.4%), ‘매우 그렇다’(8.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76.7%), ‘잘 모르겠다’(11.6%), ‘절대 아니다’(5.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70.1%), ‘매우 그렇

다'(10.0%), '절대 아니다'(9.7%) 등의 순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73.8%), '잘 모르겠다'(12.1%), '매우 그렇다'(5.4%) 등의 순으로, 대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67.2%), '잘 모르겠다'(19.9%), '절대 아니다'(4.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9> 중국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단위 :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남	8.6	63.8	15.4	5.3	6.8	*** 26.574
여	4.5	76.7	11.6	1.4	5.9	
중학생	10.0	70.1	8.8	1.4	9.7	*** 43.275
고등학생	5.4	73.8	12.1	4.5	4.2	
대학생	3.8	67.2	19.9	4.4	4.7	
전체	6.5	70.3	13.5	3.4	6.3	

* $p < 0.05$ ** $p < 0.01$ *** $p < 0.001$

(2)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60>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의 절반의 청소년들(50.1%)은 '매우 혹은 대체로' 정부 공직자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응답자도 31.9%로 높게 조사되었고, '대체로 아니다'라는 의견이 10.6%,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도 7.5%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58.4%)는 신뢰하는 의견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대학생(44.4%)과 고등학생(37.5%)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혹은 절대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직자들의 부패에 고등학생(20.5%), 대학생(17.2%), 중학생(16.5%) 순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표 III-60> 중국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단위 :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남	7.2	40.0	31.9	12.8	8.1	** 14.435
여	4.1	49.1	31.8	8.1	6.9	
중학생	9.4	58.4	15.7	5.1	11.4	*** 120.394
고등학생	6.1	35.9	37.5	15.1	5.4	
대학생	1.0	37.4	44.4	12.1	5.1	
전체	5.6	44.5	31.9	10.6	7.5	

* $p < 0.05$ ** $p < 0.01$ *** $p < 0.001$

4. 일본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²⁾

일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KIYD)에서 개발한 45개의 설문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총 1,054명의 응답자가 작성한 답변은 현재 일본 청소년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한국 또는 중국 청소년들의 의견과 비교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1) 역사에 대한 관심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국가 및 기타 세계 각국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 및 향후 미래의 자신의 국가 및 그 발전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들 간에 우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변화하는 현대사회 전체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적 지식 및 관점을 획득하는 가운데, 현재 뿐 아니라 과거 및 미래의 역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 사회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2) 이 부분은 일본측 조사연구를 담당한 Kazuhiko Fuwa(쇼케이학원대학)가 집필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1)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61>과 같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역사에 대한 관심 수준을 ‘상(매우 혹은 약간 많다)’, ‘중(보통이다)’, ‘하(별로 혹은 전혀 없다)’로 나눌 때, 34.4%(상), 38.3%(중), 27.3%(하)로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6.2%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는 신분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관심 수준이 높았던 이들 중에서는 대학생(42.7%)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적었다(28.2%).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관심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 중 남학생(42.3%)이 여학생(27.7%) 보다 많았다. 이 외에도, 여학생 중 31.4%가 관심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 중 5.6%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관심이 낮은 여학생의 비중이 중학교(38.9%) 및 고등학교(35.8%) 가운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간단히 설명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각각 제시된 수치들이 높은가, 또는 낮은가 또는 관심도가 긍정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① 청소년들 가운데 관심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와 ②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다.

<표 III-61> 일본 청소년의 역사에 관한 흥미나 관심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많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14.2	28.1	35.2	15.6	6.9	*** 36.614
여	6.3	21.4	40.9	25.8	5.6	
중학생	8.7	23.0	40.2	21.6	6.5	** 23.889
고등학생	6.9	21.3	38.7	24.9	8.1	
대학생	13.9	28.8	36.0	17.2	4.2	
전체	9.9	24.5	38.3	21.1	6.2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62>에서와 같다. 여기서 발견된 두드러진 현상은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42.3%)이 재학 기간 중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동시에 ‘다큐멘터리, 역사 드라마 등 영상매체’(27.1%)와 역사 소설, 영웅 전기 등 ‘역사관련 서적’(11.4%)이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III-62> 일본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단위 : %

	학교수업	가족	TV 등 영상매체	관련서적	박물관 유적지·현장	사회적 사건	기타	x ²
남	41.1	5.1	23.2	14.3	4.9	6.0	5.5	* 13.580
여	43.3	4.1	30.3	9.5	4.5	4.7	3.6	
중학생	44.0	3.4	23.4	15.4	6.0	3.7	4.0	* 21.198
고등학생	39.6	5.6	31.5	10.6	2.5	5.9	4.4	
대학생	43.0	4.8	26.7	9.0	5.3	6.2	5.1	
전체	42.3	4.6	27.1	11.7	4.7	5.3	4.5	

* p<0.05 ** p<0.01 *** p<0.001

(3)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일본 청소년에게 물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63>에서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37.1%가 ‘문화·예술’분야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29.3%가 ‘정치·사회’분야라고 응답했다.

역사의 관심분야에서 특히 성별 그리고 신분별 분포차가 두드러졌는데,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여학생(43.5%)이 남학생(29.4%)보다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으나, ‘정치·사회’분야의 경우 남학생(34.5%)이 여학생(25.0%)보다 더 관심을 나타냈다.

<표 III-63 > 일본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단위 : %

	정치사회	경제	문화예술	외교	사상	법제도	기타	χ^2
남	34.5	5.3	29.4	5.5	11.1	8.2	6.1	*** 28.191
여	25.0	4.4	43.5	6.0	11.4	6.5	3.2	
중학생	32.0	4.6	34.3	5.7	7.7	6.9	8.9	*** 55.381
고등학생	24.1	5.7	36.7	7.5	12.0	11.7	2.1	
대학생	31.5	4.1	40.1	4.1	14.1	3.6	2.5	
전체	29.3	4.8	37.1	5.7	11.3	7.3	4.5	

* $p < 0.05$ ** $p < 0.01$ *** $p < 0.001$

또한 신분에 있어서도 ‘문화·예술’분야의 경우에는 대학생(40.1%) 집단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반면, ‘정치·사회’분야의 경우에는 중학생(32.0%) 집단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4)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일본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는 다음의 <표 III-64>에 나타난바와 같이, 40.9%의 학생들이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별로 혹은 전혀 없다’라고 응답했고, 40.5%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표 III-64> 일본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많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4.4	16.4	38.0	23.4	17.8	* 10.400
여	2.6	14.2	42.6	27.7	13.0	
중학생	2.5	11.7	43.0	27.1	15.6	*** 37.429
고등학생	1.5	13.3	39.5	25.0	20.8	
대학생	6.1	20.4	38.8	25.1	9.6	
전체	3.4	15.2	40.5	25.7	15.2	

* $p < 0.05$ ** $p < 0.01$ *** $p < 0.001$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혹은 전혀 없다’는 응답은 고등학생(45.8%), 중학생(42.7%), 대학생(34.7%) 순이었고, ‘매우 혹은 약간 많다’는 응답은 대학생(26.5%), 고등학생(14.8%), 중학생(14.2%) 순이었다.

2) 역사교육의 목적 및 교육방법

(1) 역사교육의 필요성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표 III-65>에서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64.3%)가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긍정하였다.

이것은 <표 III-62>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40% 이상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는 ‘학교 수업’을 통해 영향 받는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역사교육이 ‘매우 혹은 약간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대학생(79.9%), 중학생(57.2%), 고등학생(54.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대학생들의 역사교육에 대한 필요의식을 알 수 있다.

<표 III-65>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의 필요성

단위 : %

	매우필요	약간필요	보통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χ^2
남	31.7	35.1	21.8	7.9	3.5	6.254
여	31.7	30.5	27.1	8.4	2.3	
중학생	21.2	36.0	29.6	9.8	3.4	*** 102.218
고등학생	23.5	31.3	28.6	12.7	3.9	
대학생	49.6	30.3	16.3	2.5	1.4	
전체	31.7	32.6	24.7	8.2	2.8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공부의 목적

『역사공부의 주된 목적』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66>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46.3%가 ‘역사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대해 심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역사공부의 목적이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국제관계 이해’를 목적으로 역사를 공부한다는 응답자는 남성(8.2%)에게서 보다 여성(11.8%)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생(13.9%)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6>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공부 목적

단위 : %

	지식교양	전통문화 계승	과거통한 현재이해	역사의식 민족의식	국제관계 이해	기타	x ²
남	26.8	14.7	42.6	4.0	8.2	3.8	** 16.016
여	23.9	10.0	49.5	3.2	11.8	2.7	
중학생	25.7	14.1	48.3	3.1	6.8	2.0	16.840
고등학생	26.7	10.0	41.5	4.5	13.9	3.3	
대학생	23.4	12.1	48.8	3.0	9.9	2.8	
전체	25.2	12.1	46.3	3.5	10.1	2.7	

* p<0.05 ** p<0.01 *** p<0.001

(3)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일본 청소년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III-67>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21.5%만이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역사 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57.5%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표 III-69>의 『역사의식 함양 요인』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

결과에서 교사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전체 46.6%, 대학생 52.8%)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 및 혼란스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공인 교과서를 기초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현재의 교수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역사 수업 중, 학생이 역사적 주제 또는 이슈에 대해 토론과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III-67> 일본 청소년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정도

단위 :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별로 만족하지않음	전혀 만족하지않음	χ^2
남	6.4	17.9	54.3	13.9	7.5	7.480
여	3.7	15.6	60.2	14.5	6.0	
중학생	7.3	16.6	57.6	12.4	6.2	** 24.527
고등학생	3.9	15.6	64.3	10.5	5.7	
대학생	3.6	17.6	51.2	19.6	8.0	
전체	4.9	16.6	57.5	14.3	6.7	

* $p < 0.05$ ** $p < 0.01$ *** $p < 0.001$

(4) 역사수업의 형태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68>과 같다.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가 ‘자주 혹은 가끔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6.3%였으나, ‘별로 혹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가 ‘자주 혹은 가끔 있다’라는 응답은 중학생(31.2%), 고등학생(27.7%), 대학생(23.%)의 순이었다.

이것은 <표 III-67>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즉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역사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 21.5%

(중학생 23.9%, 대학생 21.2%)였던 것을 잘 설명해준다.

학생들 간 및 교사와의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교과서 중심의 교수법은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가 특히 역사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교수법은 종종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역사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역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반대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표 III-68> 일본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단위 : %

	자주있다	가끔있다	모르겠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4.0	23.1	27.1	27.1	24.2	7.083
여	2.4	23.3	25.9	27.6	20.8	
중학생	3.6	24.6	40.6	16.2	14.8	*** 96.665
고등학생	2.7	25.0	25.9	23.5	22.9	
대학생	3.0	20.1	12.9	34.7	29.2	
전체	3.1	23.2	26.4	24.9	22.3	

* $p < 0.05$ ** $p < 0.01$ *** $p < 0.001$

3) 역사의식의 함양 요인 및 발전의식

(1) 역사의식 함양 요인

『역사의식 함양 요인』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69>와 같다. 일본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학교교사’(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역사서적의 등장

인물'(27.2%)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교사'가 자신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대학생(52.8%), 고등학생(44.3%), 중학생(42.3%) 순이었던 반면, '역사서적의 등장인물'이라는 응답은 중학생(34.7%), 고등학생(23.8%), 대학생(23.1%) 순이었다.

<표 III-69> 일본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단위 : %

	학교교사	가족·친척	친구	사극주인공	역사서적 등장인물	기타	χ^2
남	44.6	7.1	3.1	7.3	31.6	6.3	*
여	48.2	11.7	3.0	8.0	23.5	5.7	
중학생	42.3	9.4	1.7	5.4	34.7	6.5	**
고등학생	44.3	9.9	3.6	10.8	23.8	7.5	
대학생	52.8	9.4	3.9	6.9	23.1	3.9	
전체	46.6	9.6	3.1	7.7	27.2	5.9	

* $p < 0.05$ ** $p < 0.01$ *** $p < 0.001$

(2) 자신의 행동과 역사발전의 관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70>과 같다.

<표 III-70>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11.0	20.8	32.8	21.4	13.9	4.864
여	11.2	24.5	31.2	22.8	10.3	
중학생	8.1	20.4	43.4	17.4	10.6	***
고등학생	9.0	23.4	32.4	21.9	13.2	
대학생	16.0	24.6	20.2	27.1	12.2	
전체	11.1	22.8	31.9	22.1	12.0	

* $p < 0.05$ ** $p < 0.01$ *** $p < 0.001$

일본 청소년의 34.1%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은 역사발전과 관계가 ‘별로 혹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33.9%가 ‘매우 혹은 약간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매우 혹은 약간 있다’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40.6%로 중학생(28.5%)과 고등학생(32.4%)보다 많았다. 반면, ‘별로 혹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 역시 대학생의 응답률이 39.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표 III-71>에서와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민중의 힘’(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지도자’가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22.7%였지만, 중학생(26.0%)과 고등학생(24.3%)에 비해 대학생의 경우는 18.2%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식인 및 개혁세력’이라는 생각에는 전체응답자의 12.4%가 지지하였지만, 중학생(11.4%)과 고등학생(10.6%)보다 대학생(14.9%)에게서 다소 지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1>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단위 : %

	정치 지도자	민중	주변국가	지식인 및 개혁세력	종교	기타	x ²
남	25.9	52.2	5.1	11.6	2.1	3.2	7.374
여	20.1	54.9	6.5	13.1	3.2	2.3	
중학생	26.0	50.9	6.9	11.4	1.1	3.7	* 18.769
고등학생	24.3	54.4	6.1	10.6	2.7	1.8	
대학생	18.2	55.6	4.7	14.9	4.1	2.5	
전체	22.7	53.6	5.9	12.4	2.7	2.7	

* p<0.05 ** p<0.01 *** p<0.001

4) 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시각

한중일 삼국에서 역사는 정치, 사회 및 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이슈가 되었고, 전쟁, 침략적 점령 및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이 저지른 행동에 관한 중대 사건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역사적 증거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1)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시각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시각』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72>와 같다.

<표 III-72> 일본 청소년의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단위 : %

	모든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함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함	자나간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 없음	기타	χ^2
남	29.0	41.0	17.7	10.6	1.7	9.149
여	36.0	32.9	18.7	10.3	2.1	
중학생	37.2	37.4	8.9	14.8	1.7	*** 91.544
고등학생	31.4	42.9	12.7	11.5	1.5	
대학생	29.8	30.0	32.5	5.2	2.5	
전체	32.8	36.6	18.3	10.5	1.9	

* $p < 0.05$ ** $p < 0.01$ *** $p < 0.001$

전체 응답자 중 36.6%는 잘못 해석되고 왜곡된 역사가 역사적 증거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2.8%는 역사적 증거가 그릇된 해석 및 왜곡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두 가지 응답은 중학교(성별로는 남녀각각 37.4%, 37.2%) 및 고등학교(성별로는 남녀각각, 42.6%, 31.2%) 응답자들에게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들 수치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학습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대학교 응답자들

(32.5%)은 역사에 대한 두 개의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앞의 두 개 응답(대학교의 경우, 각각 30.0%, 29.8%로 나타남)을 하기 보다는 사회 변화에 따라 역사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2) 자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독창성 여부

『자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독창성 여부』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표 III-73>에서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35.6%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매우 많거나 약간 있다’는 응답도 과반수(5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중학생(40.5%), 고등학생(39.5%), 대학생(27.3%) 순이었고, ‘매우 많다’라는 응답은 대학생(25.9%), 고등학생·중학생(각각 14.8%) 순이었다.

<표 III-73>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남	22.8	30.3	34.4	9.3	3.1	12.072
여	15.1	35.7	36.6	10.3	2.3	
중학생	14.8	36.3	40.5	6.1	2.2	36.353
고등학생	14.8	31.3	39.5	11.4	3.0	
대학생	25.9	32.0	27.3	12.1	2.8	
전체	18.6	33.2	35.6	9.9	2.7	

* $p < 0.05$ ** $p < 0.01$ *** $p < 0.001$

5)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시각

(1) 타국의 역사에 대한 시각

일본 청소년의 역사에 관한 사고방식은 <표 III-74>에 나타난 타국에 대한 역사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반영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표 III-74>에서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30.0%가 ‘다른 나라의 역사논의는 내정간섭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동시에 28.7%의 응답자들이 타국이 자국에 대한 역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의 44.6%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것은 중학생(14.0%)과 고등학생(31.0%)보다 높은 수치였다. 또한 ‘내정간섭이다’라는 응답은 중학생(37.7%)의 수치가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23.8%)이 가장 낮았다.

<표 III-74> 일본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단위 : %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모르겠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χ^2
남	8.1	24.9	40.3	16.2	10.4	*** 32.207
여	4.4	20.7	42.1	27.5	5.3	
중학생	9.3	28.4	48.3	9.8	4.2	*** 90.100
고등학생	3.3	20.5	45.2	23.8	7.2	
대학생	5.5	19.0	30.9	33.3	11.3	
전체	6.1	22.6	41.3	22.4	7.6	

* $p < 0.05$ ** $p < 0.01$ *** $p < 0.001$

(2) 한중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다음의 <표 III-7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에 관해 전체 응답자의 31.1%가 이를 ‘낙관적이다’라고 답했고, 이 수치는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응답자(30.2%)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응답자 중 39.4%는 이를 ‘부정적이다’라고 답했고, 이 수치는 ‘낙관적이다’라고 답한 응답자(29.7%)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한중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입장에는 남성(34.5%)이 여성(28.4%)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동시에 ‘부정적’

입장 역시도 남성(36.1%)이 여성(25.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여자 청소년의 무관심(‘보통이다’ 46.3%)을 볼 수 있다.

<표 III-75> 일본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단위 : %

	매우낙관적	다소낙관적	보통이다	다소부정적	매우부정적	χ^2
남	7.5	27.0	29.5	22.8	13.3	*** 46.739
여	5.1	23.3	46.3	20.7	4.6	
중학생	5.9	27.1	41.6	16.8	8.7	** 27.386
고등학생	6.3	24.5	43.8	19.3	6.0	
대학생	6.3	23.4	30.9	28.7	10.7	
전체	6.1	25.0	38.6	21.7	8.6	

* $p < 0.05$ ** $p < 0.01$ *** $p < 0.001$

(3)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결성의 가능성

일본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 구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76>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42.5%는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sian Union) 구성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불과 10.1%만이 이를 반대하였다.

<표 III-76> 일본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구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적극찬성	약간찬성	그저그렇다	약간반대	적극반대	χ^2
남	21.0	28.5	36.8	8.5	5.2	*** 39.410
여	12.1	28.3	52.4	5.2	1.9	
중학생	12.0	26.9	52.4	5.6	3.1	*** 31.798
고등학생	13.8	25.5	48.6	7.8	4.2	
대학생	22.3	32.5	35.3	6.9	3.0	
전체	16.1	28.4	45.3	6.7	3.4	

* $p < 0.05$ ** $p < 0.01$ *** $p < 0.001$

한중일 삼국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 결성에 대해 무엇보다 대학생 응답자들(54.8%)은 중학생(38.9%)과 고등학생(39.3%)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국민의식

국민의식 및 국가의식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국가와 동일시하는가는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서 청소년과 글로벌화 된 현대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오늘날, 자신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사회와 연관 짓기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자신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일본인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있다.

(1) 국가적 자긍심

『국가적 자긍심』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77>과 같다. 응답자 중 48.4%는 일본인 태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답했다. 또한 특히, 전체 응답자 중 21.5%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응답을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III-77> 일본 청소년이 자국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단위 : %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잘 모르겠다	별로 그렇지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χ^2
남	26.0	24.4	26.5	12.1	11.0	*** 29.797
여	17.8	29.0	33.2	15.3	4.7	
중학생	23.5	27.5	27.2	12.9	9.0	7.983
고등학생	17.5	28.1	32.6	15.1	6.6	
대학생	23.3	25.2	30.7	13.6	7.2	
전체	21.5	26.9	30.1	13.8	7.6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러나 우리는 51.5%(‘잘 모르겠다’고 답한 30.1% 응답자 포함)의 응답자가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일본인으로서 스스로 평가하는 일본인의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의 반응이 명확하게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국민의 장점

『자국민의 장점』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78>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국민의 장점으로 ‘예의바름’(24.9%), ‘친절’(16.5%), ‘근면성’(15.7%), ‘단결심’(12.3%) 등을 꼽았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자국민의 장점으로 ‘예의바름’(23.6%), ‘친절’(19.0%), ‘단결심’(13.9%) 등을 응답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예의바름’(각각 24.2%, 26.9%), ‘근면성’(각각 18.8%, 17.9%), ‘친절’(각각 15.7%, 14.3%) 등을 응답했다.

<표 III-78>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단위 : %

	질서외식	단결심	이해심	예의바름	친절	근면성	끈기	기타
남	11.6	12.5	6.4	22.1	17.6	16.0	12.2	1.7
여	10.1	12.0	6.2	27.5	15.5	15.5	9.5	3.8
중학생	5.9	13.9	9.3	23.6	19.0	11.7	13.7	2.9
고등학생	13.5	11.1	4.6	24.2	15.7	18.8	9.0	3.1
대학생	14.2	11.3	4.2	26.9	14.3	17.9	8.9	2.4
전체	10.8	12.3	6.3	24.9	16.5	15.7	10.8	2.8

* 위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3) 자국민의 단점

『자국민의 단점』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표 III-79>에서와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국민의 단점으로 ‘사치스러움’(40.4%), ‘이기심’(23.5%), ‘성급함’(15.1%) 등을 꼽았다.

<표 III-79>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인의 단점

단위 : %

	성급함	사치스러움	이기심	폭력적	기타
남	16.9	36.1	23.2	17.5	6.3
여	13.4	44.4	23.8	10.0	8.4
중학생	21.5	25.4	23.6	24.7	4.9
고등학생	14.5	43.8	25.0	9.3	7.5
대학생	7.8	55.7	22.1	4.1	10.3
전체	15.1	40.4	23.5	13.6	7.4

* 위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학생 응답자 중 24.7%가 ‘폭력성’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이는 따돌림, 폭력, 마약 복용, 범죄행위 등 교육 및 사회 문제들이 학교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만연해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듯하다.

7) 국가의식

(1) 자국의 국제적 지위

『자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80>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37.0%(대학생 응답자 중 48.5%)가 일본을 ‘선진국’으로 분류한 반면, 나머지는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32.4%) 또는 ‘중진국’(12.4%)이라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국의 국제적 위상은 ‘선진국’(42.6%),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29.3%), ‘잘 모름’(13.1%)의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35.0%), ‘선진국’(32.2%), ‘잘 모름’(15.0%)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III-80>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

단위 : %

	선진국	선진국과 중진국사이	중진국	중진국과 후진국사이	후진국	잘모름	χ^2
남	42.6	29.3	10.0	1.9	3.1	13.1	*** 26.036
여	32.2	35.0	14.5	2.7	0.5	15.0	
중학생	23.9	27.0	15.2	3.9	2.0	28.1	*** 124.167
고등학생	38.5	39.4	11.6	0.9	1.2	8.3	
대학생	48.5	31.4	10.5	1.9	1.9	5.8	
전체	37.0	32.4	12.4	2.3	1.7	14.2	

* $p < 0.05$ ** $p < 0.01$ *** $p < 0.001$

(2)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81>과 같다. 전 세계 국가들 중 일본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일본’(전체의 38.7%, 중학생의 45.4%)으로 나타났고, ‘미국’(17.6%), ‘호주’(12.3%)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영국’(10.4%), ‘프랑스’(6.7%), ‘스위스’(5.9%)가 꼽혔다.

한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국’(1.9%) 및 ‘한국’(0.9%)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 일본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단위 : %

	미국	한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중국	일본	호주	독일	캐나다	χ^2
남	21.6	0.9	8.4	2.9	6.1	2.3	42.1	10.7	3.2	2.0	** 22.726
여	14.3	0.9	12.0	8.3	7.2	1.6	36.0	12.6	3.0	3.0	
중학생	22.7	0.4	5.7	2.8	4.3	1.4	45.4	14.2	2.1	1.1	*** 50.731
고등학생	16.9	1.7	15.3	8.3	7.4	2.1	33.1	10.3	2.1	0.7	
대학생	12.5	0.8	10.9	7.0	8.6	2.3	36.7	12.1	5.1	3.9	
합계	17.6	0.9	10.4	5.9	6.7	1.9	38.7	12.3	3.1	2.6	

* $p < 0.05$ ** $p < 0.01$ *** $p < 0.001$

* 전체 빈도가 높은 10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3) 좋아하는 이유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82>와 같다. 일본 청소년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및 유럽 국가들에 있었다. 이 같은 추세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대다수의 경우, 선호도에 대한 기준이 논리적인 이유보다는 단순하고 감정적 이유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상기 국가들을 선정한 주요 요인이 ‘수려한 자연 경관’(37.9%), ‘우수한 국민성’(11.4%), ‘선진적 복지 제도’(6.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소들은 다음 <표 III-84>에서 언급된 이상적 사회의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자들이 꼽았던 요소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표 III-82> 일본 청소년이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단위 : %

	부자유서	전쟁 때 도와줘서	복지국가 이므로	자연이 아름다워서	국민성이 우수하여	기타	x ²
남	4.4	2.2	5.1	33.1	14.3	40.8	*** 25.164
여	3.6	0.0	7.0	41.9	8.9	38.5	
중학생	4.1	1.8	6.5	38.1	10.6	39.0	5.492
고등학생	4.0	1.0	6.0	39.1	12.6	37.4	
대학생	3.9	0.3	5.9	36.5	11.3	42.1	
전체	4.0	1.0	6.1	37.9	11.4	39.6	

* p<0.05 ** p<0.01 *** p<0.001

(4) 자국의 미래 전망

『자국의 미래 전망』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8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44.5%는 일본의 향후 전망이 현재보다 ‘조금 혹은 훨씬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일본의 미래에 대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일본 사회의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44.5%임에 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0.9%에 그쳤다. 이 같은 우려 섞인 전망을 하는 응

답자의 비중은 대학생의 경우 더욱 증가하여 47.1%에 달했다. 이들은 현재 일본 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 기초하여 일본의 미래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 이들이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경제 여건 악화가 이 같은 일본 사회에 대한 향후 비관적인 전망에 영향을 준 것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83> 일본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

단위 : %

	크게 나아질 것	조금 나아질 것	자금과 비슷할 것	조금 못할 것	훨씬 못할 것	기타	x2
남	7.7	27.4	16.0	28.4	18.0	2.5	*** 24.133
여	3.9	23.6	27.1	25.2	17.5	2.6	
중학생	10.4	27.5	17.4	26.9	15.7	2.2	*** 42.378
고등학생	3.3	29.7	21.3	26.7	16.8	2.1	
대학생	3.0	19.3	27.3	26.4	20.7	3.3	
전체	5.6	25.4	22.0	26.7	17.8	2.6	

* p<0.05 ** p<0.01 *** p<0.001

(5)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84>와 같다.

<표 III-84>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단위 : %

	정치적 안정국가	경제적 부유국가	예술·문화 성숙국가	사회복지 국가	범죄·부패 없는국가	기타
남	19.8	19.5	10.4	17.4	30.3	2.6
여	17.9	16.4	8.0	21.0	34.2	2.5
중학생	20.2	18.7	9.4	18.4	30.3	3.0
고등학생	16.8	18.8	7.2	17.9	37.6	1.7
대학생	18.5	16.1	10.2	21.4	31.2	2.6
전체	18.8	17.8	9.1	19.3	32.4	2.5

* 위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현재 일본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범죄와 부패가 없는 국가’(32.4%), ‘사회복지국가’(19.3%), ‘정치적 안정 국가’(18.8%), ‘경제적 부유국가’(17.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야만적)범죄 행위 건수의 증가로 일본 사회는 폭력 사회로 전락하고 있고, 그 결과, 응답자 중 대다수는 강력한 사회 치안에 기초한 사회의 건설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6) 자국에서 본인의 능력발휘 가능성

『자국에서 본인의 능력발휘 가능성』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85>와 같다.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은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응답자의 수치(전체의 33.6%. 대학생의 36.1%)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24.2%) 보다 높았다.

<표 III-85> 일본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에서의 능력 발휘 가능성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다소적다	매우적다	χ^2
남	9.0	21.8	37.8	18.7	12.6	*** 27.974
여	3.4	15.1	46.0	24.0	11.5	
중학생	5.1	17.7	46.3	15.2	15.7	*** 34.700
고등학생	5.2	15.0	46.0	21.8	12.0	
대학생	7.6	21.6	34.7	27.7	8.4	
전체	6.0	18.2	42.3	21.6	12.0	

* p<0.05 ** p<0.01 *** p<0.001

앞의 <표 III-8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청소년의 44.5%가 향후 일본 사회의 발전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현대 일본 사회에 대한 평가로 인해 응답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이 같은 비판적 평가는 일본 중앙 정부 부처 및 행정 공직자들에게 대해 가지는 응답

자들의 의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II-87, 88> 참조).

8)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1)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86>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29.4%는 사회발전 및 국가정책 진보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한다’라고 답한 반면, ‘헌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30.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헌신을 원한다’라는 응답에 남성(31.8%)이 여성(27.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헌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에 서도 남성(35.4%)이 여성(27.0%)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 37.2%가 ‘헌신을 원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동시에 33.9%가 ‘헌신을 원하지 않다’라고 응답해 의견의 양분됨을 볼 수 있다. 한편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48.6%, 42.0%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86> 일본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단위 : %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남	7.5	24.3	32.8	22.5	12.9	*** 40.586
여	3.0	24.5	45.5	22.1	4.9	
중학생	3.4	22.9	48.6	16.5	8.7	*** 40.297
고등학생	4.5	19.9	42.0	26.0	7.6	
대학생	7.2	30.0	28.9	24.5	9.4	
전체	5.0	24.4	39.7	22.2	8.6	

* $p < 0.05$ ** $p < 0.01$ *** $p < 0.001$

9) 정부에 대한 신뢰

(1)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다수가 향후 일본 사회의 발전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표 III-82). 또한 다수의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 및 정부 관료들의 관료적 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이 같은 비판적 평가는 일본 중앙 정부 부처 및 행정 공직자들에게 가지는 의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87>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0.2%)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라며 판단을 보류한 응답자도 36.3%나 되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대학생(59.1%), 고등학생(49.0%), 중학생(43.3%)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중학생(17.0%), 고등학생(12.4%), 대학생(11.0%)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대학생’임을 알 수 있다.

<표 III-87> 일본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단위 :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남	1.0	14.3	32.6	41.2	10.8	*
여	0.7	11.2	39.4	42.2	6.5	
중학생	0.8	16.2	39.7	36.9	6.4	**
고등학생	1.5	10.9	38.7	39.9	9.1	
대학생	0.3	10.7	30.9	48.2	9.9	
전체	0.9	12.6	36.3	41.7	8.5	21.876

* $p < 0.05$ ** $p < 0.01$ *** $p < 0.001$

(2)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에 대한 일본 청소년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88>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67.2%는 중앙 정부 부처의 행정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기존 법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로부터 중앙 정부 및 중앙 정부 행정 부처 공직자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매우 회의적인 자세가 보인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정부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남성(67.4%)과 여성(67.2%)이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정부 공직자를 ‘신뢰한다’는 응답에서는 남성(16.0%)과 여성(11.4%)의 분포차를 보게 된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정부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학생의 79.2%가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은 68.0%, 중학생은 53.6%가 답하였다. 그 중 특히 대학생 응답자들에게서 매우 강한 비판의식을 볼 수 있다.

<표 III-88> 일본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단위 :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남	1.7	14.3	16.6	34.3	33.1	*** 23.688
여	0.7	10.7	21.4	44.1	23.1	
중학생	1.4	18.4	26.5	35.2	18.4	*** 66.872
고등학생	1.2	9.7	21.1	39.6	28.4	
대학생	0.8	8.8	10.2	44.1	36.1	
전체	1.1	12.4	19.2	39.6	27.7	

* $p < 0.05$ ** $p < 0.01$ *** $p < 0.001$

10) 요약 및 제언

현재 일본 청소년들의 역사 및 정부 인식을 잘 보여주는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역사에 대한 관심과 학교 역사 교육과 교사의 역할

일반적으로 자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의 역사 이해는 국가들 간 우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구축뿐 아니라 자국의 현재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다.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지식과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이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를 뛰어넘어 교육, 사회, 정치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역사에 대해 높은 수준(34.3%) 또는 중간 수준(38.1%)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 수준이 높았던 응답자 중 상당수(42.7%)는 대학생이었다.

또한 <표 III-62>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응답자 10명 중 4명 꼴(42.3%)로 재학 기간 동안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40% 이상, 특히 중학생 응답자 중 2명 중 1명이 학교 교육과 교사가 이들이 역사에 갖는 관심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대다수(64.3%)가 또한 학교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② 학교 역사 교육의 주된 목적과 현시대에서 역사를 보는 방법

역사는 한중일 삼국 모두에서 정치, 사회, 교육 분야에 걸쳐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서 관여한 전쟁, 침략 점령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심각한 쟁점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 III-66>에 나와 있는 학교 역사 교육의 주된 목적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의 46.3%가 역사 교육이 과거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에 대한 심도 깊고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응답했고, 25.2%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해 준다고 답했다.

한편 역사 교육의 목적이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고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자기민족 중심주의나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역사 교육이 유발할 수 있는 민족의식 함양에 관심이 없다고 밝

힌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의 역사 인식에 대한 질문인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에는 <표 III-72>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응답자의 36.6%가 역사적 사실에 따라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답했고, 32.8%가 잘못된 해석이나 왜곡 없이 역사적 사실을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두 그룹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생 응답자들은 상기와 같은 관점과 달리 사회 변화의 과정에 맞춰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32.5%)는 의견을 지지했다.

③ 타국의 역사에 대한 논의가 내정간섭으로 여기질 수 있는지와 이러한 논의가 한중일 간 역사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끼치는 영향

<표 III-74>와 <표 III-75>에서 나타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은 크게 반반으로 ‘긍정적’의견과 ‘부정적’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41.3%와 38.6%로 각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흥미로운 것은 대학생들의 응답이다. 앞서 언급된 역사의 지속보존에 관해 대학생 응답자 중 32.5%가 역사를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재조명해 한다는 생각에 찬성했지만 타국 역사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이들 대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표 III-74>에서 응답자 중 44.6%, 즉 2명 중 1명이 타국 역사에 대한 논의에 찬성했지만, 동시에 24.5%가 자국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타국의 개입에 반대했다.

하지만 한중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대학생 중 39.4%가 그다지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이중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비율도 10.7%에 달했다. ‘매우 혹은 다소 낙관적이다’라고 응답한 29.7%보다 높은 수치다. 대학생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에 관해 ‘보통이다’라는 30.9%와 ‘다소 부정적이다’는 28.7%는 그 어려움을 알기에 나온 조심스러운 응답일 수 있다.

④ 일본 국민이라는 점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정부에 대한 인식

정부와 국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세계화 된 현대 사회와 청소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회로부터 고립되었거나 사회와의 어떠한 연관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 일원으로 맡게 될 역할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I-77>에서 모든 응답자 중 48.4%가 일본인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들 중 21.5%가 특히 강한 자부심을 표시했다. 하지만 51.5%(‘잘 모르겠다’는 30.1%까지 포함해서) 이상의 응답자들이 일본인으로 자부심을 느낄 일이 없다고 답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인으로서의 자아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가 양분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일본이 갖는 위상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체 응답자의 37.0%(대학생 48.5%)가 일본을 세계 선진국 중 하나로 꼽았지만 나머지 응답자들의 의견은 이와 달리 일본을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 또는 중진국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일반적인 일본에 대한 인식에 못 미치는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와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와 관련 있을 수 있다. 총 응답자 중 50.2%가 정부의 정책이 항상 국민과 사회에 이롭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고, 67.3%가 정부 관료들이 국민을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생 응답자들(각 58.1%와 80.2%)이 정부와 관료에 대한 높은 불신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이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표 III-86>에서 응답자의 30.8%가 사회 발전과 정부정책 촉진에 헌신할 ‘의사가 없다’라고, 39.7%가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들 중 대다수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29.4%만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희망했다.

⑤ 청소년이 현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와 미래 일본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

세계화·정보화 사회인 현대사회는 청소년의 일상 삶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심각한 문제도 존재하는데, 그 예가 가상현실에 대한 청소년의 지나친 관심이다.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가상 세계는 현실의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뛰놀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인이나 사회와 아무런 접점이 없는 고립된 청소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에서 극심한 경쟁을 겪게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교육적 상황을 볼 때,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질 것인지 의문이다.

<표 III-85>를 보면 총 응답자 3명 중 1명이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응답(전체 33.6%; 대학생 36.1%)이 긍정적 응답의 24.2%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대다수(44.5%)가 현 상황보다 일본사회가 희망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이보다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일본의 상황이 나빠지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미래 일본사회의 발전을 기대하는 30.9%보다 높은 44.5%로 나타났다. 일본의 앞날을 걱정하는 응답자들의 수치는 대학생의 경우 47.1%로 더욱 높다. 이들은 정부와 관료 등을 포함해 현대 사회를 심각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일본의 앞날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의 경제 불황이 일본사회 미래에 대한 전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응답자들이 미래 사회의 발전과 자신들의 존재, 즉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뚜렷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지 못하고 일본을 선진국이 아닌,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 또는 중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⑥ 결론: 동북아시아 삼국의 문화 평가 및 역사 인식과 관련된 청소년의 의식 파악

상기 설문 조사에서 살펴본 일본 청소년의 응답으로 정부·국가 및 역사(그리고 사회적 삶)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여러 응답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 역사 교육과 교사가 역사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 정도와 역사 공부 동기 부여에 끼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에서 받는 역사 교육의 목적, 내용, 관점이 이들의 역사 인식을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적, 자기민족 중심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닌 민주시민사회 관점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특히 의무 교육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여러 정치적 단계에 걸쳐 나라의 통치 패권을 결정짓는 위정자의 정치적 사상과 정책이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즉, 현대 사회에서 위정자의 정치적 사상과 정책은 통치권 유지에 기여하고 위정자의 권력을 법적으로 정당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교육의 틀을 잡아 왔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학교 역사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목 중 하나로 꼽는다. 국가가 아닌 위정자와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前 일본 학교(또는 역사) 교육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교육 시스템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정치적 상황을 맞고 있다. 군사적 위기 상황에 처한 타국에 자위대를 보내고, 앞서 언급된 대로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잃은 많은 일본 청소년 등과 관련해서 사회를 위한 봉사 정신과 긍정적 애국심을 고양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믿음 하에 현 정부는(민주적 사회 및 교육 설립 촉진을 위해 1947년에 제정된) 일본 헌법과 기본 교육 법 개혁에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前 일본 천황제 下의 끔찍했던 정치 및 사회 시스템을 복구 시킬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사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민주적 정책과 움직임에 대항해 민주시민사회 방향으로 정치발전경로를 유지시킬 중대한 사

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민주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공부할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역사 공부에 대한 관점은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중요하다.

한중일 청소년들 간 상호 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민족성, 문화, 정치 시스템, 사고·행동·생활 방식 등의 차이를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상대의 역사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청소년들의 응답과 관련해서, 이들의 재학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 등 타국의 문화와 역사 공부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평등, 상호 존중, 책임감 등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있어, 새로운 세대인 청소년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인 관점의 공개적 논의를 통해 자국과 타국의 역사와 개별 국가간의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구축해야 한다.

5.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비교

1) 역사에 대한 관심도

(1)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결과는 <표 III-89>와 같다, 세 나라 중 중국 청소년이 ‘매우 많다’(18.4%)와 ‘약간 많다’(37.8%)로 56.2% 정도가 역사에 관심이 높는데 비해, 한국은 두 항목을 합쳐 35.9%, 일본은 34.4%로 두 나라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응

답자들 중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는 경우를 합쳐 한국(25.7%)과 일본(27.3%)에 비해, 중국은 4.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89>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많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한국	9.6	26.3	38.4	21.6	4.1	*** 236.934
중국	18.4	37.8	38.9	3.9	1.0	
일본	9.9	24.5	38.3	21.1	6.2	
전체	12.7	29.5	38.5	15.5	3.8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표 III-90>에서와 같이, 한중일 모두 주로 ‘학교수업’, ‘TV 등 영상매체’, ‘관련서적’등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항은 ‘사회적 사건을 통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항목에서 한국(15.8%)이 일본(5.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90>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단위 : %

	학교수업	가족	TV 등 영상매체	관련서적	박물관 유적지·역사현장	사회적 사건	기타	χ^2
한국	28.9	2.3	31.0	10.7	4.8	15.8	6.5	*** 145.867
중국	30.4	9.3	25.5	15.1	5.5	10.1	4.3	
일본	42.3	4.6	27.1	11.7	4.7	5.3	4.5	
전체	34.2	5.4	27.8	12.5	5.0	10.1	5.0	

* $p < 0.05$ ** $p < 0.01$ *** $p < 0.001$

(3)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는 <표 III-91>과 같이 가장 관심 있는 두 분야는 세 나라 모두 ‘문화·예술’과 ‘정치·사회’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이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를 11.3%라고 응답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은 각각 5.8%와 4.8%에 그쳤다. 또한 일본의 청소년들이 ‘사상’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를 11.3%로答한 반면, 중국은 5.5%, 한국은 2.7%로 다소 비교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91>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단위 : %

	정사사회	경제	문화예술	외교	사상	법제도	기타	χ^2
한국	21.7	11.3	43.1	11.2	2.7	6.1	3.6	*** 183.436
중국	39.5	5.8	35.1	5.5	5.5	3.9	4.8	
일본	29.3	4.8	37.1	5.7	11.3	7.3	4.5	
전체	30.3	7.2	38.3	7.4	6.7	5.8	4.4	

* $p < 0.05$ ** $p < 0.01$ *** $p < 0.001$

(4)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역사에 대한 관심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결과는 <표 III-92>와 같다. 나타난 결과에서 특이 사항은 중국 청소년들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가 ‘매우 많다’(16.4%)와 ‘약간 많다’(34.9%)로 51.3% 정도가 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두 항목을 합쳐 24.5%, 일본은 18.6%에 불과하였다.

또한 향토사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라는 응답에서 한국이 44.5%, 일본이 40.9%임과 비교할 때, 중국은 8.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92> 한중일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많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한국	3.8	20.7	30.9	36.1	8.4	*** 533.022
중국	16.4	34.9	40.1	7.4	1.2	
일본	3.4	15.2	40.5	25.7	15.2	
전체	7.9	23.5	37.4	22.8	8.4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교육의 목적 및 교육 방법

(1) 역사교육의 필요성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93>에서와 같이 각 항목별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특이 사항은 한국과 중국청소년들이 역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의견에 각각 3.9%와 2.8%의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일본 청소년들은 11%의 비교적 높은 응답률 보이고 있는 점이다.

<표 III-93>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 필요성

단위 : %

	매우필요	약간필요	보통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χ^2
한국	44.5	37.7	14.0	3.0	.9	*** 288.754
중국	62.6	26.7	7.8	1.3	1.5	
일본	31.7	32.6	24.7	8.2	2.8	
전체	45.9	32.2	15.8	4.3	1.8	

* $p < 0.05$ ** $p < 0.01$ *** $p < 0.001$

(2) 역사공부의 목적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을 묻는 항목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III-94>와 같다. 한국(36.3%)과 일본(33.3%)의 청소년들이 역사공부의 목적을 ‘과거를 통해 현재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라고 응답한 반면, 중국(31.9%)의 청소년들은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라고 답하였다.

<표 III-94>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공부 목적

단위 : %

	지식교양	전통문화 계승	과거통한 현재이해	역사의식 민족의식	국제관계 이해	기타	x ²
한국	15.1	16.7	36.3	20.6	10.0	1.3	*** 414.945
중국	26.8	13.5	16.1	31.9	8.5	3.2	
일본	25.2	12.1	46.3	3.5	10.1	2.7	
전체	22.6	14.0	33.3	18.1	9.5	2.4	

* p<0.05 ** p<0.01 *** p<0.001

또 다른 특이 사항은 한국(15.1%)의 청소년들의 역사교육 목적으로 ‘지식 습득과 교양을 쌓기 위함’이 중국(26.8%)과 일본(25.2%)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3.5%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 문항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95>와 같다. 조사결과는 한중일 모두 ‘보통이다’와 ‘약간 만족 한다’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각 항목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이사항은 자신이 받고 있는 역사교육에 ‘별로 만족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결과가 한국이 24.9%로 중국의 17.6%와 일본의 14.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이다.

<표 III-95>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χ^2
한국	3.9	16.9	45.5	24.9	6.1	*** 81.703
중국	8.7	22.7	45.3	17.6	5.7	
일본	4.9	16.6	57.5	14.3	6.7	
전체	5.9	19.6	49.7	18.7	6.2	

* $p < 0.05$ ** $p < 0.01$ *** $p < 0.001$

(4) 역사수업의 형태

『역사시간에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이 이루어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 문항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96>과 같다.

조사결과의 특이 사항은 중국의 경우 ‘가끔씩 있다’는 응답이 48.7%로 한국의 20.0%와 일본의 23.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역사시간에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이 이루어진 정도는 ‘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을 합쳐 중국은 16.5%인 것과 비교할 때, 한국(58.4%)과 일본(47.2%)의 결과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III-96>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단위 : %

	자주있다	가끔있다	모르겠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한국	2.4	20.0	18.2	34.6	24.8	*** 426.162
중국	5.9	48.7	29.0	10.4	6.1	
일본	3.1	23.2	26.4	24.9	22.3	
전체	3.8	30.6	24.7	23.1	17.7	

* $p < 0.05$ ** $p < 0.01$ *** $p < 0.001$

3) 역사의식의 함양 요인 및 발전의식

(1) 역사의식 함양 요인

『역사의식 함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II-97>과 같다. 한국 청소년의 42.4%와 일본의 46.6%가 ‘학교교사’를 자신의 역사의식 함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국 청소년의 31.4%는 ‘역사서적 등장인물’을 첫 번째 영향요인으로 꼽았다.

<표 III-97>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단위 : %

	학교교사	가족·친척	친구	사극주인공	역사서적 등장인물	기타	x ²
한국	42.4	10.0	2.8	15.7	22.1	7.1	*** 179.500
중국	27.9	20.4	5.4	12.6	31.4	2.3	
일본	46.6	9.6	3.1	7.7	27.2	5.9	
전체	39.1	13.3	3.8	11.8	27.0	5.1	

* p<0.05 ** p<0.01 *** p<0.001

한편, 중국 청소년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의 영향요인이 20.4%인 반면, 한국은 10.0%, 일본은 9.6%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사극의 주인공’이라는 응답이 각각 15.7%와 12.6%인데 비해 일본은 7.7%를 나타내고 있다.

(2) 자신의 행동과 역사발전의 관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역사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98>과 같다. 한국 청소년의 41.3%, 일본 청소년의 33.9%는 ‘매우 많다’와 ‘약간 있다’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중국 청소년의 경우 17.7%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청소년의 경우 ‘별로 없다’는 의견이 38.6%로 다른 나라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12.0%로, 한국(5.4%)과 중국(6.4%)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98>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한국	11.7	29.6	31.0	22.3	5.4	*** 196.483
중국	6.8	10.9	37.4	38.6	6.4	
일본	11.1	22.8	31.9	22.1	12.0	
전체	9.8	20.9	33.5	27.7	8.1	

* $p < 0.05$ ** $p < 0.01$ *** $p < 0.001$

(3)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표 III-99>에서와 같이, 한중일 청소년들 모두 ‘민중의 힘’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지도자’와 ‘지식인 혹은 개혁세력’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국가’와 ‘종교’라는 응답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II-99>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단위 : %

	정치지도자	민중의 힘	주변국가	지식인 및 개혁세력	종교	기타	χ^2
한국	15.5	62.1	3.7	15.4	1.7	1.7	*** 48.092
중국	19.2	57.3	2.5	15.2	2.0	3.8	
일본	22.7	53.6	5.9	12.4	2.7	2.7	
전체	19.3	57.5	4.1	14.2	2.1	2.8	

* $p < 0.05$ ** $p < 0.01$ *** $p < 0.001$

4) 역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시각

(1)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기 위한 문항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100>과 같다.

<표 III-100>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단위 : %

	모든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어야함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 되어야 함	지나간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 없음	기타	x ²
한국	19.3	55.7	20.8	3.8	.4	*** 187.897
중국	25.6	58.2	12.9	2.1	1.2	
일본	32.8	36.6	18.3	10.5	1.9	
전체	26.7	49.6	17.3	5.6	1.2	

* p<0.05 ** p<0.01 *** p<0.001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는 항목에 3국이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한국 청소년의 55.7%와 중국 청소년의 58.2%가 응답한데 비해,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두 나라에 비해 낮은 36.6%로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중국 청소년의 경우 ‘역사는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되어야한다’는 의견이 12.9%로 한국(20.8%)과 일본(18.3%)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한 일본 청소년은 ‘지나간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다’라는 질문에 10.5%의 응답률을 보여, 한국(3.8%)과 중국(2.1%)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2) 자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독창성 여부

『다른 나라에 비해 자국의 민족 문화가 어느 정도 독창성을 갖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많다’는 항목에 한국 청소년 38.5%, 중국 46.5%로 매우 높은 수치인데 비해, 일본 청소년들은 18.6%에 불과하였다. 일본 청소년들은

주로 ‘보통이다’(35.6%)와 ‘약간 있다’(33.2%)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국 청소년의 4.4%만이 민족문화의 독창성이 ‘별로 혹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의 9.3%와 일본의 12.6%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기타의 응답결과는 <표 III-101>에서와 같다.

<표 III-101>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χ^2
한국	38.5	37.7	14.5	8.2	1.1	*** 305.155
중국	46.5	34.6	14.6	3.9	.5	
일본	18.6	33.2	35.6	9.9	2.7	
전체	34.0	35.0	22.1	7.4	1.5	

* $p < 0.05$ ** $p < 0.01$ *** $p < 0.001$

5) 동북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시각

(1) 타국의 역사에 대한 시각

『다른 나라 역사에 관한 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II-102>와 같다. 다른 나라 역사에 관한 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의견에 ‘정말 혹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한국(29.3%)과 일본(28.7%) 청소년의 경우 매우 비슷한 수치인데 비해, 중국 청소년은 17.2%로 다소 낮았다. 또한 중국 청소년의 45.5%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데 비해, 한국은 25.3%, 일본은 22.4%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표 III-102>에서와 같이 세 나라 청소년들의 30% 이상이 모두 ‘모르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신세대들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02> 한중일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단위 : %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모르겠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χ^2
한국	5.9	23.4	34.3	25.3	11.2	*** 183.236
중국	3.6	13.6	33.6	45.5	3.7	
일본	6.1	22.6	41.3	22.4	7.6	
전체	5.2	19.9	36.6	31.0	7.4	

* $p < 0.05$ ** $p < 0.01$ *** $p < 0.001$

(2) 한중일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앞으로 한중일 3국의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질문에 세 나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103>과 같다.

<표 III-103> 한중일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단위 : %

	매우낙관적	다소낙관적	보통이다	다소부정적	매우부정적	χ^2
한국	3.9	22.4	22.7	39.8	11.2	*** 183.236
중국	13.4	36.4	31.1	8.1	10.9	
일본	6.2	25.0	38.6	21.7	8.6	
전체	7.9	28.0	31.2	22.7	1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 결과 중국 청소년의 13.6%가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6.2%, 한국은 3.9% 만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중일 3국간 역사문제 해결의 전망을 ‘다소 혹은 전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청소년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30.3%, 중국은 19%로 매우 대조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결성의 가능성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sia Union)을 구성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질문에 세 나라 청소년들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53.5%와 중국의 53.1%의 청소년들이 ‘적극 혹은 약간 찬성’한다는 의견에 비해, 일본은 다소 낮은 44.5%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청소년의 45.3%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한국과 중국에 비해 아시아 국가연합 구성에 다소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기타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I-104>와 같다.

<표 III-104> 한중일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구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적극찬성	약간찬성	그저그렇다	약간반대	적극반대	χ^2
한국	22.8	40.7	28.0	5.1	3.3	*** 87.175
중국	22.2	30.9	34.4	8.0	4.4	
일본	16.1	28.4	45.3	6.7	3.4	
전체	20.2	33.0	36.4	6.7	3.7	

* $p < 0.05$ ** $p < 0.01$ *** $p < 0.001$

6) 국민의식

(1) 국가적 자긍심

『자신이 한국(중국,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세 나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105>와 같다. 중국 청소년의 60.0%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37.7%, 일본은 21.5%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한 결과이다. 또한 일본 청소년의 30.1%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 하거나 ‘별로 혹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도 21.4%나 되었다. 이는 한국의 9.6%와 중국의 5.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05> 한중일 청소년의 자국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단위 : %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잘모르겠다	별로 그렇지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χ^2
한국	37.7	39.7	13.0	7.5	2.1	*** 485.800
중국	60.0	24.7	10.3	2.1	2.9	
일본	21.5	26.9	30.1	13.8	7.6	
전체	39.2	30.1	18.3	8.0	4.4	

* $p < 0.05$ ** $p < 0.01$ *** $p < 0.001$

(2) 자국민의 장점

『한국(중국, 일본)인의 성품 중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만든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Ⅲ-106>과 같다.

분석결과 상위 세 가지를 순서대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단결심’(35.8%), ‘끈기’(17.5%), ‘근면성’(16.1%)이며, 중국은 ‘근면성’(20.9%), ‘예의바름’(20.5%), ‘끈기’(17.4%)로 나타났고, 일본은 ‘예의바름’(24.9%), ‘친절’(16.5%), ‘근면성’(15.7%)으로 제시되었다.

<표Ⅲ-106>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단위 : %

	질서의식	단결심	이해심	예의바름	친절	근면성	끈기	기타
한국	3.0	35.8	3.9	13.6	7.7	16.1	17.5	2.4
중국	3.9	16.9	6.3	20.5	6.9	20.9	17.4	4.6
일본	10.8	12.3	6.3	24.9	16.5	15.7	10.8	2.8
전체	6.5	22.2	5.4	19.9	11.2	17.0	14.6	3.0

* 위의 한국과 일본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특이한 점은 일본의 ‘질서의식’이 10.8%인데 비해, 한국은 3.0%, 중국은 3.9%로 매우 대조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단결심’이 35.8%

인데 비해, 중국은 16.9%, 일본은 12.3%에 불과하였으며, 일본이 ‘친절함’에 16.5%인 반면, 한국은 7.7%, 중국은 6.9%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자국민의 단점

『한국(중국, 일본)인의 성품 중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지』를 비교하기 위한 질문에 세 나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107>과 같다.

<표 III-107>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단점

단위 : %

	성급함	사치스러움	이기심	폭력적	기타
한국	45.7	13.0	27.9	9.0	4.4
중국	12.5	11.6	57.4	2.8	15.6
일본	15.1	40.4	23.5	13.6	7.4
전체	25.4	23.1	33.9	9.2	8.5

* 위의 한국과 일본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성급함’(45.7%)이 일본(15.1%)과 중국(12.5%)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중국은 ‘이기심’(57.4%)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사치스러움’(40.4%)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단점은 한국(27.9%)과 일본(23.5%)은 ‘이기심’이고 중국은 기타 낭비벽 혹은 자만심과 같은 ‘기타’(15.9%) 사항 이었다.

그 밖에 ‘폭력적’성향에 대해 일본은 13.6%, 한국이 9.0%인데 비해, 중국은 2.8%로 대조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7) 국가의식

(1) 자국의 국제적 지위

『한국(중국,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

는 질문에 세 나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II-108>과 같다. 일본 청소년의 37%가 ‘선진국’이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5.8%, 일본은 2.7%로 매우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79.6%, 중국의 88.8%가 자국의 지위수준을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 혹은 중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이사항은 일본 청소년의 14.1%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점은 자국의 국제적 지위 수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8>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

단위 : %

	선진국	선진국과 중진국사이	중진국	중진국과 후진국사이	후진국	잘모름	χ^2
한국	5.8	54.4	25.2	7.9	4.2	2.4	*** 960.532
중국	2.7	41.0	47.8	5.6	2.3	0.7	
일본	37.0	32.4	12.4	2.3	1.7	14.1	
전체	15.9	42.1	28.1	5.1	2.7	6.1	

* $p < 0.05$ ** $p < 0.01$ *** $p < 0.001$

(2)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

『한국(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비교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II-109>와 같다. 먼저 한국의 27.3%, 중국의 30.7%, 일본의 38.7% 청소년들은 각각 ‘자기 나라’를 가장 좋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3국 청소년들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청소년의 16.0%가 ‘미국’, 13.6%가 ‘스위스’, 9.0%가 ‘영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국 청소년은 15.9%가 ‘미국’, 10.2%가 ‘스위스’, 8.9%가 ‘독일’이라고 답하였다. 일본 청소년은 17.6%가 ‘미국’, 12.3%가 ‘호주’, 10.4%가 ‘영국’이라고 대답하였다. 세 나라 청소년의 16.5% 정도가 모두 ‘자기 나라’를 제외한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나라를 ‘미국’이라고 응답한 점이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표 III-109> 한중일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단위 : %

	미국	한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중국	일본	호주	독일	캐나다	χ^2
한국	16.0	27.3	9.0	13.6	6.8	2.1	6.5	8.4	4.1	5.9	*** 1093.578
중국	15.9	6.0	5.8	10.2	10.7	30.7	4.8	0.0	8.9	7.0	
일본	17.6	0.9	10.4	5.9	6.7	1.9	38.7	12.3	3.1	2.6	
전체	16.5	11.1	8.5	9.9	8.0	11.2	17.4	7.1	5.3	5.1	

* $p < 0.05$ ** $p < 0.01$ *** $p < 0.001$

* 전체 빈도가 높은 10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3) 좋아하는 이유

『한국(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와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를 비교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II-110>과 같다.

<표 III-110> 한중일 청소년의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단위 : %

	부자여서	전쟁 때 도와줘서	복지국가 이므로	자연이 아름다워서	국민성이 우수하여	기타	χ^2
한국	8.2	1.7	13.0	28.4	22.4	26.3	*** 281.418
중국	7.4	2.8	5.9	32.5	34.9	16.4	
일본	4.0	1.0	6.1	37.9	11.4	39.6	
전체	6.5	1.8	8.2	33.1	22.7	27.7	

* $p < 0.05$ ** $p < 0.01$ *** $p < 0.001$

먼저 한국의 28.4%와 일본의 37.9% 청소년들은 ‘자연이 아름다워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중국 청소년의 34.9%는 ‘국민성이 우수하여’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13.0%가 ‘복지국가 이므로’라고 답한데 비해, 중국의 5.9%, 일본의 6.1% 청소년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 밖에 상당한 수치의

응답이 기타로 나타나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4) 자국의 미래전망

『한국(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묻는 조사 결과는 <표 III-111>과 같다.

<표 III-111> 한중일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

단위 : %

	크게 나아질 것	조금 나아질 것	지금과 비슷할 것	조금 못할 것	훨씬 못할 것	기타	χ^2
한국	32.5	42.2	14.2	6.9	3.0	1.2	*** 1146.192
중국	62.5	25.8	6.8	1.8	1.2	1.8	
일본	5.6	25.4	22.0	26.7	17.8	2.6	
전체	32.9	30.7	14.5	12.3	7.7	1.9	

* $p < 0.05$ ** $p < 0.01$ *** $p < 0.001$

먼저 중국 청소년의 62.2%와 한국의 32.7%는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다’라고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보인 반면, 일본의 5.6% 청소년들만이 이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조사한 자신의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본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한편, 일본 청소년들이 자국의 미래전망에 대해 크게 낙관적이지 못한 견해가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42.2%가 ‘지금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데 비해, 중국의 25.8%, 일본의 25.4%와 다소 비교되는 수치이다. 특히 일본 청소년의 44.5%가 ‘지금보다 조금 혹은 훨씬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것은 한국의 9.9%와 중국의 3.0%에 비해 자국의 미래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나타난 결과로 보아 중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미래에 대한 가장 희망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발전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청소년들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이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 3국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한국(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II-112>와 같다.

<표 III-112>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

단위 : %

	정치적 안정국가	경제적 부유국가	예술·문화 성숙국가	사회복지 국가	범죄·부패 없는국가	기타
한국	21.9	20.4	12.9	23.2	20.2	1.4
중국	23.1	21.0	18.3	18.2	16.4	3.0
일본	18.8	17.8	9.1	19.3	32.4	2.5
전체	21.6	19.9	14.3	19.7	22.1	2.5

* 위의 DATA는 다중응답 한 것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것임

먼저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에 한국(23.2%), 일본(19.3%), 중국(18.3%)의 응답률을 보였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는 중국(23.1%), 한국(21.9%), 일본(18.8%)의 응답률을 보였다. 역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중국(21.0%), 한국(20.4%), 일본(17.8%) 등으로 앞의 세 항목은 비슷한 결과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범죄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에서 일본(32.4%)이 가장 높고 한국(20.2%), 그리고 중국(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범죄와 부정부패가 중국에 비해 높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반영과 함께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부정부패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거나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예술·문화가 성숙한 나라’에 대해서는 중국 청소년들이 18.3%로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한국은 12.9%, 일본은

9.1%로 다소 비교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6) 자국에서 본인의 능력 발휘 가능성

『한국(중국, 일본)에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질문에 세 나라 청소년들 모두 ‘보통이다’는 의견이 각각 31.4%, 43.7%, 42.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자국에서 본인의 능력발휘 기회가 ‘매우 많다’라는 생각에 중국의 12.1%와 일본의 6.0%가 동의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매우 적다’는 의견이 중국은 3.9인데 비해 일본은 12.9%로 다소 비교되는 수치이다.

이 결과는 앞서 제시된 <표 III-111>의 자국의 미래전망 분석결과와도 일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중국의 15.2%에 비해 33.2%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발휘 기회가 ‘다소 적거나 매우 적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113>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에서의 능력 발휘 가능성

단위 : %

	매우많다	약간있다	보통이다	다소적다	매우적다	χ^2
한국	9.8	25.8	31.4	25.4	7.7	*** 161.086
중국	12.1	29.0	43.7	11.3	3.9	
일본	6.0	18.2	42.3	21.6	12.0	
전체	9.2	24.1	39.4	19.3	8.0	

* $p < 0.05$ ** $p < 0.01$ *** $p < 0.001$

8) 국가에 대한 헌신의지

(1) 국가 위기 시 행동의지

『한중 청소년들에게 만약 국가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동 할 것인지』를 묻는 조사 결과는 <표 III-114>와 같다.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표현한 청소년은 중국이 14.4%, 한국은 10.2%였다. 또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한국이 34.4%, 중국은 24.6%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에는 중국 청소년의 55.7%가 동의하였으며, 한국은 30.8%였다.

특히 ‘일단 몸을 피하겠다’는 항목에서 한국은 13.2%, 중국은 1.5%로 나타난 점과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생각에 한국청소년의 10.4%가 동의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2.3%였다.

특히 이 질문은 일본 공동연구자가 자국의 평화헌법에 근거한 교육체계상 민감한 사안임을 사전에 표명하였으며, 대체문항 작성을 위한 상호 협의과정에서 의미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국제세미나 이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변경된 일본의 조사문항과 한국과 중국의 질문 내용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문항에 대한 일본의 조사내용은 최종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

<표 III-114> 한중 청소년의 국가 전쟁 시 행동

단위 : %

	앞장서서 싸움	상황 보며 결정	일단 몸을 피함	외국으로 출국	할 수 있는 역할수행	기타
한국	10.2	34.4	13.2	10.4	30.8	1.0
중국	14.4	24.6	1.5	2.3	55.7	1.5

(2)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한중일의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묻는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III-115>와 같다. 먼저 한국 청소년의 35.9%와 중국의 40.1%가 ‘대체로 그렇다’인데 비해, 일본은 24.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청소년의 13.1%는 항상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8.5%, 일본은 5.0%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중국 청소년의 18.3%가 ‘절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일본의 8.6%와 한국의 4.8%와 명료하게 비교 되는 결과이다.

<표Ⅲ-115> 한중일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단위 : %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한국	8.5	35.9	41.7	9.1	4.8	*** 339.361
중국	13.1	40.1	20.8	7.7	18.3	
일본	5.0	24.4	39.7	22.2	8.6	
전체	8.8	33.2	34.0	13.3	10.6	

* $p < 0.05$ ** $p < 0.01$ *** $p < 0.001$

9) 정부에 대한 신뢰

(1)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한중일의 청소년들에게 정부는 항상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 결과는 <표 Ⅲ-116>과 같다.

<표 Ⅲ-116> 한중일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단위 :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한국	0.9	9.0	26.9	19.1	24.1	*** 1390.841
중국	6.5	70.3	13.5	3.4	6.3	
일본	0.9	12.6	36.3	41.7	8.5	
전체	2.8	30.8	25.8	28.1	12.5	

* $p < 0.05$ ** $p < 0.01$ *** $p < 0.001$

먼저 중국 청소년의 70.3%가 ‘대체로 그렇다’인데 비해, 일본은 12.6%, 한국은 9.0%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매우 그렇다’는 항목에도 중국은 6.5%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0.9%로 조사되어 매우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을 ‘절대로 신뢰 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의

24.1%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6.3%와 일본은 8.5%로써 한국청소년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극도로 높게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일본 청소년의 경우도 41.7%가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점은 한국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에 대한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한중일의 청소년들에게 정부의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믿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 결과는 <표 III-117>과 같다. 먼저 중국 청소년의 44.5%가 ‘대체로 그렇다’인데 비해, 일본은 12.4%, 한국은 4.3%를 나타내고 있어, 앞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항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매우 그렇다’는 항목에도 중국은 5.6%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0.8%, 1.1%로 나타나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공직자들을 ‘대체로 혹은 절대로 신뢰 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의 82.1%와 일본 청소년은 67.3%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18.1% 에 불과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한국 청소년들의 불신감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일본 청소년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외부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과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17> 한중일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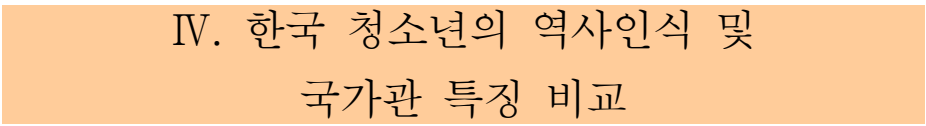
단위 :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χ^2
한국	0.8	4.3	12.7	37.1	45.0	*** 988.527
중국	5.6	44.5	31.9	10.6	7.5	
일본	1.1	12.4	19.2	29.6	27.7	
전체	2.5	20.6	21.4	29.2	26.3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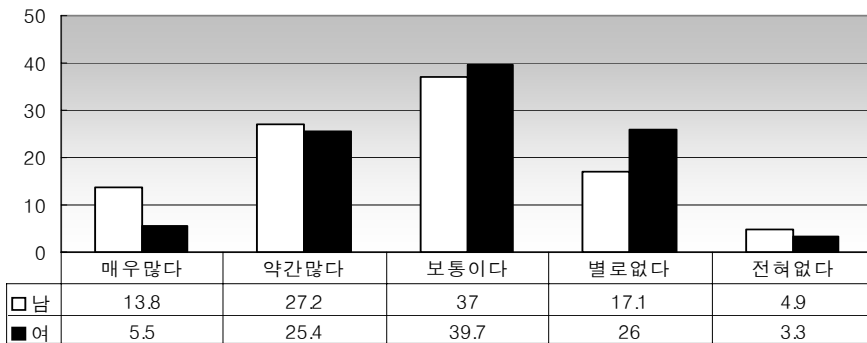
IV. 한국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특징 비교



IV. 한국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특징 비교

(1) 역사에 흥미나 관심 정도에 관한 남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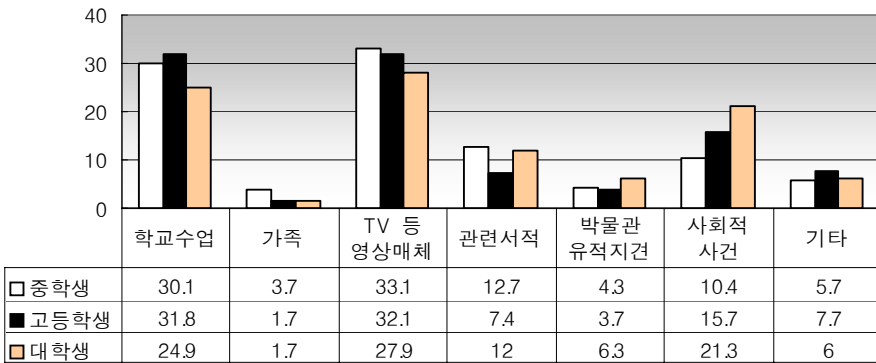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에 관한 남녀비교에서 관심 정도가 ‘매우 많다’라고 응답한 남학생(13.8%)이 여학생(5.5%)보다 많았으며, ‘별로 없다’라는 응답은 남학생(17.1%), 여학생(26%)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역사에 흥미나 관심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2)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관한 중·고·대학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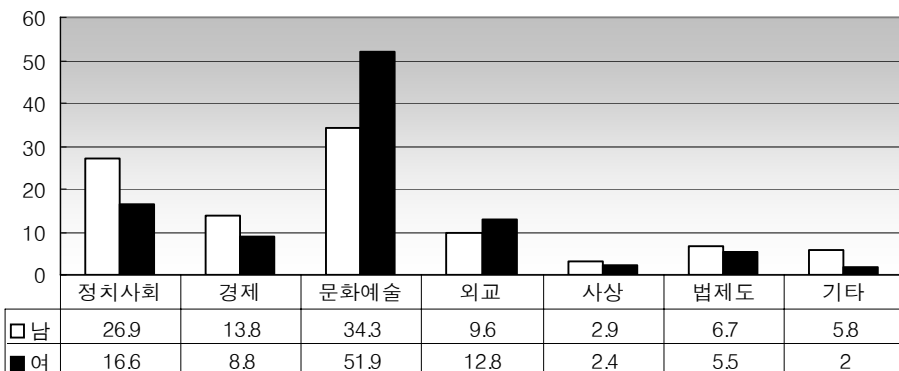
중학생(33.1%), 고등학생(32.1%), 대학생(27.9%) 모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가 ‘TV 등 영상매체’에 의해서라고 답하였으며, ‘학교수업’을 통해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은 대학생(24.9%)에 비해 중학생(30.1%)과 고등학생(31.8%)이 약간 높았다. 반면 ‘사회적 사건’을 통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응답은 대학생(21.3%), 고등학생(15.7%), 중학생(1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3)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남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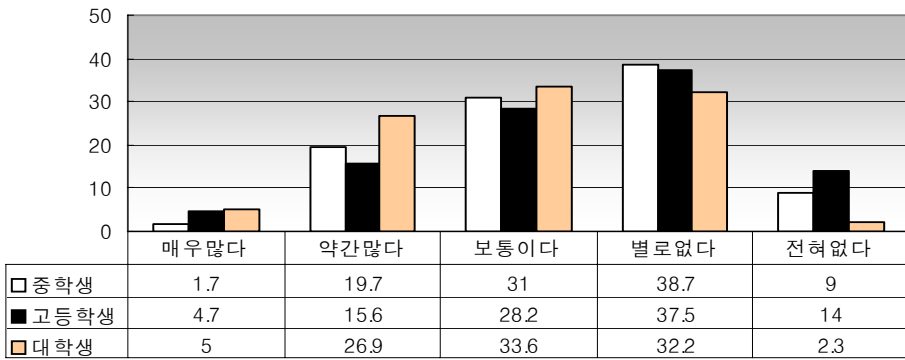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관심 있는 역사분야를 살펴보면, 여성(51.9%)이 남성(34.3%)보다 ‘문화·예술’분야에 역사적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남성(26.9%)이 여성(16.6%)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분야에서도 남성(13.8%)이 여성(8.8%)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3] 한국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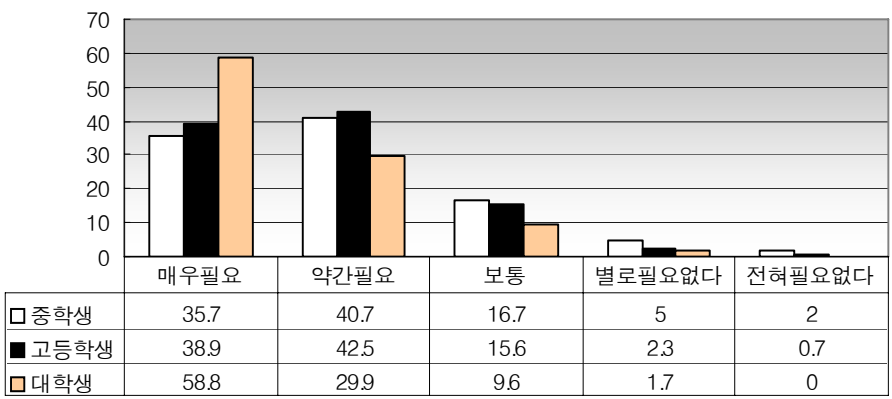
(4) 지역 향토사에 대한 중·고·대학생의 관심 정도 비교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대학생(31.9%), 중학생(21.4%), 고등학생(2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점은 대학생(2.3%)과 중학생(9.0%)에 비해 다소 많은 고등학생(14.0%)이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4] 한국 청소년의 지역 향토사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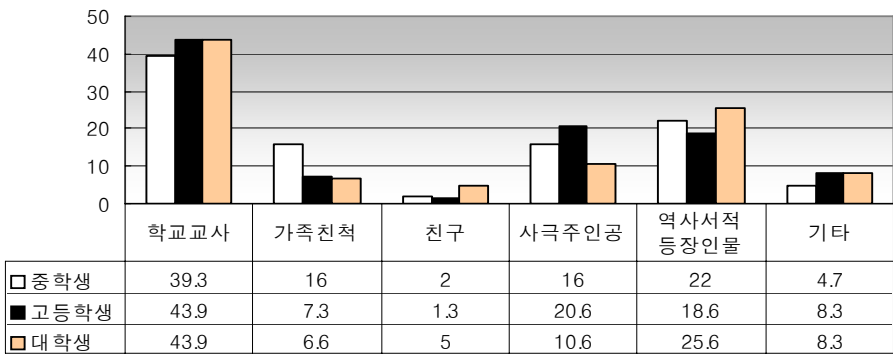
(5) 역사교육의 필요성



[그림 IV-5]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교육의 필요성

전체 청소년의 82.2%가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4.5%의 청소년이 역사교육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신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35.7%)보다 고등학생(38.9%)이, 고등학생보다 대학생(58.8%)이 더 역사교육의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역사의식 함양 요인



[그림 IV-6] 한국 청소년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남학생의 역사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 사람은 ‘학교교사’(39.6%), ‘역사서적 등장인물’(26.5%), ‘사극주인공’(13.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교사’(45.0%), ‘사극주인공’(18.3%), ‘역사서적 등장인물’(17.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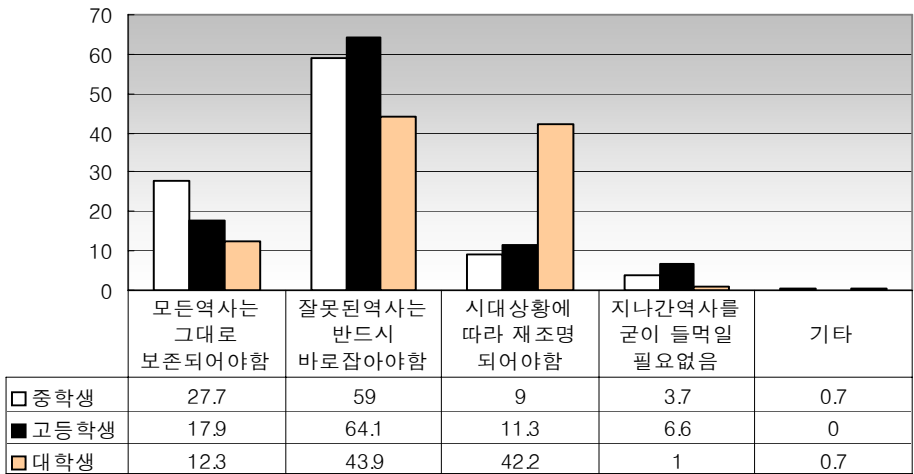
‘사극의 주인공’에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는 고등학생(20.6%)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16.0%), 대학생(10.6%) 순으로 나타났다.

(7) 역사 지속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중·고·대학생 의견 비교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55.7%는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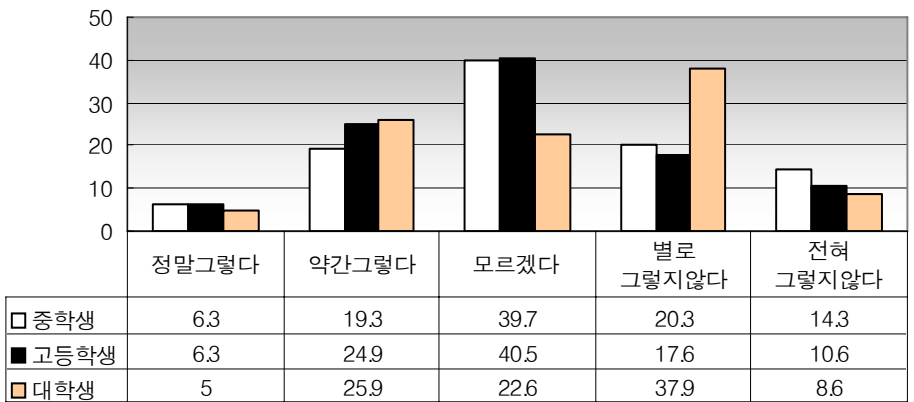
한편 고등학생 64.1%와 중학생 59.0%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대학

생들은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43.9%)와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 되어야 한다’(42.2%)로 의견이 양분되었다.



[그림 IV-7] 한국 청소년의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8) 타국의 역사에 대한 중·고·대학생 시각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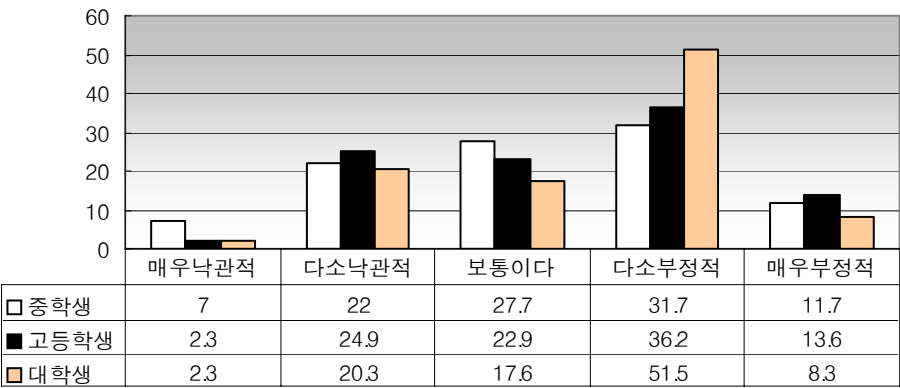


[그림 IV-8] 한국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한 논의가 내정간섭이다』라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의견이 평균 34.3%로 가장 많았다. 신분에 따른 차이는 중학생(39.7%)과 고등학생(40.5%)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반면, 대학생(37.9%)은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9) 한중일 간 역사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중·고·대학생 시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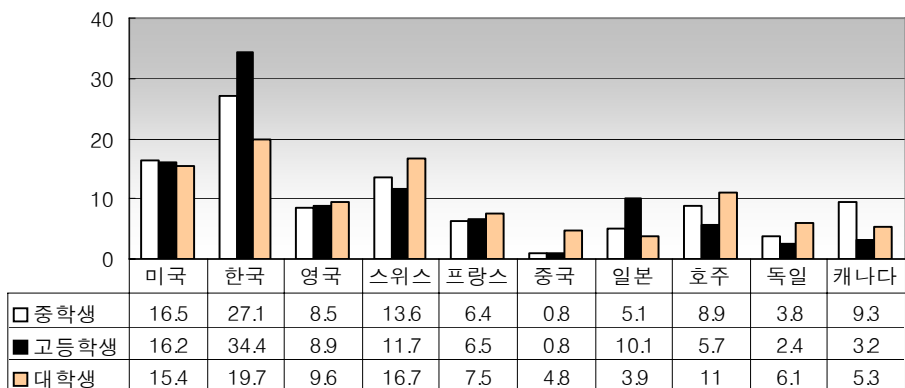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중학생 31.7%, 고등학생 36.2%에 비해, 대학생의 51.5%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9] 한국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10)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에 대한 중·고·대학생 의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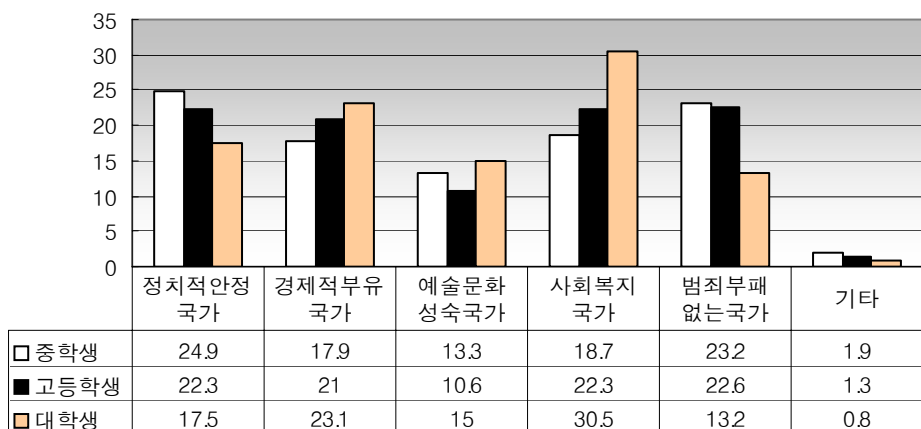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고등학생의 34.4%, 중학생의 27.1%, 대학생의 19.7%가 한국을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스위스’, ‘영국’, ‘호주’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그룹 중 고등학생이 ‘일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중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10] 한국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11)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에 대한 중·고·대학생 의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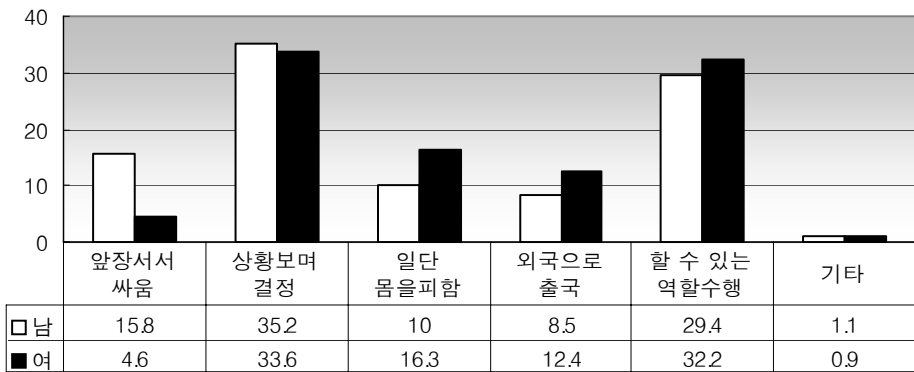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으로 대학생은 ‘사회복지국가’(30.5%), ‘경제적 부유 국가’(23.1%), ‘정치적 안정 국가’(17.5%)의 순으로 답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은 ‘범죄·부패 없는 국가’(22.6%), ‘정치적 안정 국가’(22.3%), ‘사회복지국가’(2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정치적 안정 국가’(24.9%), ‘범죄·부패 없는 국가’(23.2%), ‘사회복지국가’(18.7%)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V-11]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 국가의 조건

(12) 국가 위기 시 행동의지에 대한 성별비교

국가 위기기 행동의지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경우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35.2%),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29.4%), ‘앞장서서 싸우겠다’(15.8%), ‘일단 몸을 피하겠다’(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33.6%),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32.2%), ‘일단 몸을 피하겠다’(16.3%), ‘외국으로 출국하겠다’(12.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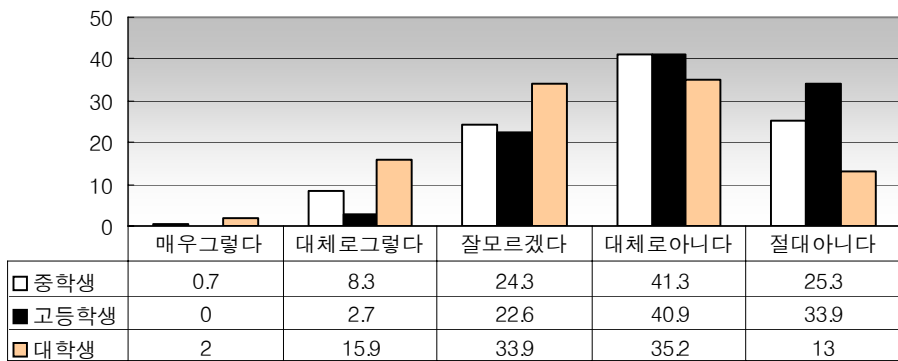


[그림 IV-12] 한국 청소년의 전쟁 시 행동

(13)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대한 중·고·대학생 비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 고등학생의 74.8%, 중학생의 66.6%, 대학생의 48.2%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시각이 가장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정부정책을 신뢰한다’는 의견 역시 대학생(15.9%), 중학생(8.3%), 고등학생(2.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전체의 45.0%가 정부 공직자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37.1%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강한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있다.



[그림 IV-13] 한국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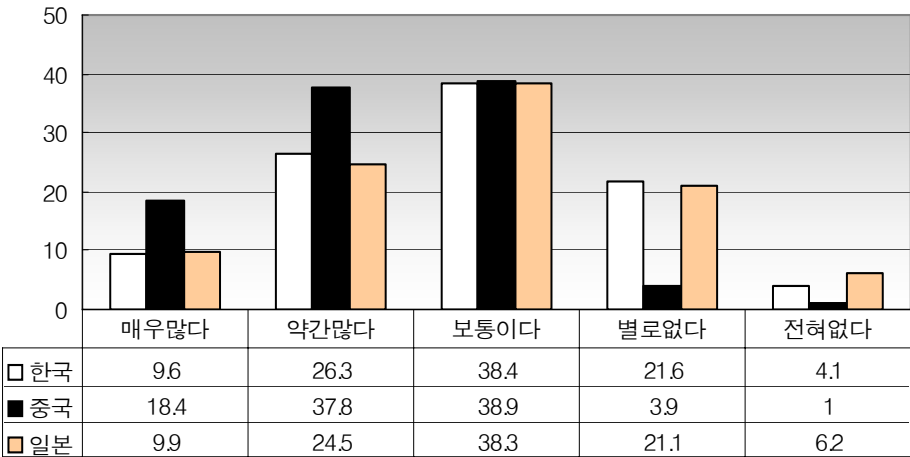
V.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특징 분석

V.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특징 분석

(1)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에 대한 비교는 [그림 V-1]에서와 같이 세 나라 중 중국 청소년의 56.2% 정도가 역사에 관심이 높는데 비해, 한국은 35.9%, 일본은 34.4%로 두 나라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응답자들 중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는 의견은 한국이 25.7%, 일본은 27.3%에 비해, 중국은 4.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1999년 정부 수립 50주년을 계기로 중국 인민들의 애국주의를 고양시키려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도가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각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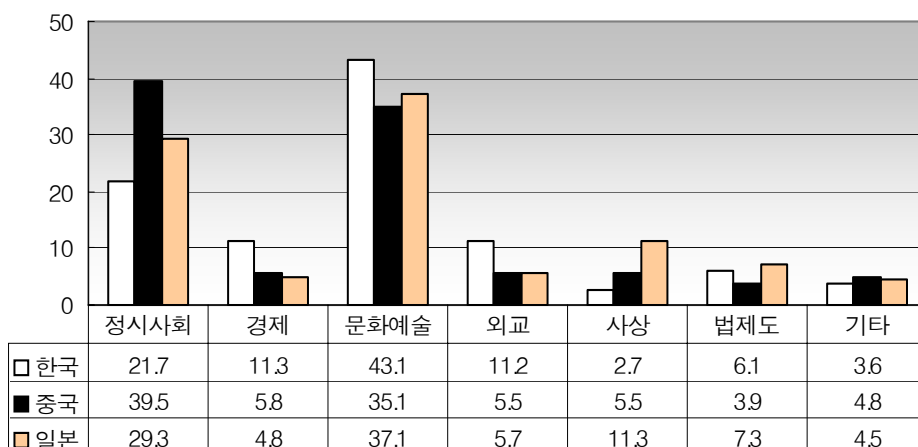


[그림 V-1]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정도

(2)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비교에서 세 나라 모두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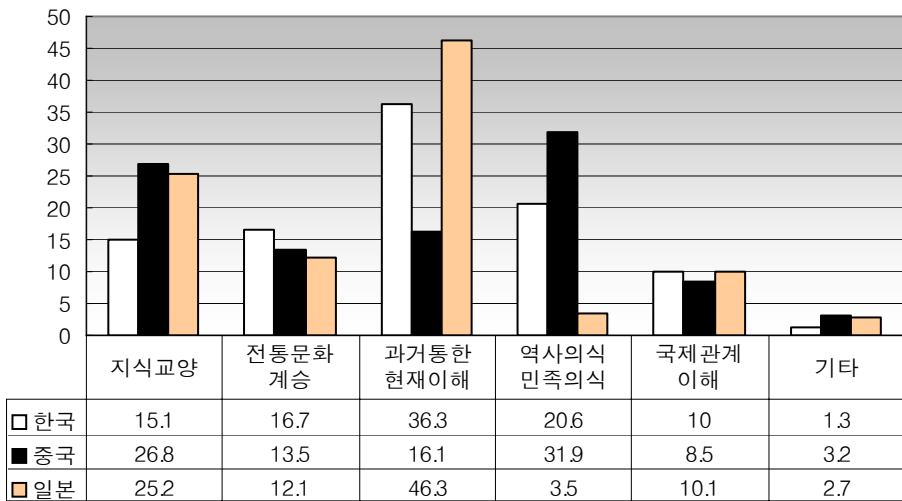
· 예술'과 '정치·사회' 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는 비율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세 나라 청소년들 모두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 착안하여 동북아 중심의 청소년 문화공동체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림 V-2]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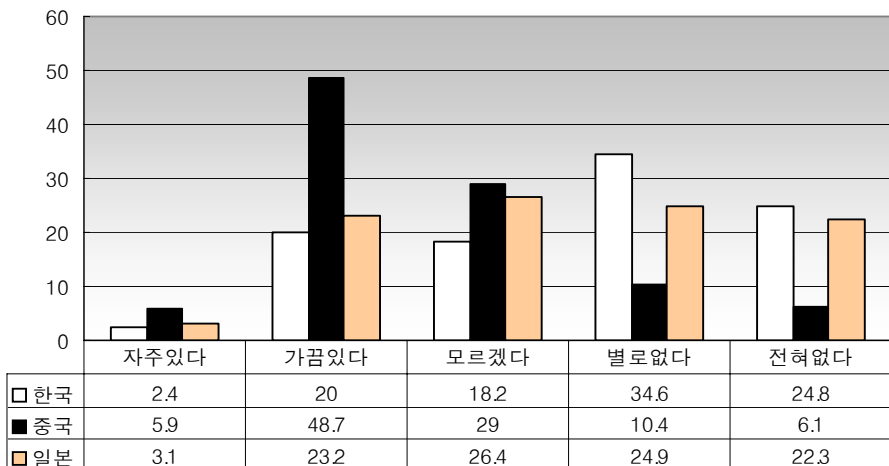
(3) 역사공부의 목적 비교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을 비교하기 위한 응답결과는 [그림 V-3]과 같다. 한국(36.3%)과 일본(33.3%)의 청소년들이 역사공부의 첫 번째 목적 '과거사를 통해 현재 사회를 대한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라고 응답한 반면, 중국(31.9%)의 청소년들은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라고 답하였다.



[그림 V-3]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공부 목적

(4) 역사수업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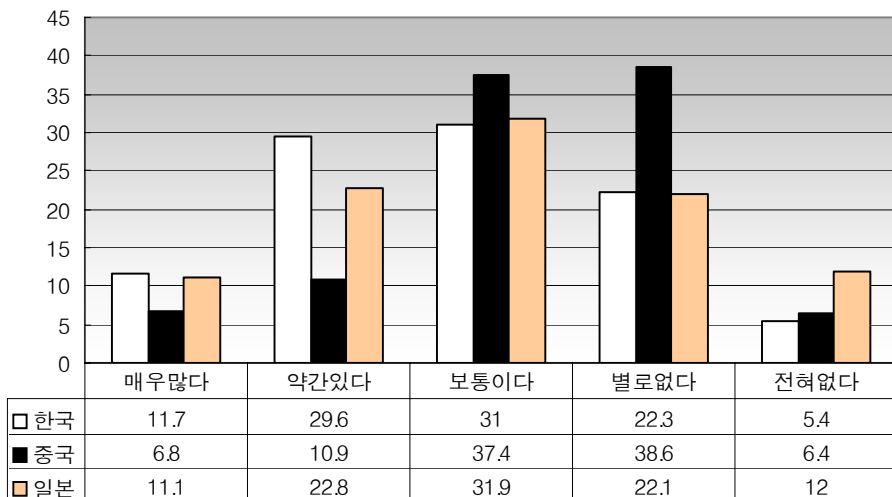


[그림 V-4]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과목에 대한 토론식, 주제발표식 수업 정도

『역사시간에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이 이루어진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 특히 사항은 중국의 경우 ‘가끔씩 있다’는 응답이 48.7%로 한국 20.0%와 일본 23.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역사시간에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이 ‘별로 없다 혹은 전혀 없다’는 응답이 중국은 16.5%인데 비해, 한국(58.4%), 일본(47.2%)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3국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상당부분의 역사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토론식 수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 형성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자신의 행동과 역사발전의 관계



[그림 V-5]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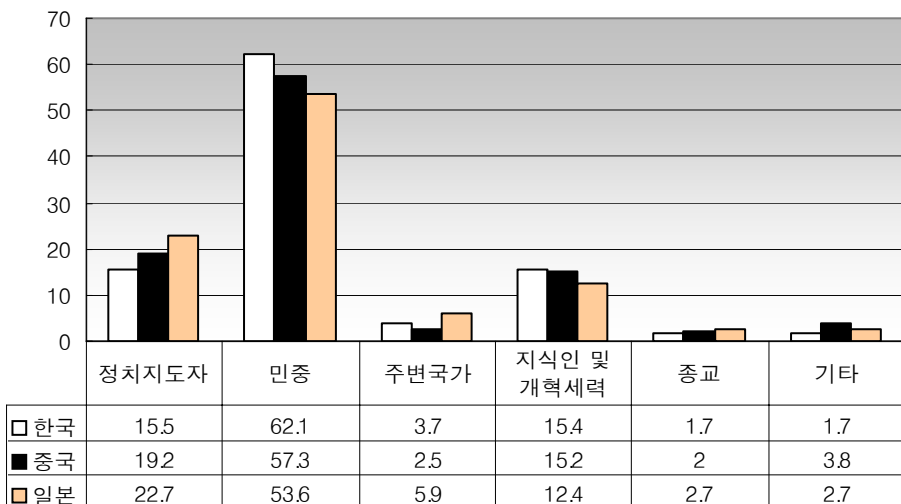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역사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결과 한국 청소년의 41.3%, 일본 청소년의 33.9%는 ‘매우 많다 혹은

은 약간 있다’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중국 청소년의 경우 17.7%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경직되어 있는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으나, 중국 역시 지속적인 개방화 정책으로 청소년들의 사고와 표현의 자유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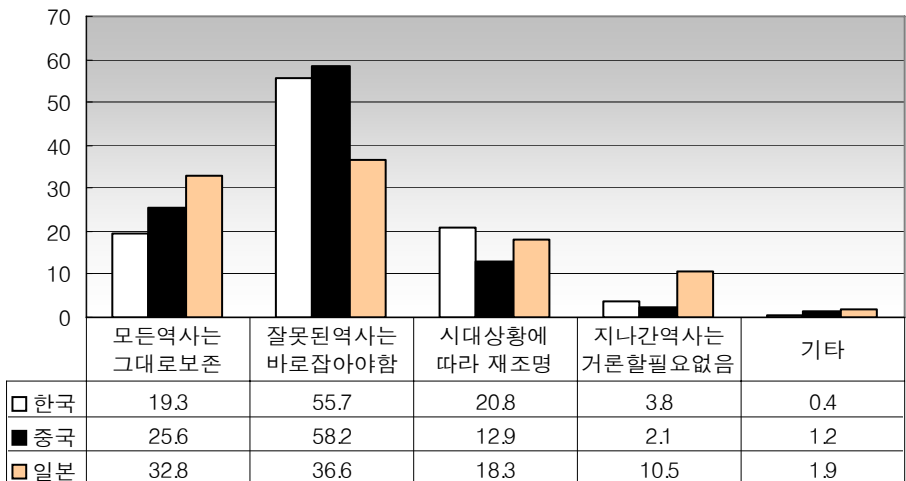
(6)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으로 한중일 청소년 모두 ‘민중들의 힘’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치지도자’와 ‘지식인 혹은 개혁세력’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세 나라 청소년 모두 자국의 역사발전과정에서 민주 시민사회의 가장 핵심세력인 민중들의 힘과 역할에 대한 비중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앞으로 한중일 주축의 동북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 국 정부의 지원체계 마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V-6]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원동력

(7)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그림 V-7]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 지속보존에 대한 생각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항목에 3국이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한국 청소년의 55.7%와 중국 청소년의 58.2%가 응답한데 비해,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두 나라에 비해 낮은 36.6%로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일본 청소년들은 ‘지나간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10.5%로 한국 3.8%와 중국 2.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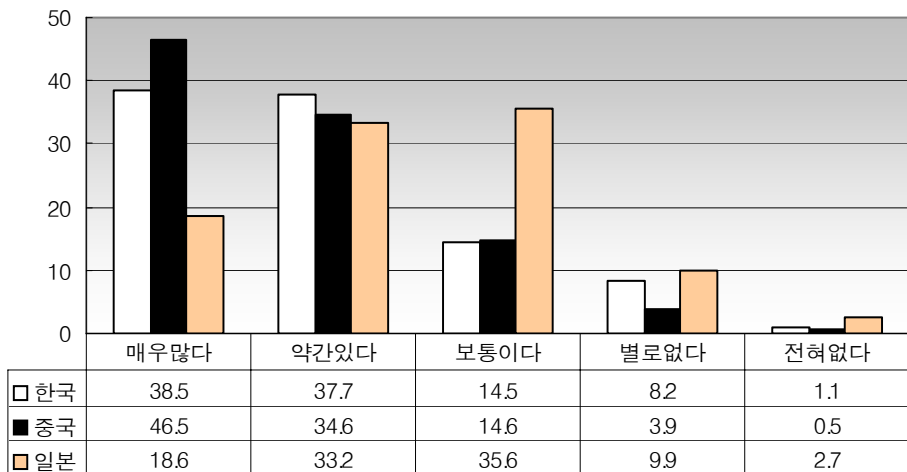
이 문제는 지나간 갈등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다소 다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피해국가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보상을 통한 성공적인 신뢰회복 과정을 모범적 사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8) 자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독창성 여부

『다른 나라에 비해 자국의 민족 문화가 어느 정도 독창성을 갖는지』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결과 ‘매우 많다’는 항목에 한국 청소년 38.5%, 중국 46.5%로 매우 높은 수치인데 비해, 일본 청소년들은 18.6%에 불과하였다.

한 민족이 발전하려면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1960년대 말 일본 학자들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민족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민족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리적이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층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다소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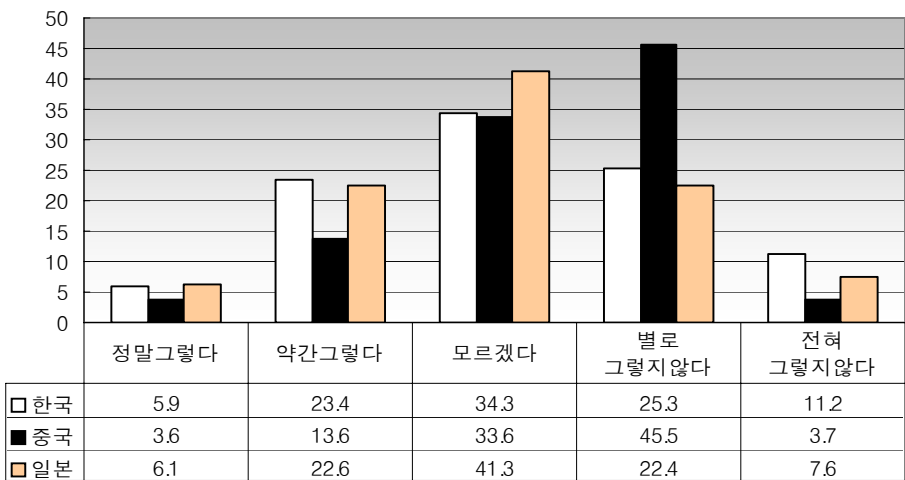
[그림 V-8]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 민족문화의 독창성 여부

(9)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시각

『다른 나라 역사에 관한 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에 ‘정말 혹은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한국(29.3%), 일본(28.7), 중국(17.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 나라 청소년의 30% 이상이 모두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신세대들이 이 문제에 무관심한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의 역사적인 문제가 국가간 상호협력의 중요한 장애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관계향상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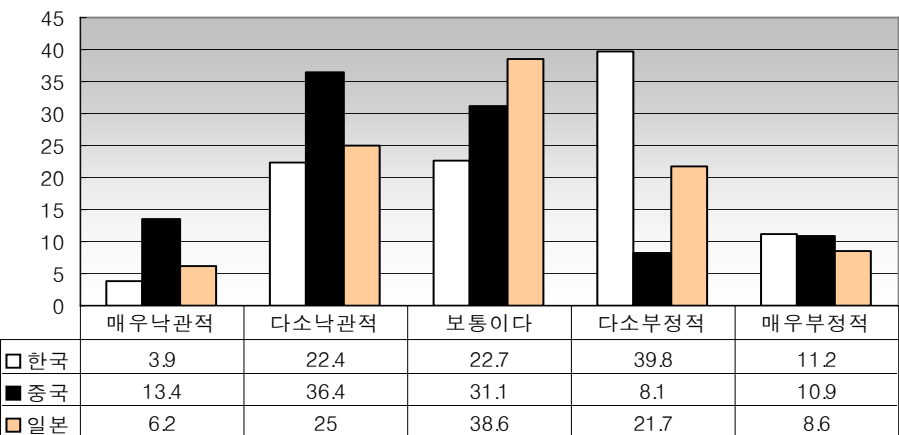
[그림 V-9] 한중일 청소년의 다른 나라 역사논의가 내정간섭이라는 생각

(10) 한중일간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앞으로 한중일 3국의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에 대해 중국 청소년들의 13.6%, 일본 6.2%, 한국은 3.9% 만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다소 혹은 전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청소년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30.3%, 중국은 19.0%로 매우 대조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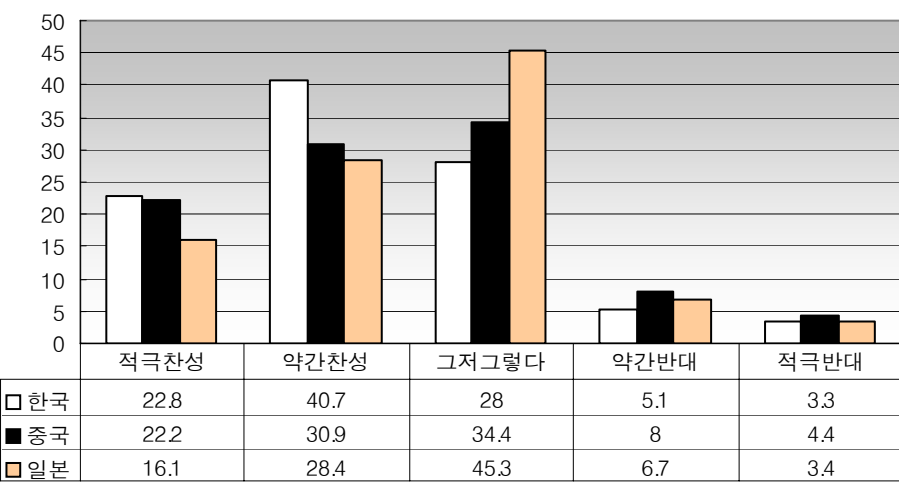
이 문제 역시 동북아 삼국을 비롯한 근대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과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굴절된 역사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청소년층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삼국간의 보다 더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잘못된 역사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함께 과오인정 및 사과 등에 이어 피해당사

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같은 일련의 실천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림 V-10] 한중일 청소년의 한중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11)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결성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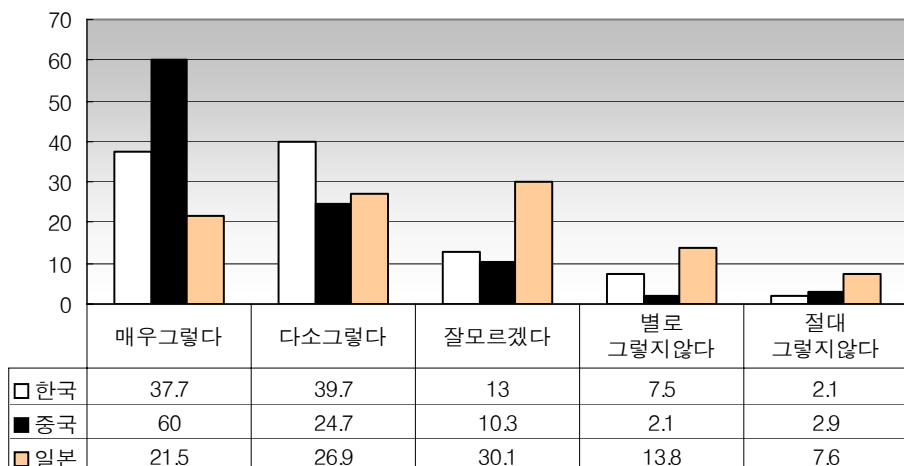
[그림 V-11] 한중일 청소년의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 구성에 대한 의견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sia Union) 구성 가능성』에 대해 한국의 53.5%, 중국 53.1%, 일본 44.5%의 청소년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청소년의 경우 45.3%가 ‘그저 그렇다’는 응답으로 한국과 중국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EU, NATO, NAFTA, ASEAN 등과 같은 지역적 블록화의 추세에 힘입어, 어떠한 형태로든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구성의 필요성과 시대적 당위성에 젊은 층의 지지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국가적 자긍심

『자신이 한국(중국,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 청소년의 60.0%, 한국 청소년의 37.7% 그리고 일본 청소년의 21.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일본 청소년의 30.1%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 하거나 ‘별로 혹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도 21.4%나 되었다.



[그림 V-12] 한중일 청소년의 자국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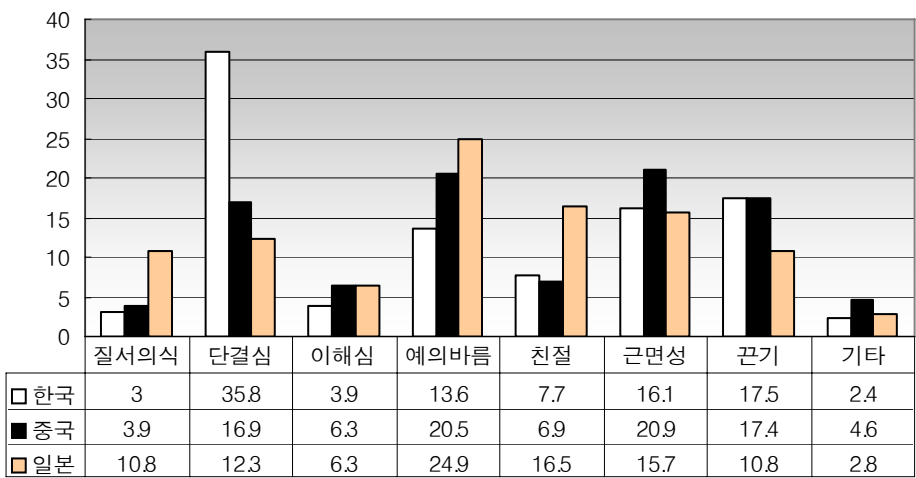
(13) 자국민의 장단점

『한국(중국, 일본)인의 성품 중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를 비교에서 나타난 상위 세 가지를 보면, 한국은 ‘단결심’(35.8%), ‘끈기’(17.5%), ‘근면성’(16.1%)이며, 중국은 ‘근면성’(20.9%), ‘예의바름’(20.5%), ‘끈기’(17.4%)였으며, 일본은 ‘예의바름’(24.9%), ‘친절’(16.5%), ‘근면성’(15.7%)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질서 의식’이 10.8%인데 비해, 한국 3.0%, 중국 3.9%였으며, 한국인의 ‘단결심’이 35.8%인데 비해, 중국 16.9%, 일본 12.3%에 불과하였고, 일본이 ‘친절함’에 16.5%인 반면, 한국 7.7%, 중국 6.9%로 비교되었다.

한편, 『한국(중국, 일본)인의 각자의 성품 중 가장 큰 단점』은 한국인은 ‘성급함’(45.7%), 중국인은 ‘이기심’(57.4%), 그리고 일본인은 ‘사치스러움’(40.4%)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장단점 비교 결과는 상대국가와 국민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호보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삼국 공통의 국제이해 교과서 편찬과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림 V-13] 한중일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장점

(14)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와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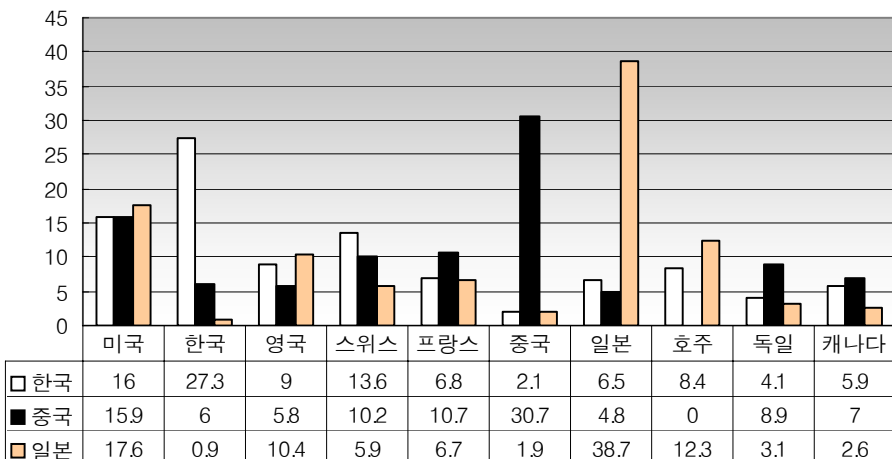
『한국(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한국의 27.3%, 중국의 30.7%, 일본의 38.7% 청소년들이 각각 ‘자기 나라’를 가장 좋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3국 청소년들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세 나라 청소년의 16.5%정도가 모두 ‘자기 나라’다음으로 ‘미국’을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스위스’, ‘영국’, ‘호주’, ‘독일’등을 선택한 점이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로는 한국의 28.4%와 일본의 37.9% 청소년들은 ‘자연이 아름다워서’이며, 중국 청소년의 34.9%는 ‘국민성이 우수하여’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간 동맹과 이해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면서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의 영향력과 함께 신세대들의 가장 절박한 고민인 제2외국어 습득의 필요성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 밖에 상당한 수치의 응답이 복지국가 혹은 기타의 의견으로 조사된 점은 주어진 질문 외에 청소년들 각자의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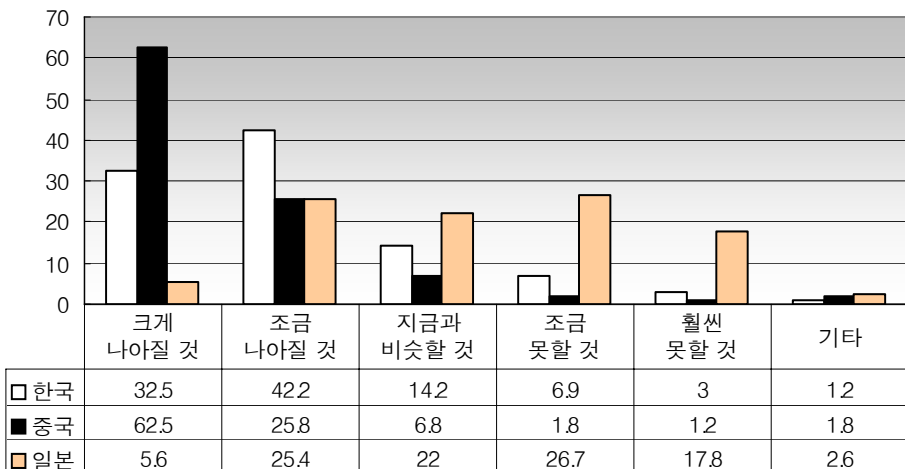
[그림 V-14] 한중일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15) 자국의 미래전망

『한국(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중국 청소년의 62.2%와 한국의 32.7%는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다’인데 비해 일본은 5.6% 청소년들만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42.2%는 중국의 25.8%, 일본의 25.4%가 ‘지금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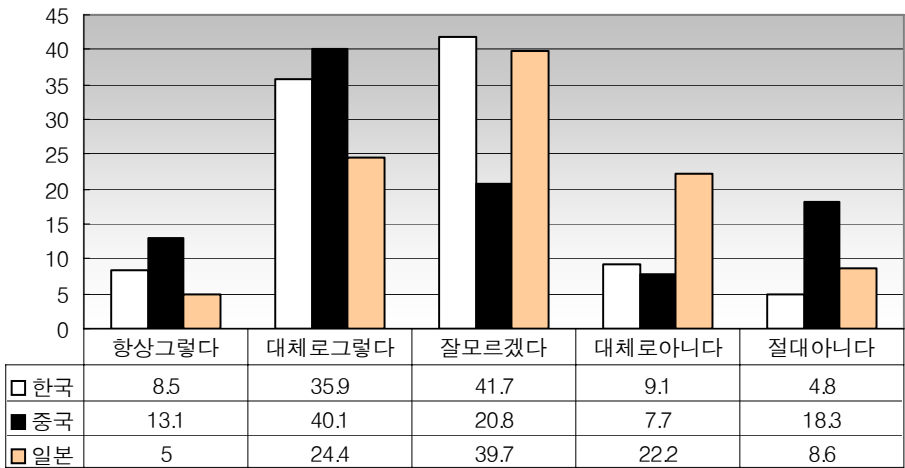
특히 일본 청소년의 44.5%가 ‘지금보다 조금 혹은 훨씬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것은 한국의 9.9%와 중국의 3.0%에 비해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중국 청소년들이 자국의 미래에 대한 가장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청소년들 역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앞의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높은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정치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자국의 미래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V-15] 한중일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미래전망

(16)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그림 V-16] 한중일 청소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 여부

『한중일의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한국 청소년의 35.9%와 중국의 40.1%가 ‘대체로 그렇다’인데 비해, 일본은 24.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 청소년의 13.1%는 항상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8.5%, 일본은 5.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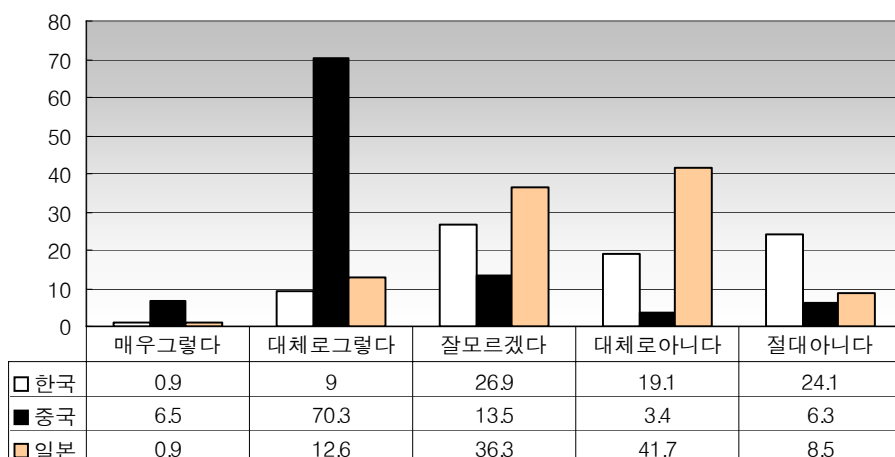
이 같은 조사결과는 앞의 『국가 위기 시 행동의지』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청소년들의 다양한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즉 세 나라 모두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이전세대에 비해 청소년들의 생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는 항상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관해서는 중국

청소년의 70.3%가 ‘대체로 그렇다’인데 비해, 일본은 12.6%, 한국은 9.0%로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을 ‘절대로 신뢰 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의 24.1%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6.3%와 일본은 8.5%로써 한국 청소년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극도로 높게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일본 청소년의 경우도 41.7%가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점은 한국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에 대한 상당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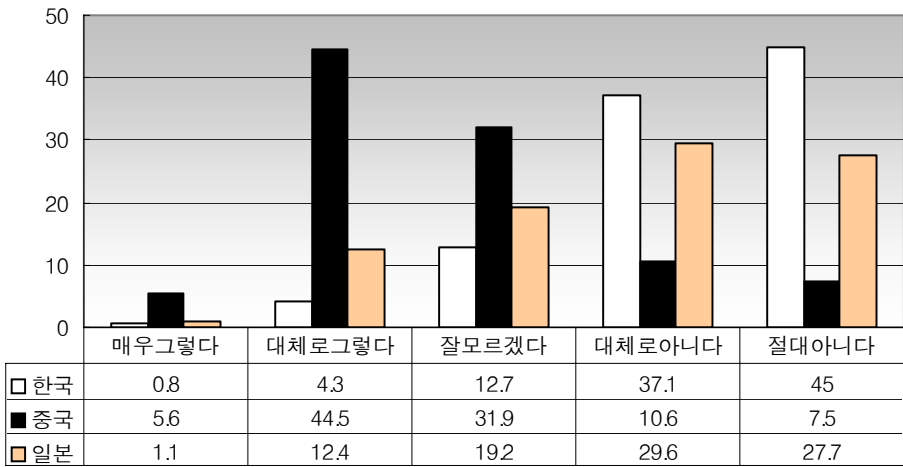
[그림 V-17] 한중일 청소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18)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정부의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믿는지』 묻는 질문에는 중국 청소년의 44.5%가 ‘대체로 그렇다’인데 비해, 일본은 12.4%, 한국은 4.3%였다.

특히 정부공직자들을 ‘대체로 혹은 절대로 신뢰 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의 82.1%와 일본 청소년은 67.3%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18.1%에 불과하였다.

조사결과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 공직자들에 대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불신감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본 청소년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 청소년들은 정부 정책과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8] 한중일 청소년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VI. 요약 및 결론

VI.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한·중·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비교·조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미래 새로운 문화산업의 중추세력인 청소년들이 열린 사고와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발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역사인식과 국가관 비교조사에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질문문항에 기초하여 3국의 연구책임자가 이메일을 통해 상호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공통의 조사표를 확정된 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표집은 한·중·일 각 국의 중학교 2학년(남·여 각 150명씩), 고등학교 2학년(남·여 각 150명씩), 대학생(남·여 각 150명씩)을 대상으로, 한국(서울), 중국(북경), 일본(동경) 지역에서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2006년 3월초부터 5월말에 걸쳐 실시한 후 조사데이터를 상호 공유하였다.

실제 조사에 응한 전체 응답자는 2,939명이었으며, 국가별 분포는 한국(902명), 중국(983명), 일본(1,054명)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48.2%), 여(51.8%)이며, 신분은 중학생(34.4%), 고등학생(32.3%), 대학생(33.4%)이었다.

각국 청소년 대상의 조사데이터에 근거하여 한중일 3국의 청소년의 역사인식과 국가관 비교분석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나라 청소년들 간에 공통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세 나라 청소년 모두,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문화·예술’, ‘정치·사회’ 분야를 꼽고 있다. 이는 기성세대가 관심을 보일 것 같은 경제 분야와는 거리가 먼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역사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세 국가의 청소년 50% 이상이 ‘민중의 힘’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정치지도자 혹은 지식인의 영향력은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에 의해 각각 10~20% 사이로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③ 자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세 나라 청소년 모두가 높은 긍정성(한중일 각각 76%, 81%, 52%)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독창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모두 낮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한중일 각각 9%, 4%, 12%).

④ 유럽연합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아시아연합(Asia Union) 결성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였으며(각각 63%, 53%), 일본의 청소년 역시 44%의 찬성으로 부정적인 견해 10% 보다 훨씬 높았다.

⑤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나라로 한중일 청소년 모두가 각각 ‘자기 나라’와 ‘미국’을 꼽고 있다.

둘째, 세 나라 청소년들 간에 큰 차이점으로 부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 나라 청소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과거 통한 현재의 이해’를 위해 역사를 공부하는 한편, 중국 청소년들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고취’가 역사공부의 주된 목적이라고 응답한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역사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 30% 이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중국 청소년들은 18% 이하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을 우선 하는 민주주의 국가체제와 집단을 우선하는 사회주의 국가체제 상의 차이에서 기인될 수 있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의 5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반면, 일본 청소년들은 36%로 여기에 다소 못 미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나간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다’라는 일본 청소년의 응답이 10% 이상으로, 각각 4%, 2%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나간 역사를 보는 시각에서 가해자와 피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④ 또한 역사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도 세 나라 청소년들에는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즉 해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한국 청소년의 경우 40%, 일본 청소년의 경우 22%, 중국 청소년의 경우 8%로 나타난 점은 최근 3국 청소년들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경향으로 보여 진다.

⑤ 자국민의 장점으로 한국인은 단결심(36%)-끈기(18%)-근면성(16%), 중국인은 근면성(21%)-예의바름(21%)-끈기(17%), 일본인은 예의바름(25%)-친절(17%)-근면성(16%)을 들고 있다. 아울러 자국민의 단점으로 한국인은 성급함(46%)을, 중국인은 이기심(28%)을, 일본인은 사치스러움(40%)을 들고 있다.

한중일 청소년들 다수가 타국에 대한 역사 및 문화 교육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다른 국가 국민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세대인 청소년들이 평등, 상호존중, 책임감 등 감정적 태도가 아닌 민주적 원칙 및 가치에 입각한 확산, 이해력 및 성실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시아 지역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중국 및 일본이 개인, 역사, 문화, 정치 및 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어온 각국의 사고 및 행동 방식의 차이 뿐 아니라,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 공통적 주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형성 및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은 동북아 지역 내 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 및 문화 커뮤니티 형성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 간 상호 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민족성, 문화, 정치 시스템, 사고·행동·생활 방식 등의 차이를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상대의 역사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각국의 청소년들은 등 타국의 문화와 역사 문제에 관하여 이전 세대에 비

해 점차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평등, 상호 존중, 책임감 등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있어, 새로운 세대인 청소년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인 관점의 공개적 논의를 통해 자국과 타국의 역사와 개별 국가간의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구축해야 한다.



VII. 정책제언

VII. 정책제언

동북아 국가간 동반자적 협력체제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구조 형성과 유지에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 보다는 새로운 세대인 청소년들에 의해서 반드시 창출되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서구의 근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보다는 동양적 가치관의 발전적 이념에 근거하여 상생적인 결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21세기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국가들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3국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서구화 및 산업화과정에서 표출되는 부정적인 측면 및 해결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각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동양적 전통과 산업화과정 간에 상보적인 관계를 도출하려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목표달성과 미래 바람직한 동북아 청소년 교류협력체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들은 자국의 역사와 국가관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상대방 국가의 역사 및 국민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중일 청소년들의 역사인식과 국가관”에 관한 조사결과에 근거 3국간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국의 역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제고와 역사공부의 동기부여를 위한 정부, 학교, 그리고 지도층의 역할제고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역사교육에서 교사가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흥미와 역사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역사교육의 목적, 내용, 관점 등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형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적 사고력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폭넓은 경험을 통하여 역사에 대한 관심제고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학교, 그리고 사회 각 지도층의 역할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역사교육 목적 및 구체적인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모두 역사적 사건들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다 분야에 걸쳐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수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역사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역사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함께 현대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함’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은 ‘사회 변화의 과정에 맞춰 역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측면을 고려하여 3국 청소년들의 궁극적인 역사교육의 목적 및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재정립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역사적 이슈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 중심의 역사교육 방식을 점차 확대시켜야 한다.

학교 역사공부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청소년들의 논리적인 판단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입식 학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현장학습에 기반을 둔 발표와 토론 위주의 수업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 본질이해와 국가 간 현안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위해 각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3국 공통의 합의도출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번 조사결과에서는 각 각의 사안에 따라 청소년들은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자국의 미래전망’에 대해 중국의 62%와 한국의 32.7%가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인데 비해, 일본 청소년들은 5.6%만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과 정부 공직자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중국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각국이 처한 현안문제와 정치사회적인 특성을 감안한 3국 공통의 합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중일 3국 청소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로 하여 추진해야할 영역별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화예술 분야 교류활성화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탈냉전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이다. 따라서 청소년 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서로 체득하고 이해하도록 한다면 동북아를 하나의 문화블록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의 개방과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국가간 청소년 문화공동체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국제교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국제교류의 현황 및 실태분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그림 VII-1]에서와 같이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적 지원, 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간의 네트워크

를 통한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① 동북아 청소년네트워크 구축

청소년NGO의 동북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크고 작은 청소년동아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아시아 문화, 역사,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② 동북아 청소년교류센터 및 연구센터 설립

동북아의 청소년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 문화, 역사, 일반적 사회상황 및 청소년 상황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교류사업 개발, 교류인력 양성·연수, 교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청소년단체협의회나 중앙청소년수련원 부설 기구로서 동북시아 청소년센터를 설치하여 동북시아청소년교류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설로 동북아청소년연구센터를 두어 동북시아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동북아청소년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환학생제도 및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중일 3개국 모두가 타 국가의 언어학습에 점점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어 학습기회를 갖도록 사적 교육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부문에서도 폭 넓은 개방과 기회확대를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각각의 나라에 걸맞는 청소년문화의 열풍 혹은 붐을 일으키고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 한·중·일 청소년지도자 회의 및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학회 및 교류협의회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 3국 공동의 포럼 계획을 심사하여 개최를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3국

간 청소년 교류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및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원인 분석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세미나의 개최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각 분야의 지원 및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소년 지도자의 워크숍과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역사의식에 대한 인식 차이 해소,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들 간의 정기적 교류와 학술모임도 병행되어야 한다.

① 청소년 관련 학회 및 협의회 구성

동북아 3국의 청소년 관련 학회 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국에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동북아 3국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학회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개별 학회의 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련학회 및 교류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청소년지도자 훈련 및 교류 지원센터 건립

청소년지도자의 교류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류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교류경험을 많은 민간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교류활동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국제자원봉사활동, 문화교류활동, 동북아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포럼, 동북아 여행 프로그램 등 영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동북아 청소년지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동북아청소년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한다.

넷째,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국가가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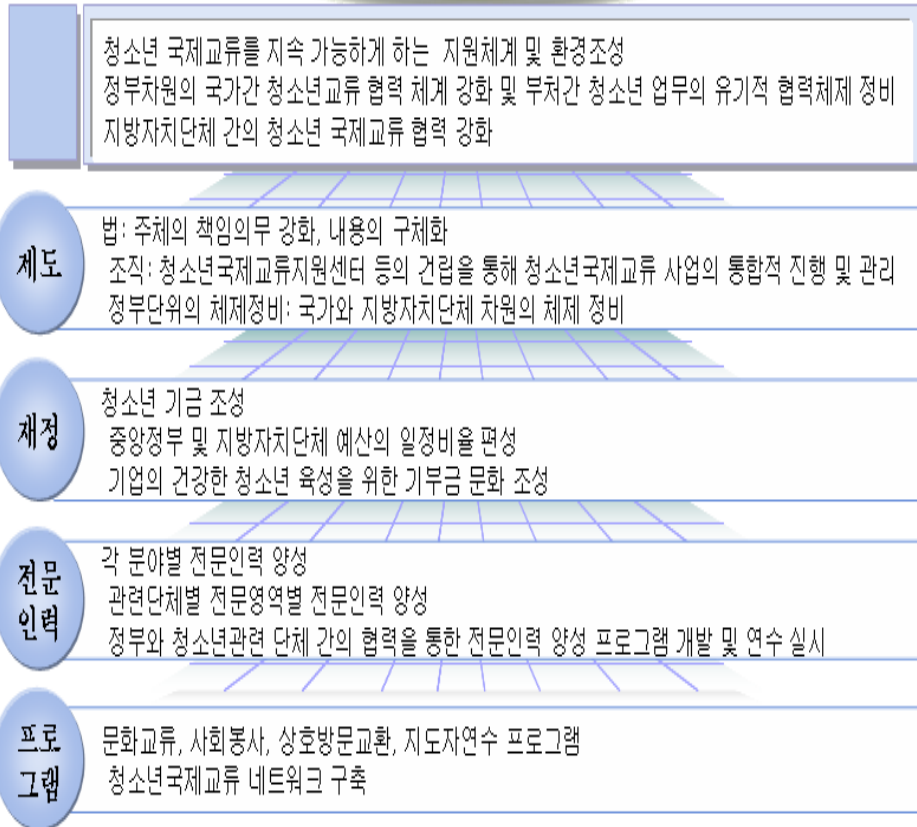
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대형 국제교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교류 사업의 특성은 고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경제적 혹은 신체적 장애로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동북아 국가간 청소년 분야 장차관급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

유학, 여행, 취업 등 동북아 지역 내 청소년 교류 및 이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청소년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부차원이 논의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북아 청소년장차관회의의 정례화로 다음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 ① 3국간 유학, 연수, 단체여행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 ② 동북아 청소년이동과 교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 및 해결방안
- ③ 북경, 동경, 부산, 상해, 오사카 등 국제 도시 간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 도시에 외국청소년 전용숙소 설치
- ④ 크고 작은 청소년 NGO들의 네트워크 형성, 교류 및 연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 ⑤ 동북아 대학생간 학점교환 인정, 교환학생제, 동북아교류협력기구 설치

세계 속의 글로벌리더로서 청소년육성



[그림 VII-1] 동북아 국가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상호지원체계구축

참 고 문 헌

- 강덕희(2003). 전라남도 도서지방 고등학생의 역사의식에 대한 실태분석과 지도방안.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만길 외(2004). 근대 동북아 역사인식 비교. 서울: 선인.
- 곽향련(2003). 역사신문제작학습이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초등사회과 역사 영역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범서(1992). 가치관연구. 서울: 도서출판 나남.
- 고영복 외(1983). 국민의식에 관한 연구문헌조사분석. 현대사회연구소.
- 권용역 외(2004).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서울: 이학사.
- 김성식(1981). 역사의식은 있는가. 서울: 월간조선 1월호, 조선일보사.
- 김유해(1977). 고등학교학생의 역사의식구조에 관한 일고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운·진순신(2000). 한·중·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 서울: 문학사상사.
- 김정(1977). 역사의식 발달에 관한 조사연구. 광주교육대학 논문집 제14권.
- 김정희(1990). 역사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철은(1998).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호년(1992). 고등학교학생의 역사의식발달의 실태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동아일보 2004. 1. 12일자 기사 : 세계청소년 의식조사(일본내각부, 2004년 조사).
- 박윤숙(2003). 역사신문제작을 통한 역사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재홍(1995). 세대경험과 신세대의 특성. 한국사회학 제29집.
- 봉대근(2000).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삼성복지재단(1994). 한국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생활세계접근-. 서울: 삼성복지재단.
- 송춘영(1977). 중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 인물지도의 접근방안. 역사교육 제22편. 역사교육연구회.
- _____(1999).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 안귀덕 외(1999). 한국청소년문화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 _____(1998). 한국청소년문화 -변화와 연속-.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 연합뉴스 2002년 1월 2일자 기사 : 청소년 부패, 반부패 의식조사(반부패국민연대, 2001년 10월 조사).
- 우종욱·권이중(2000). 2000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 윤재선(2004). 역사신문제작이 초등학생의 역사의식 발달에 끼친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철경 외(2000). 한·미·일·프랑스 4개국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조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윤희탁(2004).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교육.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서울: 역사비평사.
- 이재창 외(198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원(2003). 한·중·일·미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환(1999). 12억 대륙 中혁명물결. 경제 자신감 바탕 애국주의. 서울: 동아일보.
- 이진희·강재언(2002). 한일교류사 -새로운 이웃나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 학교재.
- 이찬희(1989). 역사의식의 개념과 역사교육. 서울: 교육사회사.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2004).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서울: 역사비평사.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 엮음(2002).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서울 : 역사비평사.
- 정광훈(2005).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무엇이 부족한가? 서울: 북폴리오.
- 정기선(2005).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 :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 서베이리서치센터.
- 정희욱 외(1997).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경자(2000). 여고생의 역사의식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지역 일반계 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탁창식(1990). 강원도 지역 고등학생의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기태(1981). 고교생의 국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청소년문화복지아카데미 편(2004). 청소년문화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 최재희(1971). 역사철학. 서울: 청림사.
- 한국역사 공동연구위원회(2005). 2005년도 한국역사 공동연구위 보고서. 서울: 한국 역사공동연구위원회.
- 한계레신문 2000. 7. 6일자 기사 : 한·중·일 청소년 의식조사(1999년 3월 조사).
- 한계레신문 2004. 2. 17 일자 기사 : 한·중·일·미 청소년 의식조사(일본청소년연구소, 2003년 조사).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2005). 미래를 여는 역사-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북아 3국의 근현대사-. 서울: 한계레신문사.
- 홍윤식(2004). 한일전통문화비교론. 경기도: 지원미디어.
- 황경화(2002). 역사 관련 자료가 초등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Choe, Hyun.(2003).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China and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Collins.
- Gellner, E.(1983).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Hutchison, J.(1994). *Modern nationalism*. Fontana Press, London.
- Kölbl, Carlos & Jürgen Straub(2001). *Historical consciousness in youth*, Form: Qualitative Social Reform. Vol. 2, NO. 3.
- Luwie, R. H.(1964). *The origin of the state: Affective domain*. David McKay Co., Inc.
- Motyle, A. J.(1992). *The modernity of nationalism*.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5, No 2.
- Osman, T. K.(1997).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age Publication.
- Smith, A. (1991). *National identity*. Penguin Books, London.
-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1969). *Toward a social repor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ng, Edward(1983). *Modernity inside tradition: The transformation of historical consciousness in modern China*. Historical Journal Vol 26.

부 록

1. 설문조사지(한국)
2. 설문조사지(중국)
3. 설문조사지(일본)

[한국]

한·중·일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 조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한중일 3국 청소년들의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비교하기 위한 조사 연구입니다. 대답은 옳고 그름이 없으며 단순히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4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오해섭 올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전화: 2188-8841)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현재 신분은?

- ① 중학생 ② 고등학생 ③ 대학생

2) 본인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3) 본인의 역사에 대한 지식수준은?

- ① 상 ② 중 ③ 하

4) 외국여행을 포함하여 본인의 국제교류활동 경험은?

- ① 전혀없다 ② 1~2번 ③ 3번 이상

5) 본인은 역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많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6) 본인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 계기는?

- ① 학교 수업을 통하여
② 가족(부모, 형제)들로부터
③ TV(영화)의 자극이나 다큐멘터리 시청 후
④ 역사소설이나 위인전을 통하여

- ⑤ 박물관, 문화유적지 견학을 통하여
- ⑥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사건을 계기로
- ⑦ 기타_____

7) 역사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 ① 정치·사회 ② 경제 ③ 문화·예술 ④ 외교 ⑤ 사상
- ⑥ 법·제도 ⑦ 기타_____

8)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9)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지식습득과 교양을 쌓기 위해
- ②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 ③ 과거를 통하여 현재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 ④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 ⑤ 국제관계 이해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 ⑥ 기타_____

10) 지금까지 역사시간에 토론식 혹은 주제발표식 수업이 이루어진 정도는?

- ① 자주 있다 ② 가끔씩 있다 ③ 모르겠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11) 본인은 지금까지 받은 역사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12) 본인의 역사의식 함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학교 선생님 ② 가족이나 친척 ③ 친구
- ④ 사극의 주인공 ⑤ 역사서적의 등장인물
- ⑥ 기타_____

13) 현재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 역사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14)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정치지도자의 능력 ② 민중들의 힘 ③ 주변국가에 의해
- ④ 지식인이나 개혁세력에 의해 ⑤ 종교의 영향 ⑥ 기타_____

15) 역사의 지속보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① 모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③ 역사는 시대상황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한다.
- ④ 지나간 역사를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다.

⑤ 기타_____

16)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17)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민족 문화는 독창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18) ‘다른 나라역사에 관한 논의가 내정간섭이다’라는 본인의 생각은?

- ① 정말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절대로 그렇지 않다

19) 앞으로 한·중·일 삼국의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낙관적이다 ② 다소 낙관적이다 ③ 모르겠다
④ 다소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20)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절대 그렇지 않다

21) 한국인의 성품들 중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21-1)장점 : ① 질서 의식 ② 단결심 ③ 이해심 ④ 예의바름 ⑤ 친절
 ⑥ 근면성 ⑦ 끈기 ⑧ 기타_____

- 21-2)단점 : ① 성급함 ② 사치스러움 ③ 이기심 ④ 폭력적 ⑤ 기타_____

22)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선진국 ②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 ③ 중진국
④ 중진국과 후진국 사이 ⑤ 후진국 ⑥ 잘 모름

23)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24)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 ① 부자여서 ② 전쟁 때 도와줘서 ③ 복지국가이므로
④ 자연이 아름다워서 ⑤ 국민성이 우수하여 ⑥ 기타_____

25) 만약 국가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앞장서서 싸우겠다 ②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③ 일단 몸을 피하겠다 ④ 외국으로 출국하겠다
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⑥ 기타_____

26)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다 ②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다
③ 지금상태와 비슷할 것이다 ④ 지금보다 조금 못할 것이다
⑤ 지금보다 훨씬 못할 것이다 ⑥ 기타_____

27)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 ②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 ③ 예술·문화가 성숙한 나라
- ④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
- ⑤ 범죄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 ⑥ 기타_____

28) 본인은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국가연합(AU)을 구성하는데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 ① 적극 찬성 ② 약간 찬성 ③ 그저 그렇다
- ④ 약간 반대 ⑤ 적극 반대

29) 정부는 항상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절대 아니다

30) 정부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믿는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절대 아니다

31)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절대 아니다

32)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동안 참여하는 방과 후 활동은?

- ① 교과학습 ② 과외활동 ③ TV시청 ④ 취미오락활동
- ⑤ 예체능활동 ⑥ 친구와 놀기 ⑦ 집안일 돕기 ⑧ 봉사활동
- ⑨ 아르바이트 ⑩ 기타_____

33) 본인이 매일 평균적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시간 분)

34) 본인이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은

- ① 연속극(사극) ② 코미디 ③ 뉴스 ④ 스포츠
- ⑤ 연예오락 및 가요(콘서트) ⑥ 교육방송(방송강좌) ⑦ 교양프로
- ⑧ 기타_____

35) 본인의 일일 컴퓨터 사용시간은?

- ① 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③ 1시간- 2시간
- ④ 2시간-3시간 ⑤ 3시간 이상

36) 본인이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복수응답가능)

- ① 친구와의 채팅 ② 인터넷 정보검색 ③ 쇼핑
- ④ 드라마 시청 ⑤ 학교숙제 ⑥ 음악청취
- ⑦ 기타_____

37) 본인은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는 편입니까?

- ① 일주일에 한번정도 ② 2주일에 한번정도 ③ 1개월에 한번정도
④ 3개월에 한번정도 ⑤ 기타_____

38)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공포영화 ② 멜로영화(연애, 사랑) ③ 역사 및 시사성 영화
④ 코미디 영화 ⑤ 전쟁영화 ⑥ 활극(전통 무술)
⑦ 기타_____

39) 일본의 대중문화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 ① TV연속극(사극) ② 영화 ③ 스포츠
④ 연예오락 및 가요(콘서트) ⑤ 음식 및 의복 ⑥ 기타_____

40) 중국의 대중문화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 ① TV연속극(사극) ② 영화 ③ 스포츠
④ 연예오락 및 가요(콘서트) ⑤ 음식 및 의복 ⑥ 기타_____

41) 본인이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성적 ② 이성교제 ③ 가정경제 ④ 부모와의 관계(가정불화)
⑤ 학생들의 폭력 ⑥ 진로/직업 선택 ⑦ 기타_____

42) 친구들 간의 대화 주제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학업(공부) ② 장래 진로(직업) ③ 학비(용돈) ④ 취미생활
⑤ 연예가 소식(가수, 탤런트, 배우 등) ⑥ 학교생활 ⑦ 스포츠
⑧ 이성교제 ⑨ 신변잡담 ⑩ 기타_____

43) 자신의 나라에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적다 ⑤ 매우 적다

44) 본인은 현재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교사/대학교수 ② 국가공무원 ③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④ 사업가 ⑤ 연예인 ⑥ 스포츠 선수 ⑦ 기타_____

45) 대인관계에서 본인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 ① 성실함 ② 외모 ③ 신뢰성(믿음) ④ 협동심
⑤ 봉사정신 ⑥ 이해심 ⑦ 말투/유머 ⑧ 기타_____

-끝까지 응답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

韩中日青少年历史意识和国家观调查问卷

青少年朋友:

本调查旨在了解韩`中`日三国青少年的历史意识`国家观`生活文化价值观,问卷的结果只用于研究`本调查的答案并无对错之分,问卷采用无记名方式,其结果用计算机统计处理,您的个人秘密完全受到保护`希望您根据自己的理解做出真实`准确的回答`谢谢合作`。

中国青年政治学院青年发展研究院

2006年 3月

※ 在下列各项问题中,根据您的判断在答案的号码上打上“√”`除了注明的多选题外,其余一律为单选题`。

1) 您目前的身份是?

- ① 中學生 ② 高中生 ③ 大學生

2) 您的性別是?

- ① 男 ② 女

3) 您覺得自己歷史知識的水平是?

- ① 上 ② 中 ③ 下

4) 您有过几次外国旅行,结交外国朋友的经验如何?

- ① 完全沒有 ② 1~2次 ③ 3次 以上

5) 您对历史有多大的兴趣和关心?

- ① 非常多 ② 较多 ③ 一般 ④ 几乎没有 ⑤ 完全没有

6) 您开始关心历史的诱因是什么?

- ① 通过学校课程
② 通过家人(父母, 兄弟姐妹)的交流
③ 通过观看电视(电影)里的历史剧或专题片
④ 通过看历史小说或者伟人传记
⑤ 通过参观博物馆, 文化遗址
⑥ 通过耳闻目睹社会上成为问题的事件
⑦ 其他_____

7) 您最关心的历史领域是什么?

- ① 政治·社会 ② 经济 ③ 文化·艺术 ④ 外交 ⑤ 思想
⑥ 法·制度 ⑦ 其他_____

8) 您对历史教育的必要性是怎么想的?

- ① 非常必要 ② 有些必要 ③ 一般
④ 几乎不必要 ⑤ 完全不必要

9) 您认为学习历史最主要的目的是什么?

- ① 为了获得知识和提高修养
② 为了继承和发展传统文化
③ 为了通过过去了解现在
④ 为了涵养历史意识和民族精神
⑤ 为了理解国际关系和形成文化, 經濟共同体
⑥ 其他_____

10) 到现在为止历史课上是否举行过有關問題的讨论或者主题发表会?

- ① 经常 ② 偶尔 ③ 几乎没有 ④ 完全没有 ⑤ 不知道

11) 您对所受到的历史教育的满足程度是?

- ① 非常满足 ② 有些满足 ③ 一般
④ 不怎么满足 ⑤ 完全不满足

12) 您认为对您本人的历史意识涵养起到最重要影响的人是谁?

- ① 学校老师 ② 家人或亲戚 ③ 朋友
④ 历史剧中的主人公 ⑤ 历史书籍中的历史人物
⑥ 其他_____

13) 您认为目前您本人的思想和行动会对历史的发展起多大的影响?

- ① 非常大 ② 较大 ③ 一般 ④ 几乎没有 ⑤ 完全没有

14) 您认为历史发展的最主要原动力是什么?

- ① 政治领导者的能力 ② 人民的力量 ③ 周边国家
④ 知识分子或者改革势力 ⑤ 宗教的影响 ⑥ 其他_____

15) 对历史的持续和保存, 您的想法如何?

- ① 所有的历史应该按原样保存
② 必须澄清被扭曲的历史
③ 历史应根据现时代的状况进行再解释
④ 不必重提已成为过去的历史力
⑤ 其他_____

16) 您对您所生活的地区的乡土史有多大关心?

- ① 非常关心 ② 较关心 ③ 一般 ④ 几乎不关心 ⑤ 完全不关心

17) 同别的国家相比您认为自己的民族文化有多大的独创性?

- ① 非常大 ② 较大 ③ 一般 ④ 几乎没有 ⑤ 完全没有

18) 议论别国的历史是干涉别国的内政, 对这样的观点您的看法是?

- ① 真的是那样 ② 有些那样 ③ 好像不是那样
④ 绝对不那样 ⑤ 不知道

19) 您对未来韩, 中, 日三国的历史问题的解决怎样展望?

- ① 非常乐观 ② 有些乐观 ③ 有些否定
④ 非常否定 ⑤ 不知道

20) 您作为中国人而感到非常自豪吗?

- ① 非常自豪 ② 有些自豪 ③ 不怎么自豪

- ④ 绝对不自豪 ⑤ 不知道

21) 您认为中国人的品行中最大的长处和最突出的短处是什么?

- 21-1) 长处: ① 秩序意识 ② 团结心 ③ 理解心 ④ 有礼节 ⑤ 亲切
⑥ 勤勉 ⑦ 毅力 ⑧ 其他_____

- 21-2) 短处: ① 性急 ② 奢侈 ③ 利己 ④ 暴力 ⑤ 其他_____

22) 您认为中国的国际地位处于什么位置?

- ① 发进国家 ② 发进国家和发展中国家之间 ③ 发展中国家
④ 发展中国家和落后国家之间 ⑤ 落后国家 ⑥ 不知道

23) 您最喜欢的国家是()

24) 喜欢的最主要的理由:

- ① 富裕 ② 战争时期向我国提供过帮助 ③ 福利国家
④ 美丽的自然环境 ⑤ 优秀的国民性 ⑥ 其他_____

25) 如果国家发生战争了,您怎么办?

- ① 在前线作战 ② 看着情况再做决定
③ 先避身 ④ 出国
⑤ 尽自己责任做我该做的事情 ⑥ 其他_____

26) 您对中国社会的未来怎么想?

- ① 比现在好的多
② 比现在稍微好一些
③ 跟现在差不多
④ 比现在稍微坏一些
⑤ 比现在坏的多
⑥ 其他_____

27) 您认为最理想的国家应具备什么样的条件? (多选)

- ① 政治上安定
② 经济上富裕
③ 艺术·文化上成熟
④ 社会福利好

⑤ 没有犯罪和腐败现象

⑥ 其他_____

28) 您对以韩中日三国为中心的东北亚共同体(AU)的形成持有什么样的见解?

① 积极赞成 ② 有些赞成 ③ 一般

④ 有些反对 ⑤ 完全反对

29) 您认为政府一直在执行正确的政策在吗?

① 非常那样 ② 大体上那样 ③ 大体上不那样

④ 完全不那样 ⑤ 不知道

30) 您相信持政的人是清正廉洁的人吗?

① 非常那样 ② 大体上那样 ③ 大体上不那样

④ 完全不那样 ⑤ 不知道

31) 您做好了为国家献身的准备了吗?

① 经常那样 ② 大体上那样 ③ 大体上不那样

④ 完全不那样 ⑤ 不知道

32) 您利用时间最长的课后活外动是?

① 课外学习 ② 观看电视 ③ 兴趣娱乐活动 ④ 志愿服务

⑤ 体育活动 ⑥ 和朋友玩 ⑦ 帮做家务 ⑧ 打工

⑨ 其他_____

33) 您每天观看几个小时的电视? _____小时 _____分

34) 您最喜欢的电视节目是?

① 连续剧(历史剧) ② 喜剧 ③ 新闻 ④ 体育

⑤ 文艺娱乐和歌剧(音乐会) ⑥ 教育节目

⑦ 其他_____

35) 您一天使用多长时间的电脑?

① 30分以内 ② 30分-1个小时 ③ 1个小时-2个小时

④ 2个小时-3小时 ⑤ 3个小时以上

36) 您使用电脑的主要目的是? (多选)

- ① 和朋友聊天 ② 信息搜索 ③ 购物
④ 看连续剧 ⑤ 做作业 ⑥ 听音乐
⑦ 发邮件 ⑧ 其他_____

37) 您观看电影的次数是?

- ① 一个星期一次左右 ② 两个星期一次左右
③ 一个月一次左右 ④ 三个月一次左右
⑤ 其他_____

38) 您最喜欢哪种电影?

- ① 恐怖片 ② 电影(爱情片) ③ 现实主义片(时事主题)
④ 喜剧 ⑤ 战争片 ⑥ 武打片(传统武术)
⑦ 其他_____

39) 您最关心韩国的哪种大众文化?

- ① 电视连续剧(历史剧) ② 电影 ③ 体育
④ 文艺娱乐和歌剧(音乐会) ⑤ 饮食和服装 ⑥ 其他_____

40) 您最关心日本的哪种大众文化?

- ① 电视连续剧(历史剧) ② 电影 ③ 体育
④ 文艺娱乐和歌剧(音乐会) ⑤ 饮食和服装 ⑥ 其他_____

41) 目前您最烦恼的问题是什么?

- ① 学校成绩 ② 同异性交际 ③ 家庭经济状况 ④ 和父母的关系
⑤ 学生之间的暴力 ⑥ 将来去向/职业选择 ⑦ 其他_____

42) 和朋友主要进行什么样的对话? (多选)

- ① 学业(学习) ② 将来去向(职业) ③ 学费(零用钱) ④ 兴趣生活
⑤ 演艺界消息(歌手, 明星, 演员 等) ⑥ 学校生活 ⑦ 体育
⑧ 同异性交往 ⑨ 杂谈 ⑩ 其他_____

43) 您认为您在自己的国家发挥能力的机会有多大?

- ① 非常大 ② 较大 ③ 一般 ④ 较小 ⑤ 非常小

44) 您认为目前最好的职业是什么?

- ① 学校教师/大学教授 ② 公务员 ③ 专职(医生, 律师, 会计师 等)
④ 企业家 ⑤ 艺人 ⑥ 运动选手 ⑦ 其他_____

45) 您认为人际关系中最重要的是什么?

- ① 诚实 ② 外貌 ③ 信赖(信任) ④ 协同心
⑤ 奉献精神 ⑥ 理解心 ⑦ 语气/幽默
⑧ 其他_____

-完-

[일본]

日・韓・中 青少年の国家認識・国家観の比較調査 調査ご協力をお願い

時下ますますご清祥のこととお喜び申し上げます。

この度、この度、当大学におきましては、韓国青少年開発院からの委託により、みなさま方の歴史認識、国家観、生活文化及び価値観についておうかがいし、日本・韓国・中国の三国を比較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アンケート調査を企画いたしました。

また、ご回答いただいた内容につきましては、統計的に処理いたしますので、個々の方々のお名前や内容が外部に出るようなことはございません。

つきましては、ご多忙の折、誠に恐縮とは存じますが、上記の趣旨をご理解の上、本調査にご協力賜り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2006年 3月

尚絅学院大学 不破和彦

〒981-1295 宮城県名取市ゆりが丘4丁目10-1

(電話：022-381-3300)

※ 次の質問を良く読んで当たる事項で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1) あなたの現在身分は？

- ① 中学生 ② 高校生 ③ 大学生

2) あなたの性別は？

- ① 男 ② 女

3) あなたの歴史に体しての知識水準は？

- ① 上 ② 中 ③ 下

4) あなたの海外旅行などの国際交流活動の経験は？

- ① 全然ない ② 1~2回 ③ 3回以上

5) あなたは歴史にどの程度の興味や関心を持っていますか？

- ① 非常に強い ② やや強い ③ 普通 ④ あまりない ⑤ 全然ない

- 220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연구

- 13) 現在 `自分たち同世代の考えや行動が歴史の発展にどのくらい影響を与えていると思いますか？
① とても与える ② 少し与える ③ 普通 ④ あまり与えない ⑤ 全然与えない
- 14) あなたは歴史を発展させる主な原動力は何だと思われますか？
① 政治指導者の能力 ② 民衆（一般に人びと）の力 ③ 周辺国家の影響
④ 知識人や改革勢力の影響 ⑤ 宗教の影響 ⑥ その他（ ）
- 15) あなたは歴史についてどのように考えますか？
① すべての歴史はそのまま保存されるべきだ
② 間違った歴史は必ず正しく直されるべきだ
③ 歴史は時代状況によって再評価されるべきだ
④ あえて過ぎ去った歴史について再び議論する必要はない
⑤ その他（ ）
- 16) あなたは `自分が住んでいる地域の郷土史について `どの程度の関心を持っていますか？
① とても強い関心 ② 少し強い関心 ③ 普通 ④ あまり関心ない
⑤ 全然 `関心ない
- 17) あなたは `自分の国の民族文化を他の国と比べたとき `独創的な面がどのくらいあると思いますか？
① とても多い ② 少しだけ多い ③ 普通 ④ あまりない ⑤ 全然ない
- 18) あなたは `他の国の歴史に関して論議することは内政干渉になると思いますか？
① 本当にそう思う。 ② 少しはそう思う。 ③ わからない
④ あまりそうは思わない ⑤ 絶対に `そうは思わない
- 19) あなたは `歴史問題に関して `これからの日本・韓国・中国の三国の協力関係をどのよう
に展望（見通）していますか？
① とても楽観的に考えている ② 多少は楽観的に考えている ③ わからない
④ 多少は否定的に考えている ⑤ とても否定的に考えている
- 20) あなたは `自分が日本人だということを非常に自慢に思っていますか
① とても自慢 ② 少し自慢 ③ 良くわからない
④ あまり自慢に思わない ⑤ まったく自慢していない
- 21) あなたからみて `日本人の国民性の長所と短所は何だと思われますか？（複数選んでも良い）

21-1)長所について : ① 秩序意識 ② 団結心 ③ 理解心 ④ 礼儀正しさ
⑤ 親切心 ⑥ 勤勉性 ⑦ 根気(こんき)強さ
⑧ その他()

21-2)短所について : ① 気早な面 ② 奢侈(はずかしさ) ③ 利己心
④ 暴力的 ⑤ その他()

22) あなたは `日本の国際的な地位はどの程度であると思いますか

- ① 先進国 ② 先進国と中進国の間 ③ 中進国 ④ 中進国と後進国の間
⑤ 後進国 ⑥ 良くわからない

23) あなたが世界の中で一番好きな国は? ()

24) その国が好きな理由は何でしょうか

- ① お金持ちだから ② 戦争のとき `助けてくれたから
③ 福祉国家であるから ④ 自然がきれいだから
⑤ 国民性が優秀だから ⑥ その他()

25) 일본조사에서 이 문항은 제외되었음

26) あなたは `日本社会の未来についてどのように展望(見通)していますか?

- ① 今よりずいぶん良くなるだろうと思う ② 今より少し良くなるだろうと思う
③ 今とあまり変わらないだろうと思う ④ 今より少し悪くなると思う
⑤ 今よりもっと悪くなるだろうと思う
⑥ その他()

27) あなたは `どのような国が一番に理想的であると思いますか? (複数選んでも良い)

- ① 政治的に安定している国 ② 経済的に豊かな国 ③ 芸術・文化が成長した国
④ 社会福祉が良い国 ⑤ 犯罪や不正 `腐敗がない国
⑥ その他()

28) あなたは `日本・韓国・中国を中心としたアジア国家連合(AU)形成にどんな意見を持っていますか?

- ① 非常に賛成 ② やや賛成 ③ まあまあ ④ やや反対 ⑤ 非常に反対

29) あなたからみて `日本の政府はいつも正しいこと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か

- ① とても正しい ② だいたい正しい ③ 良くわからない
④ あまり正しくない ⑤ まったく正しくない

30) 政府の役人は `不正をせず `規則に従い公正に社会そして国民のために仕事していると `あなたは信じていますか?

- ① 大いに信じている ② まあまあ信じている ③ 良くわからない
④ あまり信じていない ⑤ まったく信じていない

31) あなたは `自分の国家のために献身したいという姿勢をもっていますか

- ① いつも持っている ② だいたい持っている ③ 良くわからない
④ あまり持っていない ⑤ まったく持っていない

32) あなたが放課後に一番多く時間を使っている活動は何ですか?

- ① 教科学習 ② 課外活動 ③ テレビ視聴 ④ 趣味娯楽活動
⑤ 芸能活動 ⑥ 友達との遊び ⑦ 家事の手伝い ⑧ ボランティア活動
⑨ アルバイト ⑩ その他()

33) あなたはテレビを毎日どのくらい時間見えていますか?

(時間 分)

34) あなたが好きなテレビの番組(プログラム)は何ですか?

- ① 時代劇 ② コメディ ③ ニュース ④ スポーツ ⑤ 芸能番組や歌番組
⑥ 教育番組 ⑦ 教養番組 ⑧ その他()

35) あなたは `一日にコンピュータを使用する時間はどのくらいですか?

- ① 30分以内 ② 30分~1時間以内 ③ 1時間~2時間以内
④ 2時間~3時間以内 ⑤ 3時間以上

36) あなたがコンピュータを使う主な目的は何ですか?(複数選んでも良い)

- ① 友達とのチャット ② インタネット情報検索 ③ 買い物
④ ドラマ視聴 ⑤ 学校の課題 ⑥ 音楽聴取
⑦ その他()

37) あなたは映画をどのくらい観覧していますか?

- ① 週一回 ② 2週で1回 ③ 一ヶ月で1回
④ 3ヶ月で1回 ⑤ その他()

38) あなたが一番好きな映画のジャンルはなんですか?

- ① 恐怖映画 ② 恋愛映画 ③ 時事映画 ④ コメディ映画
⑤ 戦争映画 ⑥ 活劇映画 ⑦ その他()

39) あなたが `関心をもっている韓国の大衆文化は？

- ① TVドラマ(時代劇) ② 映画 ③ スポーツ ④ 芸能番組や歌番組
⑤ 料理・衣服 ⑥ その他()

40) あなたが `関心をもっている 中国の大衆文化は？

- ① TVドラマ(時代劇) ② 映画 ③ スポーツ
④ 芸能番組や歌番組 ⑤ 料理・衣服 ⑥ その他()

41) 今 `あなたが一番悩んでいることは何ですか？

- ① 学校の成績 ② 異性間の付き合い ③ 家庭経済
④ 両親との関係(家庭不和) ⑤ 学生の暴力 ⑥ 進路および職の選択
⑦ その他()

42) あなたが友達と対話するとき話題として多いのは何ですか？(複数選んでも良い)

- ① 勉強 ② 将来進路(職) ③ 学費(小遣い)
④ 趣味生活 ⑤ 芸能界のニュース ⑥ 学校生活
⑦ スポーツ ⑧ 異性間の付き合い ⑨ 雑談 ⑩ その他()

43) あなたは `自分の国(社会)で自分の能力を十分に発揮する機会があると思いますか？

- ① 非常にある ② 多少ある ③ 普通 ④ 少ない ⑤ とても少ない

44) あなたは `どんな職業を一番良いと思っていますか？

- ① 教師・教授 ② 公務員 ③ 専門家(医者・弁護士等)
④ 事業者 ⑤ 芸能人 ⑥ スポーツ選手 ⑦ その他()

45) あなたは対人関係でどんなことが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か？

- ① 誠実 ② 見た目 ③ 信頼 ④ 協同心
⑤ 奉仕精神 ⑥ 理解心 ⑦ 言い方・ユーモア ⑧ その他()

-The End-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박진규 호서대학교 · 교수

박혁순 목포대학교 · 교수

박정배 순천향대학교 · 강사

염진수 국제워크캠프기구 · 대표

지세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대외협력부장

최금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박사

연구보고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연구

인 쇄 2006년 11월 17일

발 행 2006년 11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주)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28-7 93330